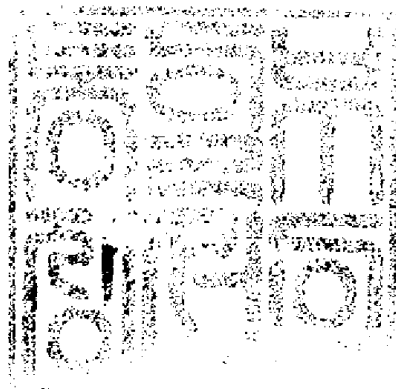


# 한국전쟁과 국제갈등

1998. 9

〈연구집필〉 박명림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실장)  
김계동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통 일 부

○ 이 자료는 통일부의 용역위족 계획에 의거한 연구결과임.

○ 수록된 내용은 통일정책의 참고자료로 제공되는 것으로 통일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님.

통 일 정 책 실

# < 요약 >

본 연구는 한국전쟁 기간중의 국제갈등과 협력에 관한 연구이다. 우리는 본 연구에서 두 가지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하나는 한국전쟁 기간중의 영미갈등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군 참전을 둘러싼 북한-중국-소련간의 갈등과 협력관계이다.

먼저 한국전쟁 동안의 영미관계는 협조와 갈등의 외교관계라 할 수 있었다. 양국은 기본적으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세력의 팽창을 봉쇄하기 위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합의를 하였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아시아 타지역에서의 정책은 상이하였고 특히 중국문제에 대하여 의견차이가 있었다.

영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 함께 유엔의 이름하에 한국전에 참전함으로써 미국은 세계의 냉전체제 하에서 서방세계의 결속력을 공산측에 과시할 수가 있었다. 특히 극동에 있어서 미국의 안보이익은 다른 서방국가들과 당시 냉전의 전초기지라 할 수 있었던 한국에서의 공동전략으로 강화될 수가 있었다. 대외적인 명목상으로 영국의 한국전 참전은 유엔의 세계평화 유지를 위한 결의에 대한 충성적인 지원으로 주장이 되었지만, 당시 세계정치의 역학관계로 보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의 대공산전략의 일환이었다 할 수 있다.

참전결정이나 전쟁수행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은 공산세력의 무력사용을 물리쳐야 한다는 공동목표를 공유하고 있었으나, 이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양국은 전략적이고 외교적인 마찰을 경험하였다. 특히 중국의 한국전 참전을 전후하여 영국 등 연합국들은 보다 더 조심스러운 전략수립을 요구하였고, 미국지도자들은 한국에서 강경한 정책을 취하지 말라는 동맹국들의 조심스런 경고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영국 등 전쟁제한론을 주장하는 국가들은 전쟁초기부터 협상에 의한 전쟁의 종결을 원하였다. 특히 그들은 인천상륙작전의 성공 이후 유엔측은 유리한 입장에서 공산측과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적어도 38선에 접근하였을 때 미국은 북한측에 완전 패망을 경고하면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한, 또는 유엔의 감시하의 통일을 제의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하여 공산측이 반대를 한 이후 북한 지역으로 진격을 해야만 했다는 아쉬움을 보였다. 북한이 이를 수용하여 평화통일 의사를 보였을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지만, 미국이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면 유엔군의 북한지역 진격에 대한 명분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었고, 중국도 참전의 구실을 별로 찾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1950년 10월초에 북한군은 거의 완전히 패멸하다시피 하였으므로 유엔군이 확전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서둘러서 북한 지역으로 진격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전쟁이 3년씩이나 장기화되었기 때문에 조기종전을 모색하는 시도를 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논리적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진격을 할 때, 미국정부는 빈번한 중국정부의 경고와 연합국들의 권고를 주의깊게 받아들였어야 했다. 북위 40도선의 잘룩한 부분에 방어선을 구축한 후, 한국군대만 진격을 시켜 압록강에 다다르게

했다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군대의 국경을 향한 진격을 두려워 했던 중국의 위협감을 해소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방어선에서 공격을 멈춘 후 중국군 참전 이전에 협상을 시도하였다면 미국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힘의 우위를 점한 후 협상한다는 정책을 충족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영·미 정상회담부터 양국의 갈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한국 문제는 미국이 중국에게 양보할 의사가 있을 때에만 해결될 수 있다는 끈질긴 애트리의 경고와 백아더에 대한 불만토로는 미국으로하여금 영국군의 철수까지 언급하게 하는 심각한 갈등관계를 표출하였다. 미행정부는 힘의 우위를 기초로 한 협상을 원하였고 연약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영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섯차례의 정상회담에서 영국과 미국은 세계안보체제에 있어서 통일된 전략을 취하여야 된다는 점을 확인한 이외에는 한국에서 양국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었다. 여섯차례의 정상회담은 양국의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하였다.

유럽과 중동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던 영국은 모든 극동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비롯한 미국의 유엔에서의 주도적 역할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표시하였다. 영국인들은 중국에게 적대감을 보이는 것은 중국과 소련의 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모건(Kenneth Morgan)은 “노동당정부는 중국과 소련을 동질로 보고 있는 워싱턴의 냉전적 이념론자들에게 휩쓸려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역사가 짧은 국가이기 때문에 행정부는 무모한 도박을 일삼는 경우가 많다”고 51년 1월 5일 베빈이 네루에게 말한 것처럼, 영국지도자들은 미국인들이 “일관된 정책을 취하지 못하는 변덕스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에 영국인들은 한국전쟁이 서유럽에 대한 공격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위한 소련에 의하여 일으켜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세계전략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영국과 미국은 이해의 대립과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었지만, 이러한 갈등은 전력을 다한 대결로써 풀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은 전반적인 우호관계에 따르는 이득이 양국이 단기적인 목적에 의하여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 각자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강요함에 있어서 확실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비록 그들이 한국과 중국문제에 있어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세계전략에 있어서는 분리될 수가 없었다. 한국과 중국문제에 대하여 의견차이는 있었지만, 기본적인 세계전략에 있어서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동맹관계라는데 두 나라는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영국은 서방세계의 한국전에의 개입을 주도하고 있었던 미국의 지배력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영국, 영연방국가, 아니면 서유럽에 공산권의 새로운 공격이 있을 시 미국의 도움이 없이 방어하기는 거의 불가능했던 상황이라 미국에 호

의(goodwill)를 보여야 한다는 사실에 거역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또한 세계전략에 있어서 영국은 미국과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확인함으로써, 2차 대전후 새로 편성된 동서냉전 대립의 긴박한 구조 속에서 영국의 위상을 확립할 수가 있었다. 우리는 앞으로 한국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시에 서방진영에서 갈등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한편, 반대로 그러한 갈등관계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모든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는 대비 역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참전을 둘러싼 내용들은 1950년 가을 북한이 전세 역전으로 인해 직면했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소련-중국-북한은 어떠한 대응을 하였고,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쳐 중국군이 참전하였는가 하는 문제들이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새로운 점을 밝히기도 하였고 또 기존의 사실들을 확인하고 정리하기도 하였다. 전세의 역전 직후 북한의 김일성과 박헌영은 스탈린과 모택동에게 거의 모든 것을 매달릴만큼 적극적으로 원조를 요청하였다. 그들은 그들 둘에게 자신들 둘 모두가 서명한 편지를 직접 보내 참전을 호소하였다. 흥미있는 것은 중국군 참전을 위한 종용의 요청까지도 김일성과 박헌영이 스탈린에게 하고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이미 전쟁의 결정과정에서 그들이 실제의 최고결정권과 지도성(supremacy)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당시의 동아시아공산주의3각동맹 국가들 사이의 위계 및 세계공산주의 진영에서의 스탈린의 위치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스탈린은 자기가 사태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둘을 분리통치하고 분할관리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둘이 독자적으로 교통하여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려 하지 않았다. 이 점 역시 1950년 6월에 이르기까지의 결정과정의 재현이었다.

전세 역전 후 김일성·박헌영과 스탈린, 모택동 각각이 보인 반응 역시 전쟁을 결정할 때의 과정과 거의 동일했다. 김일성과 박헌영만큼 절박한 사람은 없었다. 전쟁을 시작할 때도 그들은 조급한 통일열정과 무모한 군사적 승리주의를 앞세워 스탈린과 모택동을 어지간히 줄라대며 설득하였었다. 전세가 역전되자 그들에게 황급하게 지원을 요청해놓고는, 일반이 놀랍게도 적들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자신들끼리 다투고 치고 받는 싸움박질을 하고 있었다. 외국의 대사가 찾아와도 중지하지 않고 싸울만큼, 남들이 보건 말건 전세가 역전되자 그들은 이미 패전의 책임을 의식하며 책임전가를 위한 길고 긴 싸움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둘은 외국과의 교섭을 위한 중차대한 임무를 분담하고, 또 군대내의 최고 직위를 양분하며 적에게 맞섰다. 이들의 이 엇갈리는 행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측할 수 있고, 무엇을 가려낼 수 있는 것일까? 아니, 무엇을 위하여 그들은 전쟁을 시작했던 것인가?

스탈린의 행태는 참으로 전율적으로 보인다. 그의 차갑고도 치밀한 대응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에게서 어떤 무서움까지 느끼게 한다. 인간과 국가간 관계에서 신뢰,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스탈린은 직접 참전할 염(念)은 조금도 없었으나

모택동이 참전하여 미국과 싸워준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었다. 자신의 공군지원약속 위반으로 중국이 참전을 주저하자 그는 미련없이 김일성과 북한정부를 버리고자했다. 절정적인 국면에서 그가 취하는 선택과 자세에서 느껴지는 것은, 지나친 현실감과 이기성이 감지되는 '무서우리만치 섬뜩한 냉혹성과 급속성'이었다.

그의 판단은 예리했고 그는 절정의 거의 전부를, 공허한 국제프롤레타리아주의가 아니라 실제로 잡힐 수 있는 소련의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그런 점에서 그는 공허한 국제프롤레타리아주의자가 아니라 철저한 소련국의우선주의자였다. 그는 또한 보이지 않는 이념을 추구하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확실하게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는 현실주의자였다. 그러나 그는 다른 공산주의자들에게는 항상 국제공산주의연대, 프롤레타리아공산주의자로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었다. 그는 다른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적 노선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려 하지 않았다.

중국군 참전을 둘러싼 그의 비밀전문들은 모택동과 김일성을 분리 조종하고, 그리하여 참전시키려하면서도, 자신의 의사는 철저하게 숨기고있는 놀라운 전략가와 지략가의 면모를 약여하게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정도의 철면피성은 충분히 감내하고 지탱할만한 힘과 권위를 당시 공산진영내에서는 갖고 있었다. 힘과 권위 없이 인간의 철면피성은 결코 만들어지지도 지탱되지도 않는다. 특히 그것은 반복되는 습관속에서 남들의 떠받듬으로 인해 이내 일상화된다. 스탈린은 지난 수십년 동안의 공산진영내의 도전불능의 최고지도성(supremacy)으로 인해 그러한 것쯤은 이미 일상화되어있었던 것이다.

모택동과 중국지도부는 현실과 이상, 국가이익과 사회주의연대라는 깊은 심연(深淵)이 가로인 둘 사이에서 고뇌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현실을 놓고, 그리고 그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을 놓고 그 사이에서 심각하게 망설이고 있었다. 어느 현실이 진정 더 중요시해야할 현실인가가 문제였다. 그는 신생의 조국의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미래의 발전을 위해 또 다른 현실인 스탈린의 요구를 수용하고 미국의 압력에 맞서기 위해 북한을 지원하는 건곤일척의 선택을 강행하였다. 미국에 대한 대응을 보면 스탈린은 내내 소심하고 조심했으나, 그는 두려워했으되 담대했고 승부를 걸었다.

그러나 모택동의 참전 결정은 결국 그가 이상지향적인 현실주의자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의리와 연대, 형제, 인방 등 약간의 낭만주의적 주의주의적 사고도 크게 작용했다. 그 차이가 결국은 스탈린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 문화혁명을 비롯한 그 이후의 그의 국가운영정책에서도 이러한 그의 행태는 지워지지 않았다. 그가 아들까지 참전시켜, 절국은 죽음으로까지 이르고만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로부터 어떤 고래의 동양적 군주나 지도자의 일면을 보는 것도 같다. 그는 참전을 강력히 권유하면서도 공군지원을 못하겠다고 하는 스탈린의 약속위반에 혀를 내둘렀을 것이지만, 만상(萬象)에 대한 원려와 피

를 말리는 고뇌 끝에 결국 참전의 결단을 내렸다.

1950년 10월의 중국참전에서 의 소-중-북한관계를 검토한 결과 우리는 이 결정의 과정이 국제프롤레타리아연대, 사회주의연대, 민족해방의 지원이라는 구호 뒤에 자신들의 국익을 추구하기 위한 불꽃튀는 계산과 갈등이 내재된 게임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질라스(Milovan Djilas)가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과학적, 맑스주의적 등의 용어 속에 (국익을 위해) 스탈린에 대한 극단적인 아첨을 당시의 공산지도자들이 은폐하고 있었던 것처럼” 국제프롤레타리아연대, 사회주의연대, 민족해방의 지원이라는 구호들은 다만 상투적인 언설들로 치장된, 각자의 국가이익을 위한 은폐와 계산일 뿐이었다. 1950년 한국전쟁시의 스탈린의 대응에서 이 이상의 어떤 공통의 이익이나 제3세계 민중에 대한 지원, 세계평화 등의 가치를 찾으려 노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오래지 않아 이들 셋이 모두 갈라져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였다는 점은 그들이 내세운 보편적 공통적 가치가 얼마나 공허했는가를 반증해주는 증거였다. 격렬했던 중소갈등은 논외로 하더라도 북한 역시 주체노선을 기치로 하여 이들과의 분립을 분명히 했다. 국제프롤레타리아주의나 사회주의연대처럼 “각 민족의 이익을 보다 높은 공통의 목적보다 밑에 두는 한 그것들은 민족주의체제가 아닌 것”이라는 홉스봄(Eric Hobsbawm)의 지적이 옳은 통찰이듯, 철저히 각자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내세워지는 어떠한 공통의 구호도 진실이 아닐 것일 것이다.

오늘에도 우리의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당시의 문제는 상존한다. 1950년 가을 북진을 결정할 때 미국이 가장 우려한 것은 북한의 후원국가들인 소련과 중국의 대응이었다. 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직접 참전하여 전쟁이 확대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가 가장 큰 우려였던 것이다. 냉전의 해체와 소련의 붕괴로 인해 중요한 한 요소는 사라졌지만, 중국은 여전히 견제하기 때문에 오늘에도 이 문제는 일정 정도 적실성이 있다. 북한에서의 급격한 사태 발생시 중국은 과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1950년과 같이 직접 개입하여 사태를 구획하려 시도할 것인가?

중국은 당시 대규모 병력이 직접 참전하였을 뿐만아니라 아예 조중연합사령부(朝中聯合司令部)를 설치하여 양국군이 단일한 합동 지휘체계하에 전쟁을 수행하였으며, 휴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이기 때문에 북한의 소멸을 통한 한반도의 휴전체제의 변화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개입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오늘날 중국의 개입 여부 및 그 방식이 한국문제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국전쟁시의 38선 북진의 문제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휴전선 해소의 문제로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오늘의 북한이 휴전선을 철폐하기 위한 선제전쟁을 개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속에서 급격히 내부적 격동에 빠질 때이다. 그럴 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상정해 볼 수 있는 주요 쟁점은 전쟁시의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에서의 급격한 사태 발생시 우리는 군사적 개입을 하여야 하는가? 아니라면 우리는 북한의 기존 정부와 통일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여야 하는가 아닌가? 즉 북한정부를 인정한 상태에서 통일협상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와 점령을 시도해야하는가? 둘째 군사적 개입을 시도할 시 한국군 단독인가, 아니면 미군 또는 국련군과의 합동인가? 셋째 개입시 중국군은 대응 개입을 할 것인가, 아닌가?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떠해야하는가? 중국군의 개입을 외교적으로 저지하는 것인가, 아니면 개입에도 불구하고 북진점령을 시도해야하는가?

넷째 중국군의 개입은 새로운 전쟁으로 발전할 것인가 아닌가? 만약에 중국이 1950년처럼 남한군만의 북진은 허용하지만 미군의 북진은 안된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다섯째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비국의 정책이 갈릴 경우 우리는 어떠한 하나의 정책을 맡고나갈 것인가? 비국과 같은 정책을 펴면서 국제적 협조노선을 견지할 것인가, 아니면 비국의 의사에 관계없이 우리의 의사를 믿어부처 조속한 통일을 실현하려 노력할 것인가? 이를테면 특히 미군의 북진반대가 있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끝으로 통일이 되었을 경우 오늘의 북한리더십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모든 하나 하나의 문제가 간단치 않을 뿐만 아니라 사태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사려깊은 대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	3
II. 한국전쟁 기간중 영국·미국간의 갈등 .....	6
1. 전쟁 초기 영국의 평화적 해결의 모색 .....	6
2. 중국의 참전과 영국의 「완충지대안」 .....	8
3. 영미정상회담 ; 중국에 대한 강경론과 유화론의 대립 .....	14
4. 중국의 침략자 규정 결의안에 대한 논쟁 .....	20
III. 중국군 참전과 북한·중국·소련관계 ;	
「아시아공산주의 3각동맹」의 협력과 긴장 .....	30
1. 미군·국군의 북진과 북한의 대응 ;	
절멸의 위기와 소련·중국에의 구원요청 .....	30
2. 절멸의 위기와 북한리더십 내부갈등의 격화 .....	40
3. 38선 북진과 「동아시아공산주의 3각동맹」의 대응(1) ;	
중국의 참전과정 .....	45
4. 38선 북진과 「동아시아공산주의 3각동맹」의 대응(2) ;	
중국의 참전분석 .....	59
IV. 맺음말 - 오늘에의 시사 .....	73

## I. 문제의 제기

본 연구는 한국전쟁 기간중의 국제갈등과 협력에 관한 연구이다. 우리는 본 연구에서 두 가지를 다루려고 한다. 하나는 한국전쟁 기간중의 영미갈등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군 참전을 둘러싼 북한-중국-소련간의 갈등과 협력관계이다.

먼저 한국전쟁 동안의 영미관계는 협조와 갈등의 외교관계라 할 수 있었다. 양국은 기본적으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세력의 팽창을 봉쇄하기 위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합의를 하였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아시아 타지역에서의 정책은 상이하였고 특히 중국문제에 대하여 의견차이가 있었다. 아시아에 있어서 영국의 정책은 과거와 당시의 식민지였던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의 지역을 중국을 비롯한 공산세력의 침투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던 반면에,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은 아시아 전 지역에서 공산세력의 팽창을 봉쇄(containment) 내지는 회복(rollback)하는 것이었다.<sup>1)</sup>

한국전쟁은 소련이 영향권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북한의 김일성에게 남침을 시킨 대리전쟁(proxy war)이라는 것이 당시 미국에 지배적이었던 한국전쟁관이였다. 즉 한국전은 소련 자신의 직접개입을 피하면서 무력도발을 자행하는 전형적인 스탈린 전략의 일환이라고 미국인들은 믿었다. 이러한 기본관념을 바탕으로 미국인들은 소련의 서방자유세계에 대한 도전을 무력으로 대응하는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무력대응 만이 소련의 독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전달수단”이라는 것이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의 신조였다.<sup>2)</sup>

한국전에의 개입과정에서 미국은 서방세계의 결속력 내지는 단합력을 공산측에 보여주기 위하여 유엔결의를 바탕으로한 집단개입(collective intervention)을 시도 하였다. 이와같이 집단개입을 시도하면서 트루먼 대통령은 “세계평화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무시하는 공산측의 처사에 대하여 유엔현장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참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sup>3)</sup>

미국은 1945년 이후 미군정을 통하여 남한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면서 미국의 극동에서의 안보이익을 점증시켜 온 반면, 역사적이나 지리적으로 영국은 한국과 별로 깊은 관계는 없었다. 희미한 역사적 연관성을 찾는다면, 19세기말 조선의 개항 이후 약간의 상교역이 있었고 해방 이전까지 영국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1) Gye-Dong Kim, *Foreign Intervention in Korea* (Aldershot: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1993), pp.426-427.

2) Joseph C. Goulden, *Korea : The Untold Story of the Korean War* (New York: Times Book, 1982), p.59; Barbour to Acheson, No.1726, 25 June 1950, FRUS(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7:139-40.

3)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 Harry S. Truman 1950*, pp.491-2.

행한 선교활동을 들 수 있겠다. 그리고 1945년 해방 후 신탁통치가 이루어졌다면 영국은 한반도를 신탁통치할 4개국 중의 하나가 될 뻔 하였다.

이와같이 역사적인 연관성은 별로 없었으나, 한국전쟁 발발 후 영국정부는 미국의 주도로 유엔이 채택한 남한 지원 결정을 지지하였고 이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였다. 북한군의 남침은 분명히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유엔의 비례를 위하고 소련의 다른지역에서의 도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침략자들이 그들의 도발목적을 이룩하도록 방지하면 안된다”는 것이 한국전쟁 발발에 대한 영국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다.<sup>4)</sup>

그러나 영국인들은 개입과정에서 미국정부의 공산권에 대한 공격적인 또는 호전적인 태도에 불만을 가졌다. 영국인들은 만약 한국전이 장기화된다면 미국정부가 한국에서 불리한 상황에 당황하여 “경솔한 행동(precipitate action)”을 취함으로써 한국전쟁이 세계전쟁으로 확대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sup>5)</sup> 영국은 직접적인 대규모 군사개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한국전에 대한 영국의 제일의 목적은 전쟁을 한반도에 제한시키고 협상에 의한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영국의 국익이 중시되는 지역인 동남아시아로 한반도에서의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피하고 중국을 포함한 공산국가와의 무역이 침해 받지 않도록 평화를 추구하였다.

큰 틀에 있어서 미국과 영국의 한국전쟁에 대한 정책은 별 차이가 없었지만,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양국의 국익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안별로 의견차이가 있었고, 심한 경우에는 대립적인 태도를 보인적도 있다. 전시 연합국들은 전쟁의 승리라는 공통된 이익을 위하여는 결속하지만, 전쟁의 승리를 추구하는 이유 및 과정에서 갈등을 보이는 경우는 허다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전쟁중 미국과 영국의 한국전쟁 정책중 양국이 견해차이를 보이고 갈등을 겪었던 부분을 연구하고자 한다.

다른 또 하나의 주제는 중국군의 한국전 참전을 둘러싼 동아시아공산주의<sup>3</sup> 각동맹의 협력과 긴장이다. 1950년 9월 15일 국련군의 인천상륙작전을 저지하는데 실패하고 10월 1일에는 38선이북으로의 북진마저 허용한 북한은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어몰리고 있었다. 최초에 남한을 타도하고자 시작한 전쟁이 역으로 이제는 자기 자신들이 타도당할 위치로 뒤바뀐 것이었다. 목적은 수정되지않으면 안되었다. (전국)통일에서 (북한)수호로, 최초 의도의 완전한 역전, 이 격변적 사태반전에 직면하여 북한은 어떤 대응을 하였는가? 우리는 지금부터 1950년 10월 전세의 역전 이후 북한의 대응과 북한-중국-소련 사이의 관계를 추적하려한다. 그러나 이

4) *Parliamentary Debates (Hansard)*, House of Commons, Vol.476, 27 June 1950, cols.2160-1; *Foreign Office memorandum*, 26 June 1950, FK1015/62, FO371/84058, PRO (Public Record Office, London).

5) *Minutes of a meeting held in the Minister of State's room on 30 June, 1 July 1950*, FK1022/59, FO371/84082, PRO.

주제가 갖고있는 내용의 방대함과 비밀스러움에 비추어 본논문에서 초점을 두어 추적, 해석하려는 문제는 다음의 몇 가지에 한정된다.

먼저, 위기에 몰린 북한이 소련과 중국을 상대로 벌였던 외교적 군사적 지원요청의 과정과 중국의 참전결정의 과정과 요인을 추적하는 것이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생존을 위해 그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였고, 또 1950년 봄 전쟁의 개시에 동의했던 소련·스탈린과, 중국·모택동은 어떤 반응을 하였을까? 두번째는 북한리더십내부의 대응을 추적하려한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영역이자 주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차 자료에 근거한 사실적 재구성에 충실하려한다. 세번째는 중국군 참전 이후의 북한지역에서의 북한과 중국의 연합작전이나 협조관계, 그리고 군사부분에서의 전략이나 대응이 분석될 것이다.

## II. 한국전쟁 기간중 영국·미국간의 갈등

### 1. 전쟁 초기 영국의 평화적 해결의 모색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직후 영국정부는 공산군의 침략에 대한 무력대응 결정을 하기 전에, 전쟁을 평화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종식 시키려는 유엔의 노력에 협조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련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를 희망하였다. 영국인들은 북한이 소련의 위성국이기 때문에 소련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믿었다. 소련은 대외적으로 형식적이거나 평화를 사랑한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회피하는 대답”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영국인들은 믿었다.<sup>6)</sup>

이러한 제의에 대하여 미국정부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무력대응 결정을 하자, 주소 영국대사 켈리 경 (Sir David Kelly)이 7월 6일부터 소련의 그로미코 (Andrei Gromyko) 부외상을 직접 접촉하면서, 소련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행위를 중단하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로미코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소련도 “평화적인 해결”을 원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로미코와 접촉을 하는 동안 켈리는 서방측이 “극동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해결”에 동의한다면, 소련은 북한군이 전부행위를 멈추고 38선으로 돌아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켈리는 7월 11일 그로미코를 다시 만나 한국전 조기 종결에 소련이 동참해 주기를 제차 요구하였다. 그로미코가 왜 영국은 소련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자, 켈리는 현실적으로 소련만이 북한정부에 대하여 “특별한 영향(special influence)”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였다. 켈리의 설득과 요구에 답하여 그로미코는 한반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종결시키는 방안은 중국의 참여하에 안보리를 열어 이 문제를 토론하고, 이 토론에는 한국인 대표들도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7)</sup>

우연히도 주중인도 대사인 파니카 (K.M. Panikkar)도 비슷한 목적으로 중국 정부와 접촉을 하고 있었다. 영국과 인도정부는 한국에서의 최대목표는 협상을 통한 종전이라 믿었고, 이러한 생각은 일부 서방국가와 많은 수의 제3세계 비동맹국가들에 의하여 견지되었다. 대만의 소유권을 비롯한 중국문제에 대하여 서방세계가 공산측에 양보를 하는 조건으로 중국과 소련이 김일성에게 압력을 넣어 북한

6) *Foreign Office memorandum*, 26 June 1950, FK1015/62, FO371/84058, PRO (Public Record Office, London).

7) *Kelly to Foreign Office*, No. 597, 11 July 1950, FK1022/96G, FO371/84085, PRO.

## II. 한국전쟁 기간중 영국·미국간의 갈등

### 1. 전쟁 초기 영국의 평화적 해결의 모색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직후 영국정부는 공산군의 침략에 대한 무력대응 결정을 하기 전에, 전쟁을 평화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종식 시키려는 유엔의 노력에 협조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련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를 희망하였다. 영국인들은 북한이 소련의 위성국이기 때문에 소련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믿었다. 소련은 대외적으로 형식적이거나 평화를 사랑한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회피하는 대답”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영국인들은 믿었다.<sup>6)</sup>

이러한 제의에 대하여 미국정부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무력대응 결정을 하자, 주소 영국대사 켈리 경 (Sir David Kelly)이 7월 6일부터 소련의 그로미코 (Andrei Gromyko) 부외상을 직접 접촉하면서, 소련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행위를 중단하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로미코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소련도 “평화적인 해결”을 원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로미코와 접촉을 하는 동안 켈리는 서방측이 “극동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해결”에 동의한다면, 소련은 북한군이 전부행위를 멈추고 38선으로 돌아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켈리는 7월 11일 그로미코를 다시 만나 한국전 조기 종결에 소련이 동참해 주기를 제차 요구하였다. 그로미코가 왜 영국은 소련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자, 켈리는 현실적으로 소련만이 북한정부에 대하여 “특별한 영향(special influence)”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였다. 켈리의 설득과 요구에 답하여 그로미코는 한반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종결시키는 방안은 중국의 참여하에 안보리를 열어 이 문제를 토론하고, 이 토론에는 한국인 대표들도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7)</sup>

우연히도 주중인도 대사인 파니카 (K.M. Panikkar)도 비슷한 목적으로 중국 정부와 접촉을 하고 있었다. 영국과 인도정부는 한국에서의 최대목표는 협상을 통한 종전이라 믿었고, 이러한 생각은 일부 서방국가와 많은 수의 제3세계 비동맹국가들에 의하여 견지되었다. 대만의 소유권을 비롯한 중국문제에 대하여 서방세계가 공산측에 양보를 하는 조건으로 중국과 소련이 김일성에게 압력을 넣어 북한

6) *Foreign Office memorandum*, 26 June 1950, FK1015/62, FO371/84058, PRO (Public Record Office, London).

7) *Kelly to Foreign Office*, No. 597, 11 July 1950, FK1022/96G, FO371/84085, PRO.

군대를 38선 이북으로 철수하기를 제안하였다. 영국의 중국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과 서방세계가 중국정부를 승인하고 유엔에 가입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sup>8)</sup>

영국은 중국과 북한을 동일시 하지 말고, 중국이 소련의 영향권 안에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서방세계는 중국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영국인들은 모택동에게 “충분한 시간과 호의 (enough time and sympathy)”를 보낸다면 모택동은 “아시아의 티토 (Tito)”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영국의 베빈(Bevin) 외상은 미국이 대만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소련이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여 전쟁 이전상태로 돌아가는 데 합의한다면 미국이 이에 동의할 것이냐는 질문을 애치슨에게 비밀리에 타진하였다. 베빈은 미국이 대만 등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동맹을 한다면 “매우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덧붙였다.<sup>9)</sup>

영국의 평화적 해결 요구에 대하여 미국은 단호한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미국은 중국문제와 한국문제는 별개의 것이고 중국문제에 대한 양보는 세계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며 협상을 반대하였다. 심지어는 영국의 중국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를 미국정책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해석하고 있었다. 공산주의자들이 중국본토를 점령하고 있는 이상 아시아에서의 평화는 이룩될 수 없다는 보수적인 시각이 반공주의 열풍에 휩싸인 당시 워싱턴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한국전쟁의 휴전을 위하여 공산주의자들과 협상을 한다면 여론은 1930년대의 나치스에 대한 유화정책을 상기하며 비난할 것이라는 우려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서방세계가 중국문제에 대하여 양보할 경우 공산측은 다른 양보를 받아 내기 위하여 다른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것이 미국의 견해였다.

베빈에게 보낸 회답에서 애치슨은 남한을 지원하도록 6월 25일과 27일에 유엔이 채택한 결의문을 소련은 준수해야 할 것이고, 소련은 한국을 미끼로 하여 다른 양보를 받아내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 대만문제와 중국의 유엔가입 문제는 그 자체의 타당성 검토 후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지 다른 문제와 연관시켜 “위협과 협박”에 의하여 처리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애치슨의 생각이었다. 미국의 정책은 대만을 수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립화(neutralize)시키는 것이지만, 적성국이 대만을 소유하려 한다면 미국은 그냥 바라보고 있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애치슨은 미국의 정책이 후퇴한다는 징조가 보인다면 이는 침략에 대항하는 전반적인 노력을 약화시키는 “비참한 결과(disastrous consequences)”

8) M.L. Dockrill, 'The Foreign Office, Anglo-American relations and the Korean War, June 1950-June 1951', *International Affairs*, Summer 1986, Vol.62, No.3, p.461; K.M. Panikkar, *In Two China* (London:George Allen and Unwin, 1950), p.104; *Kelly to Foreign Office*, No.597, 11July 1950, FK1022/96G, F0371/84085, PRO.

9) *Foreign Office to Washington*, No.3092, 1950년 7월 7일, PREM8/1405, PRO.



만을 초래할 뿐더러, 한국전과 유사한 분쟁을 다른 곳에서 일으키려는 소련의 모험심만을 고무시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양보는 공산주의자들의 “식욕”을 돈을 뿐이라고 하면서, 영국의 유화정책과 더불어 베빈이 에치슨에게 답변을 요구한 내용들로 인하여 영·미관계는 “진실로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는 경고를 덧붙였다.<sup>10)</sup>

결국 영국은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베빈은 에치슨과의 “뜨거운 논쟁”을 원치 않았다.<sup>11)</sup> 1950년 7월 14일 에치슨에게 보낸 전문에서 베빈은 서방세계가 “미리 계산된 침략”을 받았다는 견해에 동조하면서 침략자들과 협상을 하지 않는 원칙에 찬성한다고 함으로써 종전의 입장을 바꾸었다. 대만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견해를 달리 하고 있었지만, 베빈은 중국의 유엔가입 문제는 한국문제와 연관시켜 소련과 협상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베빈은 기본적으로 아시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아시아를 영국과 미국 등 서방세계와 분리시키려 획책하는 소련의 음모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었으며, 중국이 소련과 접근하는 것을 봉쇄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sup>12)</sup> 영국정부는 협상에 의한 평화회복을 원하고 있었지만,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밀려 형식적으로나마 미국정책에 동조하게 되었다.

이 결과 영국정부의 한국전쟁의 평화적 해결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영국의 협상에 의한 한반도의 평화해결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였더라도 과연 평화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지만, 전쟁이 3년이나 계속되고 극한상황이 초래되었다는 점을 보면 전쟁 발발 초기에 이러한 시도가 필요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특히 중국과 소련이 영국과 인도의 평화중재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미국의 반대로 영국과 인도의 평화중재가 실패하였다는 점을 인식한 소련은 타국가에 대한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주장하며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거절하였다.<sup>13)</sup>

## 2. 중국의 참전과 영국의 「완충지대안」

전쟁발발후 북한군 공세에 의하여 부산지역을 둘러싼 낙동강 유역(Pusan Perimeter)까지 밀렸던 유엔군의 반격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자 서방국가들은 유엔군이 38선을 넘어서 압록강까지

10) *Oliver Franks (주미영국대사) to Foreign Office, No.425, 11 July 1950, FK1022/111G, FO371/84086, PRO; Acheson to Douglas (주영미국대사), Nos. 83 & 132, 7 & 10 July 1950, FRUS 1950, 7:327-8, 347-51.*

11) *Bevin memorandum, 12 July 1950, FK1022/96G, FO371/84085, PRO.*

12) *Foreign Office to Washington, No.3186, 14 July 1950, FK1022/111G, FO371/84086, PRO.*

13) *Moscow to Foreign Office, 7 July 1950, FK1022/138G, FO371/84087, PRO.*

만을 초래할 뿐더러, 한국전과 유사한 분쟁을 다른 곳에서 일으키려는 소련의 모험심만을 고무시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양보는 공산주의자들의 “식욕”을 돈을 뿐이라고 하면서, 영국의 유화정책과 더불어 베빈이 에치슨에게 답변을 요구한 내용들로 인하여 영·미관계는 “진실로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는 경고를 덧붙였다.<sup>10)</sup>

결국 영국은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베빈은 에치슨과의 “뜨거운 논쟁”을 원치 않았다.<sup>11)</sup> 1950년 7월 14일 에치슨에게 보낸 전문에서 베빈은 서방세계가 “미리 계산된 침략”을 받았다는 견해에 동조하면서 침략자들과 협상을 하지 않는 원칙에 찬성한다고 함으로써 종전의 입장을 바꾸었다. 대만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견해를 달리 하고 있었지만, 베빈은 중국의 유엔가입 문제는 한국문제와 연관시켜 소련과 협상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베빈은 기본적으로 아시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아시아를 영국과 미국 등 서방세계와 분리시키려 획책하는 소련의 음모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었으며, 중국이 소련과 접근하는 것을 봉쇄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sup>12)</sup> 영국정부는 협상에 의한 평화회복을 원하고 있었지만,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밀려 형식적으로나마 미국정책에 동조하게 되었다.

이 결과 영국정부의 한국전쟁의 평화적 해결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영국의 협상에 의한 한반도의 평화해결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였더라도 과연 평화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지만, 전쟁이 3년이나 계속되고 극한상황이 초래되었다는 점을 보면 전쟁 발발 초기에 이러한 시도가 필요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특히 중국과 소련이 영국과 인도의 평화중재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미국의 반대로 영국과 인도의 평화중재가 실패하였다는 점을 인식한 소련은 타국가에 대한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주장하며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거절하였다.<sup>13)</sup>

## 2. 중국의 참전과 영국의 「완충지대안」

전쟁발발후 북한군 공세에 의하여 부산지역을 둘러싼 낙동강 유역(Pusan Perimeter)까지 밀렸던 유엔군의 반격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자 서방국가들은 유엔군이 38선을 넘어서 압록강까지

10) *Oliver Franks (주미영국대사) to Foreign Office, No.425, 11 July 1950, FK1022/111G, FO371/84086, PRO; Acheson to Douglas (주영미국대사), Nos. 83 & 132, 7 & 10 July 1950, FRUS 1950, 7:327-8, 347-51.*

11) *Bevin memorandum, 12 July 1950, FK1022/96G, FO371/84085, PRO.*

12) *Foreign Office to Washington, No.3186, 14 July 1950, FK1022/111G, FO371/84086, PRO.*

13) *Moscow to Foreign Office, 7 July 1950, FK1022/138G, FO371/84087, PRO.*

진격을 하여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해야 하느냐의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되었다. 특히 유엔군의 북진에 대하여 중국군이 참전할 것이라는 중국정부의 경고와 이에 대한 정보가 있자, 서방국가들은 38선 이북 진격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북한군이 한만국경까지 퇴각하게 된다면 중국은 국경선 남쪽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북한의 투쟁을 도울 것이며 “침략군”이 국경까지 접근하도록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명확히 하였다. 주은래는 유엔군이 38선을 넘을 경우 소련과의 “상호원조협정(Mutual Aid Pact)”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 힘들 것이고 250,000명의 중국군을 보내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경고성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주은래는 유엔이 중국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도 부과할 수 없는 것처럼 중국도 유엔에 대하여 져야 할 아무런 의무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은 유엔의 “침략행위”를 그대로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하였다. 중국 인민군 참모총장인 니중첸도 미군이 한만국경에 접근할 때까지 중국인들은 팔장만 끼고 앉아 있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중국정부는 외국군대가 한만국경으로 진격하는데 기인하는 만주지역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표명하였다.<sup>14)</sup>

중국의 한국전 참전의지 표명에 접한 영국내각은 미국정부에 신중한 결정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비록 한국에서의 영국의 기본정책, 즉 남한에 대한 지원정책은 고수되어야 하지만, 중국이 우려하는 문제들을 해소시켜 주기 위하여 중국대표를 유엔에 참석시켜 대만문제를 비롯한 제반문제에 대한 대화를 가지도록 미국정부에 제안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sup>15)</sup> 전쟁을 한반도에 제한시키고 빠른 시일내에 종식시켜야 한다는 원칙하에, 영국군부 또한 성급한 북진결정에 반대하였다. 영국의 참모위원회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계속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문제를 토의하였다. 외무성 대표로 참석한 스콧(Scott)은 중국의 경고는 허세일 수도 있지만 무시하면 안된다고 경고하였다. 영국의 한국에서의 목표는 전쟁을 국지화시키고 빠른시일 내에 종결시키는 것이며, 이미 북한군대는 유엔군의 반격으로 많은 타격을 입었으므로 한국문제는 군사적인 방법 보다는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중국인들은 미국이 그들을 패망시킬 능력이 있다는 점을 알고는 있지만, 이러한 점이 그들을 한국전에 참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억제효과는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모총장들도 매우 조심스러운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해군참모총장인 프레이저(Fraser)경은 만약 유엔군이 38선을 넘으면 “침략자”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동조하여 육군참모총장인 슬림(Slim)은 유엔군의 반격으로 약화된 북한군대가 재무장하는 데에는 적어도 “3 내지 4 개월”이 소요될 것이므로 즉각적인 북진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38선에서 진격을 정지한후 정치적인 해결방

14) *Wilkinson to Acheson*, Nos. 508 & 556, 5 & 12 September 1950, FRUS 1950, 7: 698, 724-5.

15) *Cabinet meeting*, C.M. (50)62, 28 September 1950, CAB128/18, PRO.

안에 의한 통일 제의를 한 후 공산측이 거절을 한다면 이때 북진하기를 미국에 제안하였다. 유엔군이 38선을 넘더라도 북한을 영원히 점령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그동안 한국군이 북으로 진격하는 것과 북쪽에 대한 공중폭격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sup>16)</sup>

그러나 당시 전황이 유엔군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었으므로 미국의 확고하고 즉각적인 북진 결정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영국의 제안이 강력하지는 못하였다. 더욱이 미국정부는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였고 별관심을 두지 않았다. 중국이 진실로 참전할 의사가 있다면 이렇게 사전에 그 의사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아더는 주장하였다. 미국관리들은 중국의 경고는 “허세(bluff)”라고 간주하였으며 비록 중국군이 참전하더라도 강력한 화력을 가진 유엔군의 적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 하며 북진결정을 하였다.<sup>17)</sup> 그러나 유엔군은 즉시 북진을 하지 않고 10월7일에야 38선을 넘었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들의 신중한 태도 때문에 유엔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북진을 하기 위한 전략 때문이었을 것이다.

38선을 넘은 유엔군이 압록강을 향하여 빠른 속도로 진격을 하자 마침내 12만명의 중국군이 10월 12일 경부터 비밀리에 압록강을 넘기 시작하였으며 10월 26일 유엔군과 첫 교전을 가졌다. 중국정부는 11월 4일 성명을 발표하여 한국전 참전을 공식화하였고, 11월 6일 백아더는 유엔에 보고서를 보내 유엔군은 대규모 군사지원을 받는 새로운 적을 맞게 되었다고 밝혔다.<sup>18)</sup>

중국군이 한국전에 참전한 이후 영국의 정책은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의 분쟁을 제한시켜 타지역으로의 확산을 막는가 하는 것이었다. 우선 필요한 것은 서방측이 중국과의 협상을 불가능하도록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11월 6일 개최된 영국 내각회의는 만주에 전기를 공급하는 압록강변의 발전소들이 유엔군의 피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중국정부에 안심시켜야 한다는 결의를 하였다.<sup>19)</sup>

다음날인 11월 7일 개최된 참모위원회 회의에서 슬립은 중국이 유엔군과의 직접적인 격돌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완충지대를 설치하려고 참전을 하

16) *Chiefs of Staff Committee meeting*, C.O.S. (50)160 & 161 & 162, 3 & 4 & 5 October 1950, DEFE 4/36, PRO.

17) Dean Acheson, *Present at the Creation: My Years in the State Department* (New York: W.W.Norton, 1969), p.452; Harry S. Truman, *Memoirs: Years of Trial and Hope* (Garden City: Doubleday & Co, 1955), p.362; Rosemary Foot, *The Wrong War: American Policy and the Dimensions of the Korean Conflict, 1950-53*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p.79.

18) Gye-Dong Kim, *Foreign Intervention in Korea*, pp.243-249.

19) *Cabinet meeting*, C.M. (50)71, 6 November 1950, CAB 128/18, PRO.

였으므로, 유엔군은 적당한 방어선을 구축하여 전선을 안정시킨 후 협상하도록 제안하였다. 중국이 유엔군을 한반도에서 추방하려 시도한다면 유엔군은 중국의 진격을 막아내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하였다.<sup>20)</sup> 11월 7일 제의된 방어선 구축안은 11월 13일의 참모위원회 회의에서 구체화되었다. 공군참모총장인 슬레서(John Slessor)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유엔군은 “현재의 전선”에서 진격을 중단하고 방어선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의 국경은 400 마일이나 되는데 반하여 당시의 전선은 150 마일이기 때문에 방어하기에 수월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영국군부는 유엔군이 대규모 전쟁의 위험없이 북한전역을 정복하고 유엔 점령하에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고, 한반도는 서방세계에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군사작전은 전쟁을 국지전으로 제한시키고 더 이상의 증원군을 보내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유엔군은 한반도의 가장 잘룩한 허리부분인 북위 40도선 정도로 철수하고, 이 선에서 국경까지의 지역은 완충지대(buffer area)로 남겨두어야 하며, 이 지역에 공산군이 재침략을 위하여 집결한다면 공중폭격으로 이를 분쇄해야 한다는 결의도 하였다. 만약 중국이 대규모전쟁을 피하기를 원한다면, 중국인들은 이러한 완충지대 설치안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영국인들은 믿었다.<sup>21)</sup>

영국의 베빈 외상은 내각회의에서 군부의 의견에 대하여 전적으로 찬성의 빛을 보이며 미국은 중국이 더욱 깊이 개입하도록 전쟁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지양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영국내각은 완충지대안은 미국과 중국 양측이 체면손상없이 당시의 강경정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믿었다. 미국이 압록강 건너 만주지역에도 완충지대를 설치할 것을 요구할지도 모르지만 영국은 이에 대하여 반대를 한다면서, 내각은 미국이 영국의 완충지대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1,200만 파운드를 종전 후 한국복구에 사용하도록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도록 결정하였다.<sup>22)</sup> 영국인들은 이러한 완충지대안은 별로 전략적 가치가 없는 지역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군사개입을 조기 종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또한 중국인들에게 유엔이 만주지역에 침략행위를 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였다.

영국인들이 한국전쟁을 조기종결시키는 방안으로 완충지대안을 구상하고 있는 동안 미국정부는 이와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정책을 입안하고 있었다. 영국의 베빈 외상이 주미영국대사인 프랭크스(Oliver Franks)에게 전문을 보내 완충지대안에 대한 미국의 의견을 타진하도록 지시를 한 날인 11월13일에 미국무장관 애치슨은 주영미국대사에게 전문을 보내 압록강 이남에서 적대행위를 하고 만주지

20) *Chiefs of Staff Committee meeting*, C.O.S. (50)176, 7 November 1950, DEFE 4/37, PRO.

21) *Chiefs of Staff Committee meeting*, C.O.S. (50)178, 13 November 1950, DEFE 4/37, PRO.

22) *Cabinet Meeting*, C.M. (50) 73, 13 November 1950, CAB 128/18, PRO.

역으로 퇴각하는 적비행기를 쫓아 유엔공군기가 2~3분 동안 만주지역으로 추격할 수 있는 월경추격권(越境攔擊權: Hot Pursuit)을 유엔사령부에 부여하여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통고를 하도록 하였다. 월경추격권은 군사적으로 필요하고 자위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므로 미정부는 영국의 동의를 구한다기 보다는 이 결정을 단순히 통고하려는 형식을 취하였다.<sup>23)</sup>

아이로니컬하게도 영국이 완충지대를 설치하려는 제안은 전쟁을 한반도에 제한시키며 조기종결시키려 했던 것에 반해, 미국의 월경추격권은 유엔군의 공중작전을 만주지역까지 확대시키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영국정부는 미국의 월경추격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 월경추격권을 유엔군에게 부여한다면, 다음 단계는 만주지역에 폭격을 할 가능성이 생기고 이에 따라 중국지역으로 전쟁이 확산될 위험이 존재하는 것은 명약관화의 사실이었다. 따라서 월경추격권은 가장 위험한 제안으로 간주되었고, 영국인들이 가장 피하려 했던 것 중의 하나였다.<sup>24)</sup>

영국과 미국의 상치되는 제안은 서로 조화될 수 없는 것이었다. 프랑스를 비롯한 연합국들이 영국의 완충지대안을 지지하였고,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제안을 상정시켜 토의하려 하자, 미국인들은 강력한 반대의 뜻을 보였다. 애치슨은 이 제안이 서방측의 유약한 입장을 공산측에 보여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였고, 백아더는 북한지역의 어느 일부분이라도 중국에게 양보하는 것은 1938년에 영국이 나치독일에게 유화정책을 취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에 있어서 자유세계에 "최악의 패배감"을 조성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하였다.<sup>25)</sup>

미국이 영국의 제안을 거듭 묵살하자, 영국은 중국정부와 직접 접촉을 하여 유엔군 작전에 관하여 중국이 품고 있는 위기감을 해소시킬 방안을 강구하였다. 베빈은 중국정부에 비망록을 보내 공산측은 유엔군 전략의 성격과 목적에 대하여 오해를 품고 있다면서, 유엔군의 유일한 임무는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는 동시에, 국경지역에서 한국과 중국 양측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다.<sup>26)</sup>

영국의 중국과의 협상정책은 폴란드의 유엔대표인 수치(Katz-Suchly)의 정

23) *Bevin to Franks*, 13 November 1950, FRUS 1950, 7:1138-1140; *Acheson to Douglas*, No.2487, 13 November 1950, DS Records, 795.00/11-1350, Box 4269, RG59, National Archives.

24) *Chiefs of Staff Committee Meeting*, C.O.S. (50)180, 15 November 1950, DEFE 4/37f: *Foreign Office to Franks*, No.1099, 16 November 1950, FK1022/108G, F0371/84114, PRO.

25) *MacArthur to Joint Chiefs of Staff*, C.68572, 9 November 1950, FRUS 1950, 7:1107-1110; Rosemary Foot, *The Wrong War*, p.92.

26) *Bevin to Peking*, Nos.1891 & 5180, 18 & 22 November 1950, FK1023/139, F0371/84116, PRO.

보에 의하여 더욱 고무되었다. 압록강 이남 40마일 깊이의 완충지대를 북한이 통제할 수 있게 하고, 미제 7함대가 대만과 중국 본토사이의 해안에서 철수하고, 장개석에 대한 군사물자 지원을 종료시킨다면 중국도 한국으로부터 철수할 것이라는 견해가 수차례 의하여 제기되었다. 더욱이 중국정부는 유엔을 대화창구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유엔이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자”인 미국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고 비난을 하였지만, 중국정부는 대만문제 토의에 초청한 유엔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중국정부는 자국의 참여 없는 유엔은 “국제연합”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이외에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하였다.<sup>27)</sup>

중국이 유엔을 협상창구로 활용할 뜻을 보이자, 낙관적인 기대에 부풀은 영국인들은 유엔군이 더 이상 진격을 하지 말아야 하고, 유엔은 한국전을 되도록 빨리 종결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영국합참은 이제 영국이 미국에게 영국의 의사를 “가장 강력하고 명료한(the most forcible and unequivocal)”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맥아더는 양측의 협상이 성공할 기회를 가지도록 현재의 위치에서 적어도 일주일 동안 공격을 멈추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 협상결과에 따라 재진격의 명령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영국 군부의 공통된 의견이었다.<sup>28)</sup>

유엔군의 한국에서의 전략에 대하여 중국정부가 오해를 하지 않도록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면서, 영국정부는 완충지대안을 미국정부에 다시 제의하였다. 이 안에 의하면 완충지대의 행정책임은 유엔한국위원회(UNCOK)가 맡고, 유엔한국위원회는 남북한을 망라한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유엔과 중국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안을 영국대표가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하였다.<sup>29)</sup>

그러나 완충지대안에 대한 미국정부의 반대는 변함이 없었다. 애치슨은 이러한 영국의 제안은 중국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하는 기회를 주게 될 것이고, 그 제안은 군사적인 면에서 심각한 문제와 위협만을 야기시킬 것이라 주장하였다. 베빈이 완충지대안은 전쟁을 빠른 시일 안에 종결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되풀이하여 주장하자, 애치슨은 이 안은 유엔군이 그 동안 힘들여 점령한 지역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유엔군에게 “재앙”만을 안겨 줄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그는 오로지 양보를 기초로한 협상이 아니라 힘의 우위를 점한 후 협상을 시도하기를 주장하였다.<sup>30)</sup> 결국 미국이 완충지대안을 받아 들이지 않은

27) *Jebb to Foreign Office*, No. 1780, 1950년 11월 17일, FK1023/131, FO371/84116, PRO; *Keesing's Contemporary Archives*, 2-9 December 1950, p. 11117.

28) *Cabinet Meeting*, C.M.(50)76, 1950년 11월 20일, CAB128/18. PRO.

29) *Bevin to Franks*, No. 5171, 21 November 1950, FK1023/132G, FO371/84116, PRO.

30) *Acheson to Douglas*, No. 2673, 1950년 11월 21일, DS Records, 795.00/11-2150, Box4270, RG59, National Archives; *Bevin to Franks*, 1950

이유는 공산측에 서방의 힘을 보여 주기를 원하였기 때문이었다. 반면 영국인들은 완충지대안은 중국인들이 대규모 참전을 하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

영국의 완충지대안을 기초로 한 협상요구를 묵살한 후, 미국정부는 백아더의 총공세 계획을 승인하였고, 크리스마스 이전에 전쟁을 종결시키려 하던 백아더는 11월 24일 최후의 승리를 위한 총공세를 취하였다. 11월 7일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던 25만명의 중국군은 유엔군의 총공세가 있자 대규모 군사활동을 전개하여 유엔군의 진격을 무력화시켰고, 유엔군은 후퇴와 패배의 수렁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되었다.

### 3. 영미정상회담;중국에 대한 강경론과 유화론의 대립

1950년 11월 24일의 유엔군 총공세가 실패로 돌아가고 중국군의 남하진격이 계속되자, 트루먼 대통령은 11월30일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전쟁에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시사를 하였다. 트루먼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전에서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기자들이 핵무기 사용도 고려중이냐는 질문을 하자, 미국은 핵무기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 (active consideration)”를 항상 해 왔으며, “이러한 무기의 사용에 대한 권한은 전투사령관이 가지고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핵무기 사용 권한을 백아더에게 위임한 듯한 인상을 줬다. 이 성명이 미치는 외교적인 영향 때문에 백악관은 즉시 정정 성명을 발표하여 “법적으로 대통령만이 핵무기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은 백아더에게 이의 사용을 명령하지 않았다고 해명을 하였지만, 트루먼의 기자회견에 대한 영국과 연합국들의 반발은 거셌다.<sup>31)</sup>

특히 당시까지 미국의 정책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던 영국인들의 불만이 폭발하였다. 트루먼의 성명은 영미관계에 있어서 최악의 상태를 초래하였다. 에틀리 (Clement R. Attlee) 수상이 전폭적인 지지속에 트루먼을 만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하도록 결정할 만큼 영국인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영국 정부는 핵무기를 사용하는데 대하여 반대함은 물론,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전을 피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의 일치를 봤다. 영국인들은 대만 국민당 정부의 생존을 위하여 미국이 지원을 하는 점과 중국에 대하여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는 백아더의 전략에 불만을 풀어왔고, 11월24일 유엔군 총공세의 실패는 백아더 작전의 실수라고 비판을 해 왔다. 또한 영국정부는 세계전략에 있어서 유럽이 아시아의 우위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국에서 영국군의 증강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확인

년 11월 23일, FRUS 1950, 7: 1217-1218; Acheson to Bevin, 1950년 11월 25일, FK1023/205G, FO371.84120, PRO.

31)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s: Harry S. Truman 1950*, pp.724-8.



이유는 공산측에 서방의 힘을 보여 주기를 원하였기 때문이었다. 반면 영국인들은 완충지대안은 중국인들이 대규모 참전을 하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

영국의 완충지대안을 기초로 한 협상요구를 묵살한 후, 미국정부는 백아더의 총공세 계획을 승인하였고, 크리스마스 이전에 전쟁을 종결시키려 하던 백아더는 11월 24일 최후의 승리를 위한 총공세를 취하였다. 11월 7일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던 25만명의 중국군은 유엔군의 총공세가 있자 대규모 군사활동을 전개하여 유엔군의 진격을 무력화시켰고, 유엔군은 후퇴와 패배의 수렁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되었다.

### 3. 영미정상회담;중국에 대한 강경론과 유화론의 대립

1950년 11월 24일의 유엔군 총공세가 실패로 돌아가고 중국군의 남하진격이 계속되자, 트루먼 대통령은 11월30일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전쟁에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시사를 하였다. 트루먼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전에서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기자들이 핵무기 사용도 고려중이냐는 질문을 하자, 미국은 핵무기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 (active consideration)”를 항상 해 왔으며, “이러한 무기의 사용에 대한 권한은 전투사령관이 가지고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핵무기 사용 권한을 백아더에게 위임한 듯한 인상을 줬다. 이 성명이 미치는 외교적인 영향 때문에 백악관은 즉시 정정 성명을 발표하여 “법적으로 대통령만이 핵무기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은 백아더에게 이의 사용을 명령하지 않았다고 해명을 하였지만, 트루먼의 기자회견에 대한 영국과 연합국들의 반발은 거셌다.<sup>31)</sup>

특히 당시까지 미국의 정책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던 영국인들의 불만이 폭발하였다. 트루먼의 성명은 영미관계에 있어서 최악의 상태를 초래하였다. 에틀리 (Clement R. Attlee) 수상이 전폭적인 지지속에 트루먼을 만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하도록 결정할 만큼 영국인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영국 정부는 핵무기를 사용하는데 대하여 반대함은 물론,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전을 피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의 일치를 봤다. 영국인들은 대만 국민당 정부의 생존을 위하여 미국이 지원을 하는 점과 중국에 대하여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는 백아더의 전략에 불만을 풀어왔고, 11월24일 유엔군 총공세의 실패는 백아더 작전의 실수라고 비판을 해 왔다. 또한 영국정부는 세계전략에 있어서 유럽이 아시아의 우위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국에서 영국군의 증강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확인

년 11월 23일, FRUS 1950, 7: 1217-1218; Acheson to Bevin, 1950년 11월 25일, FK1023/205G, FO371.84120, PRO.

31)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s: Harry S. Truman 1950*, pp. 724-8.

하였다.<sup>32)</sup>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인식하에 영국인들은 미국정부의 정상회담에 대한 회답도 있기 전에 영국수상이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였다.

애틀리의 군사참모들은 한국전 작전통제에 대하여 영국이 보다 더 많이 개입하기를 원하였다. 참모위원회는 세계전략에 있어서 유럽 우선주의를 탈피하면 안되고 한국에 더 이상 영국군대를 증강시키지 말고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이나 중국에서의 핵무기 사용은 전쟁 수행과정에서 결정적이지도 못할 뿐더러 소련의 참전을 유발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였다. 핵무기는 한국에서의 참패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영국군부의 의견이었다. 그들은 전략문제에 있어서 동맹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전 참전국 대표로 구성된 “한국군사위원회(Korea Military Committee)”를 조직하거나 미국이 작전수립시 영국과 협의할 것을 내용으로 한 비밀협약의 체결을 제의하도록 결정하였다.<sup>33)</sup> 맥아더가 세계대전을 유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인해 영국 군부는 맥아더가 독점하고 있던 한국전 작전통제권을 견제하기를 원하였다. 그들은 애틀리가 미국을 방문함으로써 영국은 미국의 잘못된 정책에 항의하고, 세계전략에 있어서 영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영국 외무성은 중국의 군사행위는 “기본적으로 방어적”이기 때문에 유엔은 전쟁을 한반도에 제한시키면서 유엔의 개입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종료시킨다는 본래의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맥아더는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이 방어할 수 있는 선으로 철수해야 하고, 또한 그는 작전수행을 위하여 보다 더 높은 차원의 협력된 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한국전에 참전한 중국의 목표가 기본적으로 방어적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다. 미국인들은 중국군의 총공세는 맥아더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영국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하면서, 중국의 공격은 “우연히 맥아더의 총공세와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sup>34)</sup>

출발에 앞서 애틀리는 고등판무관들을 통하여 영연방 국가들에게 그의 방미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극동 및 나토문제 등에 대한 애틀리의 설명을 듣고

32) *Cabinet meeting*, C.M.(50)80, 30 November 1950, CAB128/18, PRO; *Attlee Papers*, MS Attlee dep.114 fols.154-157, 30 November 1950, in Bodleian Library, University of Oxford; *COS Committee meeting*, C.O.S.(50)191, 1 December 1950, DEFE4/38, PRO.

33) *Chiefs of Staff Committee meeting*, C.O.S.(50)191, 1 December 1950, DEFE4/38, PRO.

34) *Foreign Office to Washington*, No.5378, 1 December 1950, FK1023/190, F0371/84119; *Franks to Foreign Office*, No.3258, 2 December 1950, FK1023/211, F0371/84120, PRO.

난 오스트레일리아의 런던주재 공사인 해리슨(Eric Harrison)은 “한국전쟁은 제한되어야 하고 트루먼은 백아더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캐나다 고등판무관인 윌그리스(Dana Wilgress)는 백아더가 “비 합참의 명령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아더에 대한 해리슨과 윌그리스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인도의 메논(Krishna Menon) 고등판무관은 “중국 개입의 방어적 성격 때문에 정치적 해결로 유도할 수 있는” 정전을 원한다고 강조하였다.<sup>35)</sup>

워싱턴으로의 출발직전 프랑스의 프레벤 (Rene Pleven) 수상과 슈만 (Robert Schuman) 외상이 애트리가 미국인들을 제지하도록 요구하기 위하여 12월 2일 런던을 방문하였다. 혹시 미국인들이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한 후 중국에 폭격을 가할지 모른다고 프랑스 지도부가 우려하자, 베빈은 영국이 이에 대하여 반대하였다고 하면서 그 대신 완충지대안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연기하였다고 안심시켰다. 양국 지도자들은 미국인들이 아시아인들의 정서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에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침략에 대항한 세계적 노력에 아시아 국가들도 동등히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같은 의견을 보였다. 프레벤은 아시아의 민족주의적 성향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베빈은 미국의 중국과의 일전을 불사해야 한다는 의견은 많이 줄어들었으며, “아시아 제일주의자”들은 그들 정책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고 프랑스인들을 안심시켰다.<sup>36)</sup> 유럽인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하여 양보를 하겠다는 태도를 가져야만 한국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다.

영미정상 회담은 12월 4일부터 8일 까지 6차에 걸쳐 개최되었다. 백악관에서 열린 12월 4일의 1차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세계전략에 대하여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트루먼이 유럽 제일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의 의무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자, 애트리는 “서방에서 공격에 노출될만큼 우리는 동방에 너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결국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중요지역은 서방이 될 것이다”라고 맞받았다. 애트리는 중국에 “티토주의(Titoism)”이 고무될 수 있도록 미국이 중국에 양보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애치슨은 만약 유엔이 극동지역을 포기한다면 많은 국가들이 소련과의 화해를 즉시 시도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미국이 “가능한 많은 끈경을 중국에 제공하고, 대만을 지켜 내고, 가능한한 강력한 힘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미국이 중국에 양보를 한다면 중국인들은 더 호전적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덧붙였다. 이러한 애치슨의 논리를 애트리

35)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1953, Vol.1 : Strategy and Diplomacy* (Canberra: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1981), p. 146.

36) *Record of Attlee, Bevin meeting with Pleven, Shuman, Massigli, 2 December 1950, FE/50/47, FO800/462, PRO; Note by Secretary of Briefs for Prime Minister's Visit, 4 December 1950, CAB 130/65, PRO.*

가 “우세심리(bandwagon psychology)”로 비평하자, 애치슨은 조소하면서 유엔은 양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38선으로의 후퇴에 대하여 중국과 협상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영국인들은 중국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지만 한 번 제의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였다.<sup>37)</sup>

같은 날 개최된 양국의 외교관들 모임에서 애치슨 등 미국의 외교관들은 만약 미국이 극동지역에서 패배한다면, 미국의 여론은 이러한 붕괴를 초래한 서 유럽을 돕지말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애치슨은 아래와 같은 미국의 정책방향을 설명하였다.

1. 가능한한 필사적으로 전투를 한다.
2. 만약 어느측이 정전을 제의한다면, 우리는 이를 받아들여, 이를 위하여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는다.
3. 만약 정전이 받아들여질 않거나 받아들여졌지만 중국이 전투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 우리는 전투를 다시 시작하고 최선을 다하여 전투수행을 한다 - 우리는 격퇴당하지 않을 것이다.
4. 만약 우리가 격퇴당한다면, 우리는 경제봉쇄 또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중국인들을 괴롭히도록 노력할 것이다.<sup>38)</sup>

미국인들의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애트리리는 12월 5일 미대통령 전용 요트인 윌리엄스버그(Williamsburg)에서 개최된 제2차 정상회담에서 미국인들이 보다 유연해 지기를 호소하였다. 동맹국들은 중국의 민족주의를 사용하여 중국을 소련으로부터 자주적이 되도록 하고, 심지어는 소련에 대한 “중요한 대항세력”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우리가 중국이 소련의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두나라를 결속시키는 것이고, 이는 러시아 제국주의 늪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영국인들이 중국의 유엔가입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자, 애치슨은 중국인들이 한국문제에 대하여 비타협적인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중국의 유엔가입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이후 영국인들과 미국인들은 대만문제에 대하여 격렬하게 충돌하였다. 마셜 미국방부장관은 대만이 중국에 귀속된다면 미국의 힘은 크게 약화되고, 서태평양의 방어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애트리리는 미국의 논리가 “대

37) *US Minutes of the first meeting*, 4 December 1950, FRUS 1950, 7:1361-74; *Meeting of Truman and Attlee, Annex 1*, 4 December 1950, PREM 8/1200; *B.J.S.M. Washington to Defence Ministry*, FMS 1, 5 December 1950, FE/50/49, FO800/517, PRO.

38) *Franks to Foreign Office*, No.3282, 4 December 1950, FO371/84105, PRO; *Jessup memorandum*, 4 December 1950, FRUS 1950, 7:1374-77.

가 “우세심리(bandwagon psychology)”로 비평하자, 애치슨은 조소하면서 유엔은 양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38선으로의 후퇴에 대하여 중국과 협상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영국인들은 중국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지만 한 번 제의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였다.<sup>37)</sup>

같은 날 개최된 양국의 외교관들 모임에서 애치슨 등 미국의 외교관들은 만약 미국이 극동지역에서 패배한다면, 미국의 여론은 이러한 붕괴를 초래한 서유럽을 돕지 말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애치슨은 아래와 같은 미국의 정책방향을 설명하였다.

1. 가능한한 필사적으로 전투를 한다.
2. 만약 어느측이 정전을 제의한다면, 우리는 이를 받아들여, 이를 위하여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는다.
3. 만약 정전이 받아들여질 않거나 받아들여졌지만 중국이 전투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 우리는 전투를 다시 시작하고 최선을 다하여 전투수행을 한다 — 우리는 격퇴당하지 않을 것이다.
4. 만약 우리가 격퇴당한다면, 우리는 경제봉쇄 또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중국인들을 괴롭히도록 노력할 것이다.<sup>38)</sup>

미국인들의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애트리리는 12월 5일 미대통령 전용 요트인 윌리엄스버그(Williamsburg)에서 개최된 제2차 정상회담에서 미국인들이 보다 유연해 지기를 호소하였다. 동맹국들은 중국의 민족주의를 사용하여 중국을 소련으로부터 자주적이 되도록 하고, 심지어는 소련에 대한 “중요한 대항세력”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우리가 중국이 소련의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두나라를 결속시키는 것이고, 이는 러시아 제국주의 놀음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영국인들이 중국의 유엔가입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자, 애치슨은 중국인들이 한국문제에 대하여 비타협적인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중국의 유엔가입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이후 영국인들과 미국인들은 대만문제에 대하여 격렬하게 충돌하였다. 마셜 미국방부장관은 대만이 중국에 귀속된다면 미국의 힘은 크게 약화되고, 서태평양의 방어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애트리리는 미국의 논리가 “대

37) *US Minutes of the first meeting*, 4 December 1950, FRUS 1950, 7:1361-74; *Meeting of Truman and Attlee*, Annex 1, 4 December 1950, PREM 8/1200; *B.J.S.M. Washington to Defence Ministry*, FMS 1, 5 December 1950, FE/50/49, FO800/517, PRO.

38) *Franks to Foreign Office*, No.3282, 4 December 1950, FO371/84105, PRO; *Jessup memorandum*, 4 December 1950, FRUS 1950, 7:1374-77.

만은 중국에 포함된다고 언급한 카이로 선언”에 배치된다고 반박하였다. 애치슨은 영국만이 심각한 문제로 생각할 뿐이지 미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대만이 실제로 중국인들에게 점령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카이로 선언에서 언급한 중국정부는 소련 비행기와 조종사로 무장된 정부가 아니라고 하면서 카이로 선언의 법적·실질적 타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애트리가 유엔의 신탁통치를 제의하자, 트루먼은 고려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sup>39)</sup>

12월 6일 개최된 3, 4차 정상회담은 주로 유럽방위 문제에 초점이 모아졌다. 애치슨은 나토의 방위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영국과 미국의 동반관계를 강조하면서 영국이 자체방어를 위하여 전력부구하고 있지 않다고 항의하였다. 애치슨의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애트리는 그의 군참모들이 자문한대로 백아더의 지위에 대한 “어렵고 미묘한 이슈”를 제기하였다. 백아더가 “쇼를 하고 있다”는 유럽인들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는 작전수립시 협의 부족 문제도 언급하였다. 미국 군부대표들은 백아더가 유엔이 위임한 사항들을 정확히 수행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마셜은 월경추격권을 언급하면서 영국인들이 협의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영국인들이 “전쟁을 지휘하기 위한 일종의 위원회”의 설립을 요구하자, 브래들리 (Omar Bradley) 합참의장은 한국전쟁의 작전은 총각을 다부기 때문에 위원회에 의하여 수행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만약 한국에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국가가 있으면, 그 국가가 한국으로부터 철수하는데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 않고 한국에 계속 머물렀다면 그 국가는 유엔사령부에 지위권 책무를 수용하여야 한다고 브래들리는 강조하였다. 트루먼의 태도도 강경하였다. 유엔이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에서의 연합사령부를 구성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미국은 유엔이 중지하라고 할 때까지 임무를 계속하겠다고 언명하였다. 애치슨은 모든 국가와 협의를 해야 한다면 미국은 나토 사령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마지막으로 트루먼은 어떠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미국은 한국에 끝까지 남아서 싸울 것이라고 선언하였다.<sup>40)</sup> 유럽방위문제는 미국인들이 한국에서의 미국정책에 대한 영국의 비판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도구였다.

영미간의 갈등은 12월 7일 개최된 두차례의 회담에서도 이어졌다. 트루먼과 애트리 참석 없이 개최된 오전회의에서 대만문제와 중국의 유엔가입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애치슨이 중국에 대한 양보는 중대한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고 하자,

39) *US Minutes of the Second Meeting*, 5 December 1950, FRUS 1950, 7:1392-1408; *Franks to Foreign Office*, No.3295, 5 December 1950, FO371/84015; Annex 2, 5 December 1950, PREM 8/1200, PRO.

40) *Battle memorandum of a Meeting held on 5 December 1950*, 7 December 1950, FRUS 1950, 7:1430-32; Annex 3, 4, 11, 6, 7 December 1950, PREM 8/1200, PRO.

프랭크스 (Olive Franks) 주미영국대사는 영국이 지난 두세기 동안 한 것처럼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결속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오후 회의에서 애트리는 중국이 다른 회원국들과 “극도의 긴장”상태에 있다고 해서 유엔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이 유엔에 가입되면 대화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다. 트루먼은 그 문제는 미국에서 “정치적 다이내마이트”라고 대답하였다. 트루먼이 유엔에서 서방 결의안에 대하여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우려하자, 애트리는 한표의 거부권이나 두표의 거부권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반문하였다. 마셜은 대만이 전략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공산진영에 귀속된다면 중요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세계전이 발발한다면 대만의 손실은 미국의 군사적 위치를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트루먼은 불필요하게 중국에 굴복할 의사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중국인들이 그들의 친구는 “시베리아에 있지 않고 런던이나 워싱턴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기를 원하였다. 애트리는 중국에 군사행위를 계속하는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대답하였다.<sup>41)</sup>

이어서 정상회담 개최의 계기가 되었고 가장 민감한 이슈인 핵무기 사용문제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였다. 가장 민감한 문제였지만 앞서 다섯차례의 정상회담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트루먼의 11월 30일 성명 이후 일주일 지나서인지 당시의 흥분상태는 어느 정도 가라앉아 있었다. 핵무기 사용에 관한한 트루먼은 영국과의 사전 협의없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영국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애트리가 문서로 합의문을 작성할 수 있냐고 문의하자, 트루먼은 “사나이의 말을 믿지 못한다면, 글로 쓴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이 있느냐”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애트리는 “감사하다”는 말 이외에 다른 대답을 생각해 낼 수 없었다.<sup>42)</sup> 트루먼은 핵문제에 대하여 공식적인 합의문을 작성하는 것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고, 의회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12월 8일의 마지막 회의에서는 공동선언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다. 공동선언문 내용은 외교문제 뿐이 아니라 국내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었다. 영국측은 초안을 마련하면서 중국을 유엔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방향으로 해석되는 내용을 포함시키자, 미국인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강간(raped)”당하였다고까지 하면서 울분을 토했다. 애치슨은 “영국은 중앙인민정부를 승인하고 이 정부의 대표가 유엔의 중국의석을 차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중국공산대표가 유엔의석에 앉는 것을 반대하며 앞으로도 반대할 것이다”는 문구를 삽입하

41) *Jessup memorandum*, 7 December 1950, FRUS 1950, 7:1435-42; Annexes 5, 10, 11, 14, 7 December 1950, PREM 8/1200; *Washington to Foreign Office*, No.3330, 7 December 1950, PREM 8/1171, PRO; *US Minutes of the Fifth Meeting*, 7 December 1950, FRUS 1950, 7:1449-61.

42) *Jessup memorandum*, 7 December 1950, FRUS 1950, 7:1462-65; Annexes 5, 7 December 1950, PREM 8/1200, PRO.

기를 희망하였다.<sup>43)</sup> 영국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양측은 의견이 불일치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여섯차례의 정상회담 동안 격렬한 논쟁을 벌인 양측은 전쟁을 확대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점 이외에는 어느 측도 원래 목표하던 바를 완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정상회담은 양국의 견해차이를 해소하지도, 악화시키지도 않았다. 양측은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회의장을 떠났다. 미국인들은 대서양 뿐만 아니라 태평양에서 영미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들은 미국이 서방세계를 지도하고 있으며 어느 나라도 도전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싶었다. 국가위신상 중국에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영국은 비록 열세의 위치에 있었지만 할말을 다하였다고 만족해 했다. 영국인들은 비록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별로 없지만, 미국의 비타협적인 태도를 어느 정도 완화시켰다고 자부하였다. 특히 영국의 주장은 적어도 중국과의 전쟁 위험성을 부각시켜 미국인들이 자제하도록 하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영국인들은 미국이 한국에 버무는 한 영국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결국 미국과 영국은 대서양에서의 파트너쉽을 재확인하고 조심스런 관계발전을 도모하였으나, 극동지역에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확인하였다.

#### 4. 중국의 침략자 규정 결의안에 대한 논쟁

정상회담이후 미국과 영국정부가 갈등을 겪은 다음 문제는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안을 유엔에서 통과시키려는 미국의 시도와 관련한 것이었다. 대개의 유엔회원국들은 북한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미국의 정책을 지지하였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의 확전은 세계대전을 유발시킬 것이라는 영국의 견해에 동조하였다. 1950년 말부터 제3세계국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전쟁 종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유엔을 통하여 진행되었으나, 유리한 전황을 유지하고 있던 중국은 “유엔군의 한국으로부터의 철수, 중국의 유엔가입문제” 등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종전협상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며 사실상 종전안을 거부하였다. 중국은 미국이 정전협상을 함으로써 전세회복을 위한 “숨쉬 여유(breathing space)”를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sup>44)</sup>

43) *US Minutes of the Sixth Meeting*, 8 December 1950, FRUS 1950, 7:1469-79; Annex 6, 8 December 1950, PREM 8/1200, PRO.

44) *Austion to Acheson*, Nos.435 & 444, 14 & 16 December 1950, FRUS 1950, 7:1546-8 & 1559-60; “Korea: Further Summary of Events relating to Korea”, *Command Papers*, Cmd.8366, September 1951, pp.29-32;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25 December 1950 & 15 January 1951, pp.1033 & 113-4.



기를 희망하였다.<sup>43)</sup> 영국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양측은 의견이 불일치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여섯차례의 정상회담 동안 격렬한 논쟁을 벌인 양측은 전쟁을 확대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점 이외에는 어느 측도 원래 목표하던 바를 완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정상회담은 양국의 견해차이를 해소하지도, 악화시키지도 않았다. 양측은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회의장을 떠났다. 미국인들은 대서양 뿐만 아니라 태평양에서 영미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들은 미국이 서방세계를 지도하고 있으며 어느 나라도 도전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싶었다. 국가위신상 중국에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영국은 비록 열세의 위치에 있었지만 할말을 다하였다고 만족해 했다. 영국인들은 비록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별로 없지만, 미국의 비타협적인 태도를 어느 정도 완화시켰다고 자부하였다. 특히 영국의 주장은 적어도 중국과의 전쟁 위험성을 부각시켜 미국인들이 자제하도록 하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영국인들은 미국이 한국에 버무는 한 영국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결국 미국과 영국은 대서양에서의 파트너쉽을 재확인하고 조심스런 관계발전을 도모하였으나, 극동지역에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확인하였다.

#### 4. 중국의 침략자 규정 결의안에 대한 논쟁

정상회담이후 미국과 영국정부가 갈등을 겪은 다음 문제는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안을 유엔에서 통과시키려는 미국의 시도와 관련한 것이었다. 대개의 유엔회원국들은 북한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미국의 정책을 지지하였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의 확전은 세계대전을 유발시킬 것이라는 영국의 견해에 동조하였다. 1950년 말부터 제3세계국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전쟁 종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유엔을 통하여 진행되었으나, 유리한 전황을 유지하고 있던 중국은 “유엔군의 한국으로부터의 철수, 중국의 유엔가입문제” 등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종전협상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며 사실상 종전안을 거부하였다. 중국은 미국이 정전협상을 함으로써 전세회복을 위한 “숨쉬 여유(breathing space)”를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sup>44)</sup>

43) *US Minutes of the Sixth Meeting*, 8 December 1950, FRUS 1950, 7:1469-79; Annex 6, 8 December 1950, PREM 8/1200, PRO.

44) *Austion to Acheson*, Nos.435 & 444, 14 & 16 December 1950, FRUS 1950, 7:1546-8 & 1559-60; “Korea: Further Summary of Events relating to Korea”, *Command Papers*, Cmd.8366, September 1951, pp.29-32;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25 December 1950 & 15 January 1951, pp.1033 & 113-4.

중국이 완고한 태도를 보이고 전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미국인들은 만약 중국이 작전을 계속한다면, 미국은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1950년 11월 3일 유엔에서 채택된 “평화를 위한 결의(Uniting for Peace Resolution)”에 의하여 설립된 “공동대책위원회 (CMC: Collective Measures Committee)를 통하여 “외교단절, 경제제재, 무역제한, 해안봉쇄”등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정책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sup>45)</sup> 미국인들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침략자가 뻔뻔스러운 침략행위로 이득을 보면 안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엔회원국들이 자국의 계획에 동조하도록 하는 외교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많은 서방국가들이 미국의 계획을 지지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인도와 영국의 반대가 거셌다. 영국이 격렬한 반대의 태도를 보이자 미국은 당황하게 되었다. 영국인들은 중국을 비난하는 결의안으로부터 야기될 결과에 대하여 숙고한 후, 중국과의 전쟁은 “민주주의적 대의(Democratic Cause)에 해를 끼치는 헛수고일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영국을 설득하기 위하여 애치슨은 주미영국대사인 프랭크스를 만나 “집단안보의 원칙”을 위하여 중국을 침략자로 선언하는데 있어서 미국과 영국은 행동을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러한 침략자 규정의 결과가 어떠한 의미에서든 전쟁을 뜻한다는 데 대하여 부인하였다.<sup>46)</sup> 미국인들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호전적인 정책에 대하여 지지할 의사가 별로 없는 동맹국들을 설득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반대의사는 변함이 없었다. 1월 8일 애틀리 수상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침략자 규정 결의안의 제출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면서 유엔은 “중국인들에게 평화적 해결에 도달하기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47)</sup> 다음날 회답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집단안보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1930년대에 만주, 이디오피아, 오스트리아에서 연합국들이 침략에 대항하여 강력한 반응을 보였다면 “세계사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우리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평화적 해결을 위한 창구를 열어놓을 것이다. 이는 유엔헌장에 의한 우리의 의무이다. 그러나 침략이 발생했을 때 그 침략을 시작한 측의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 침략발생 사실을

45) Hickerson (국무성 유엔담당차관보) memorandum, 17 December 1950, FRUS 1950, 7:1562-3; Rusk memorandum, 21 December 1950, 앞의 책., 1588-90.

46) Foreign Office to Franks, No.32, 3 January 1951, FK1022/2G, FO371/92756; Strang minute, 2 January 1951, FK1022/10, FO371/92756; Franks to Foreign Office, No.33, 4 January 1951, FK1071/16G, FO371/92765, PRO.

47) Foreign Office to Franks, No.87, 8 January 1951, FE/51/3, FO800/462, PRO.

선언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견지한다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공동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sup>48)</sup>

애치슨도 베빈에게 편지를 보내 유엔이 북한의 침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했으며 중국이 대규모 침략은 외면해 버리면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 여론조사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그는 유엔이 중국의 침략사실을 선언하지 못한다면 미국내에는 "고립주의"가 팽배해 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sup>49)</sup> 영국인들을 설득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회유보다는 위협적인 방법에 가까웠다.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안에 반대하는 영국의 입장은 1월 4일 런던에서 개최된 영연방 수상회담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인도대표가 영국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하였다. 네루수상은 세계전략에 있어서 유럽은 "전쟁"의 관점에서 중요한 반면 극동은 "평화"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베빈은 네루에게 영연방은 "서양과 동양을 망라한 유일한 국가단체"이므로 미국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의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한국사태가 일어난 직후부터 그(베빈)는 미국정부에게 아시아 전체를 조망할 필요에 관하여 강조해 왔다. 미국은 역사가 짧은 국가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무모한 도박을 일삼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그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sup>50)</sup>

수상들은 중국을 침략자로 공식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심각하고 광범위한 의의를 함축"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그들은 평화를 위한 제일의 임무는 미국과 중국을 협상의 장에 끌어들이고 영국·미국·소련·중국정부를 포함하는 기구를 설립하여 대만과 중국의 유엔가입 문제를 포함한 극동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sup>51)</sup> 루어드(Evan Luard)는 이러한 영연방국가들의 합의는 "특정 외교정책 사안에 관련하여 영연방수상들이 통일된 행동을 취하려 시도한 유일한 기록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sup>52)</sup>

48) *Franks to Foreign Office*, No.76, 9 January 1951, FE/51/6, FO800/462, PRO.

49) *Gifford to Bevin*, 8 January 1951, FK1071/47, FO371/92766, PRO.

50) *Strang minute*, 9 January 1951, FK1071/37, FO371/92766, PRO.

51) *Foreign Office minute*, FK1023/26, FO371/92762, PRO; 영연방 수상회담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1953, Vol. 1: Strategy and Diplomacy*, pp.170-178을 참조할 것.

52) Evan Luard, *Britain and China* (London: Chatto & Windus, 1962),

영연방 수상회의가 거의 끝나갈 즈음인 1월 11일에 캐나다의 피어슨(Lester Pearson)은 “정전위원회(Cease-Fire Committee)”에 정전을 위한 “5원칙”을 제출하였다. 5원칙은 정전, 정치회담, 외국군의 단계적 철수, 한국통일행정을 위한 잠정협정, 극동분쟁을 논의할 위한 영국·미국·소련·중국을 포함한 기구 설립을 포함하였다. 1월 13일 유엔 제1위원회(First Committee)는 이 안을 찬성 50, 반대 7, 기권 1로 통과시켰다.<sup>53)</sup>

애치슨은 그 결의안이 “잔인한(murderous)” 것이라고 묘사하였지만 미행정부 는 이 결의안을 지지하였다. 미국인들은 중국이 이 제안을 거부할 것이며, 이에 따라 미행정부의 국내정치에서의 입장이 회복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가졌다. 미국인들은 중국의 거부가 유엔회원국들로 하여금 침략자 규정안을 지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믿었다. 애치슨은 중국이 이 제의를 거부할 것을 예상하면서 두개의 대안을 마련하였다. 첫째안은 중국이 “침략”행위를 하였다는 표현을 삽입한 반면, 둘째 안은 “침략”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불법적 행위”라고 표현하였다. 미국 무성은 서방국가들이 틀림없이 둘째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었지만 “침략”이라는 단어의 사용여부가 “자유세계가 미국의 지도력을 받아들여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점에 대하여는 불행하게 생각하였다.<sup>54)</sup>

영국은 중국이 정전안을 거부한다면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대하여 반대만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베빈은 중국이 정전안을 거부한다면, 유엔이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중국을 제재하는 것에 대하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였다.<sup>55)</sup>

그동안 중국군은 보다 더 남쪽으로 유엔군을 후퇴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주은래는 1월 17일에 유엔의 정전안을 거부하는 동시에 모든 외국군이 한국으로부터 철수하고 미군이 대만에서 철수하고 중국, 소련, 영국, 미국, 프랑스, 인도, 이집트가 한국문제의 해결을 위한 평화회담을 개최하여야 하고 중국이 유엔에 가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애치슨은 이와 같은 주은래의 회답에 대하여 “평화를 위한 전세계적인 요구를 도도하게 거부하는 처사”라고 비난하였다.<sup>56)</sup> 이러한 사태

pp. 96-97.

53) *UN Document*, A/C.1/645, 11 January 1951; A/C.1/651, 13 January 1951.

54) Peter Lowe, “The Frustrations of Alliance: Britain, the United States, and the Korean War, 1950-1”, Paper prepared for the Korean War Conference, British Association of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20-21 September 1985, p.18; Dean G. Acheson, *Present at the Creation: My Years in the State Department* (New York: W.W. Norton, 1969), p.513; *Franks to Foreign Office*, No.107, 10 January 1951, FK1071/49, FO371/92766, PRO; Acheson to US Mission at the United Nations, No.632, 13 January 1951, FRUS 1951, 7:1:74-76.

55) *Foreign Office to Franks*, No.174, FK1071/98G, FO371/92768, PRO.

56) *UN Document*, A/C.1/653, 17 January 1951;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진전은 미국이 중국을 침략자로 공식적으로 규정하도록 한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미국은 침략자 규정안을 영국과 공동제외하기를 원하였다. 주유엔대사인 켈(Jebb)은 만약 영국이 이를 거부한다면 미국인들은 "독자적으로" 이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본국정부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이를 원치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영국과 미국이 갈등을 겪고 있다는 "불리한 인상"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켈은 이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할 국가들은 슬라브국가들, 인도, 버마, 인도네시아, 스웨덴, 유고슬라비아, 일부 아랍과 남미 국가들로 예상하였다. 그는 중국이 평화회담에 참석할 국가로 인도와 이집트를 지목한 것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되도록 많은 기권국가들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전술"이라고 주장하였다.<sup>57)</sup>

베빈은 켈에게 그 결의안을 공동제외하거나 부표하지 말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베빈은 원칙적으로 그 결의안이 유엔이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과 별개로 취급된다면 영국은 그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sup>58)</sup> 중국이 유엔의 정전안을 거부하자 영국은 미국의 침략자 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철회하였지만 중국을 제재하는 안에 대한 반대는 완강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은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안이 반드시 제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국을 제재하는 데 반대하는 베빈의 견해를 프랭크스가 애치슨에게 전달하자 애치슨은 중국을 침략자로 비난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이 문제에 대한 베빈의 마음을 바꾸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였다.<sup>59)</sup>

이제 미국인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 대부분의 동맹국들은 강경하고 호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는 미국인들에게 침략자규정 결의안 공동제외를 반대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그리스, 우루과이, 쿠바, 콜롬비아, 페루, 터키 등의 소동맹국들만이 공동제외할 의사를 보였다. "매우 불행한 일"이고,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미국인들은 단독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애치슨은 미국이 공동제외국을 구하기 위하여 "더 이상의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였다.<sup>60)</sup>

29 January 1951, pp.165-6.

57) *Jebb to Foreign Office*, No.94, 17 January 1951, FK1071/103, FO371/92768, PRO.

58) *Cabinet Meeting*, C.M.(51)4, 18 January 1951, CAB128/19; *Foreign Office to Jebb*, No.204, 18 January 1951, FK1071/101, FO371/92768, PRO.

59) *Battle memorandum*, 18 January 1951, FRUS 1951, 7:1:98-100.

60) *Acheson to US Mission at the United Nations*, No. 640, 19 January 1951, FRUS 1951, 7:1:108-9; *Austin to Acheson*, Nos. 1038 & 1939, 20 January 1951, *Ibid.*, 113-5; *Jebb to Foreign Office*, No.115, 20 January 1951, FK1071/129, FO371/91769, PRO;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영국내 일부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게 되면 영국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지 모른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켈은 만약 영국이 미국의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으면, 프랑스 등 다른 서유럽국가들이 이에 따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 경우 미국인들은 동맹국들에게서 소외되었다고 느낄 것이고, 그 결과는 "서유럽방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사태가 발전할 것이다. 따라서 그는 미국의 결의안에 대하여 지지하도록 외무성에 권고하였다.<sup>61)</sup>

베빈은 이러한 충고를 거절하였다. 그는 중국과의 전면전으로 사태를 발전시키려 하는 미국의 태도에 대하여 "매우 심한 유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특히 미국인들이 공동체의자를 구하기 위하여 영국과 프랑스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외교적 술책에 대한 반감도 갖고 있었다. 미국인들은 두 국가를 접촉하면서 상대국이 협조하기로 하였다는 말로써 설득하려 하는데 "나는 이러한 책략을 경멸한다"고 베빈이 언급하였다.<sup>62)</sup>

미국의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고 영국은 "미국의 입장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영연방국가들의 대표들과 접촉하면서 로비활동"을 벌였다.<sup>63)</sup> 호주의 맨지스(Menzies) 수상은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것 보다는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비난하는 결의안"을 선호하였다. 그는 한국에 확고한 방어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결의안을 공동체의하자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그는 "우리는 현재 대규모 전쟁을 치러야 할 만한 여력이 없다."고 언명하였다.<sup>64)</sup> 캐나다인들도 미국의 결의안은 "경솔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피어슨은 미국의 결의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필요 이상으로 아시아와 서구국가들간의 견해차를 강조하거나 과장할 것이며 서방국가들간의 공식적인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캐나다는 협상을 위한 문을 보다 더 개방하기를 원하였다.<sup>65)</sup> 영연방의 주요국가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통일된 의견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월 20일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이 결의안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공세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든 제안을 중국이

*War 1950-1953, Vol. 1: Strategy and Diplomacy*, pp.180-181.

61) *Jebb to Foreign Office*, No. 117, 20 January 1951, FK1071/131, FO371/92769, PRO.

62) *Foreign Office to Franks*, No.255, 20 January 1951, FK1071/137G, FO371/92769, PRO.

63) Callum MacDonald, *Korea: The War before Vietnam* (London: Macmillan, 1986), p.83.

64)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1953, Vol.1: Strategy and Diplomacy*, p.180

65) Denis Stairs, *The Diplomacy of Constraint: Canada, the Korean War and the United State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4), pp.169-172.

거부한 점을 천명하면서 중국이 한국에서 침략행위를 자행했다는 선언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결의안은 또한 침략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CMC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주도록 요구하였다.<sup>66)</sup> 미국은 이 결의안을 제출한 후 무슨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서방국가들을 설득하여 결의안을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보였다. 문제는 서방세계에 대한 미국의 군사 및 경제원조 공약이 중국과의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동맹국들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영국내각은 그동안 1월 17일자 정전안에 대한 중국의 거부 의사에 대하여 중국측에 질의서를 보냈고,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해명이 있을 때까지 미국 결의안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였다. 영국정부가 최종결정을 연기하자 유엔대표인 쟈의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다. 다른 서방국가들의 대표들이 그에게 접근하며 영국이 어떻게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본국정부에게 만약 영국이 가까운 장래에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서방국가들을 뜻하는 방향으로 인도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sup>67)</sup>

미국이 결의안을 제출한 1월 20일까지 유엔군은 중국의 진격을 막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이 유엔군을 한국에서 격퇴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중국은 1월 22일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정전협상 개시안을 수용하였다. 정전이 7개국의 예비회담에서 합의될 수 있을 것이며, 그후에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철수, 대만으로부터의 비군철수를 비롯한 극동의 다른 문제들이 토의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중국인들은 아직도 유엔 가입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정전을 위한 조건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을 회피하였다.<sup>68)</sup> 이 제의는 유엔이 제시한 것과 많은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유일한 차이는 정전이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행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회의개최 후에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영국인들은 중국의 회답이 협상을 위한 문을 열어 놓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내각은 프랭크스가 에치슨을 만나 협상에 의한 해결의 노력으로써 연계 될 잇점을 강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의안의 문구는 몇가지 점에서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특히 영국정부는 중국이 유엔의 모든 제의를 거부했다(제2조)는 조항에 동의할 수 없었고, CMC가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해야한다고 한 제8조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보였다.<sup>69)</sup> 내각회의 결과는 닉슨(Pierce Dixon) 외무성차관보에 의하여 주영미국대사에게 전달되었다. 그는 영국의 결정에 있어서 두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하였다. 첫째, 영국인들은 "아시아인들에게 정당한 이익을 갖도록 하는 아시아문제

66)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27 January 1951, p.167.

67) *Jebb to Foreign Office*, No. 130, 22 January 1951, FK1071/158, FO371/92769, PRO.

68) *UN Document*, A/C.1/653, 22 January 1951.

69) *Cabinet meeting*, C.M.(51)6, 23 January 1951, CAB128/19, PRO.

“로 인해서 아시아인들과 서구인들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둘째, 협상에 의한 해결 가능성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sup>70)</sup>

한편, 베빈은 프랭크스에게 강경한 내용의 전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미국의 “강압수단 전술(steam-roller tactics)”은 “민주국가들의 결속을 파괴시키려 하고 특히 미국정부를 고립시키려 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과 소련에게 이득을 줄 것이라는 것이었다. 미국은 “아시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아시아의 장래를 결정”하려고 한다면서, 베빈은 동맹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압력은 “틀림없이 유엔에서의 공개된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sup>71)</sup>

프랭크스는 애치슨과 만나 며칠간의 표결연기에 대한 동의를 얻어 냈다. 그러나 애치슨은 CMC의 제재조치에 대한 조항을 결의안에서 삭제하자는 영국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이러한 삭제는 “유엔의 권위와 영향력에 심각한 손상을 가하고 유엔에 대한 미국여론과 의회의 지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sup>72)</sup> 애치슨은 중국이 서방의 집단안보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서방의 분열을 꾀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1월 25일 영국내각은 미국 결의안에 대한 토의를 재개하였는데, 각료 중에는 미국의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자는 파와 이에 반대하는 파로 분열되었다. 병으로 불참한 베빈을 대신하여 참석한 영거(Kenneth Younger)는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대부분의 각료들은 영거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그들이 이처럼 미국결의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미국인들이 어떠한 수정안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일부는 반대표를 찍기 보다는 기권하자는 제의를 하였지만 이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기권은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강대국에 걸맞지 않게 결단력 없는 조치”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내각은 영국이 미국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독립성과 자존”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향후 미국정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sup>73)</sup> 기본적으로 영국인들은 한국과 중국문제는 아시아문제이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는 아시아인들의 주도하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월 23일 애틀리는 “우리는 이 아시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시아 국가들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sup>74)</sup>

이러한 영국의 견해에 대하여 미국인들은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영국의 결정

70) *Gifford to Acheson*, No. 407, 23 January 1951, FRUS 1951, 7:1:119-120.

71) *Foreign Office to Franks*, No. 291, 23 January 1951, FK1071/169G, FO371/92770, PRO.

72) *Franks to Foreign Office*, No. 233, 23 January 1951, FK1071/169G, FO371/92770, PRO; *Acheson to Gifford*, No. 3511, 24 January 1951, FRUS 1951, 7:1:123-4.

73) *Cabinet meeting*, C.M. (51)7 & 8, 15 January 1951, CAB128/19, PRO.

74) *Parliamentary Debates(Hansard)*, House of Commons, No. 483, Cols. 38-42.



에 실망한 미국인들은 영국이 "우리의 결의안에 반대하고 소련블럭과 뜻을 같이함으로써 고립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프랭크스와 만난 자리에서 러스크는 한국문제는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태평양에 있어서 미국의 지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한국에서의 침략은 전세계적인 문제"라고 주장하였다.<sup>75)</sup>

1월 26일 영국내각은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재소집하였다. 토의를 마치면서 에블리는 만약 미국 결의안의 제2항과 제8항이 만족스럽게 수정되도록 제안된다면 영국은 이에 대하여 찬성표를 던질 것이고 이것이 통과된다면 영국은 미국 결의안 전체에 대해 찬성표를 찍을 것이라고 언명하였다.<sup>76)</sup> 요약해서 영국은 미국의 결의안이 그들이 뜻하는 대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반대표를 던질 것이 확실하였다. 쥘은 본국정부로부터 만약 영국만이 공산블럭과 같은 입장에 놓이게 된다면 기권하라는 훈령을 받았다.<sup>77)</sup>

영국의 강력한 반대의사는 미국의 강경한 정책을 완화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에치슨은 1월 27일 대통령과의 대화를 가진 후에 제8조의 끝부분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만약 다른 위원회의 업무가 순조로이 진행된다면 CMC는 보고서 제출을 보류할 것이다." 에치슨은 프랭크스에게 미국이 이 이상으로 양보할 수는 없다고 선언하였다. 에치슨은 영미간의 갈등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현재 미국여론의 민감한 상태로 보아 나토국가들을 강화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경고하였다.<sup>78)</sup>

1월 29일 내각회의에서 에블리는 미국의 수정안은 영국의 견해에 대하여 미국이 "상당부분 양보"한 것이기 때문에 영국은 미국정부가 협상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내각은 미국의 결의안에 대하여 영국이 보여준 "인내와 단호함"이 중국에는 미국의 입장을 바꾸도록 하겠다고 결론지었다.<sup>79)</sup>

2월 1일 유엔총회는 찬성 44, 반대 7, 기권 9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인도와 비어바는 소련블럭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중국이 유엔의 모든 평화제의를 거부했다는 내용의 제2조는 중국이 "유엔의 제안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문구

75) *Franks to Foreign Office*, No. 261, 26 January 1951, FK1071/207, FO371/92771, PRO; *Rusk memorandum*, 25 January 1951, FRUS1951, 7:1:131-133.

76) *Cabinet meeting*, C.M.(51)9, 26 January 1951, CAB128/19, PRO.

77) *Foreign Office to Jebb*, No.182, 27 January 1951, FK1071/209, FO371/92771, PRO.

78) *Battle memorandum*, 29 January 1951, FRUS 1951, 7:1:136-7; *Acheson to US Mission at the United Nations*, No.665, 1951년 1월 27일, *Ibid.*, 137; *Acheson to Gifford*, No.3557, 27 January 1951, *Ibid.*, 142-3.

79) *Franks to Foreign Office*, No.282, 28 January 1951, FK1071/221, FO371/92771, PRO.

로 대치되었다. 제8조는 중재위원회 (Good Offices Committee)가 발전적인 보고를 할 경우에 제재조치는 보류될 것이라고 수정되었다.<sup>80)</sup> 영국인들은 유엔이 한국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이 유지된 점에 대하여 만족하였다. 중국을 제재하는 안에 반대한 영국의 견해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지만 미국인들이 최종적으로 수정한 안은 대화를 위한 문을 열어 놓고 제재를 즉각적으로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함유하고 있어 영국인들을 만족케 했다. 영국인들은 그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협상에 성공하였다고 믿었다.

---

80) *UN Document*, A/C.1/659, 30 January 1951; A/1770, 1 February 1951.

### III. 중국군 참전과 북한·중국·소련관계 ; 「동아시아공산주의 3각동맹」의 협력과 긴장

#### 1. 미군·국군의 북진과 북한의 대응; 절멸의 위기와 소련·중국에의 구원요청

미군과 국군의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뒤이은 서울탈환으로 북한은 그동안의 성과를 일거에 상실하였다. 전세는 갑자기 역전되어 오직 공격일변도로 밀어부치던 북한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다. 모든 전쟁은 승리가 예견되는 순간으로 다가갔다가 역전되면 될수록 역전의 충격은 크기 마련이다. 승리가 목전에 임박했던만큼 패배의 크기도 더 크다. 기실 북한은 인천상륙작전을 사전에 이미 거의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에 대해 가능한 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우세한 전력을 바탕으로 밀어부치는 미군과 국군의 공세 앞에서 역전은 불가피하였다. 전편의 논의에서 매우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듯이 김일성은 적어도 1950년 8월 28일에는 인천지구에 대한 방어에 착수한 바 있었다.<sup>81)</sup>

최근 입수된 자료에 따르면 다음날인 8월 29일에는 곧바로 내무성, 민족보위성 책임간부들, 각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각도 내무부장 협의회가 개최되어 후방을 방어하는 문제가 집중 토의되었다. 이들 주요 간부들을 전부 집합시킨 회의에서 김일성은 직접 「후방을 튼튼히 보위하자」는 연설을 통해 “지금 적들은 대병력을 동원하여 동서해안으로부터의 상륙을 기도하고있다. 현시기 우리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후방을 튼튼히 보위하는 것”이라며 인민군은 물론 내무서원과 자위대원 뿐만 아니라 일반 인민들까지 동원하여 상륙을 저지하라고 지시하였다.<sup>82)</sup> 총력 대응을 지시하고있는 것이다. 이를 볼 때 8월 28일 자신이 직접 내린 반상륙 방어명령<sup>83)</sup>에 이어 즉시로 전(全) 해당간부들을 집합시켜 지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미군의 인천상륙작전 감행 직후인 9월 17일 김일성은 화급하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였다. 인천상륙작전 감행 이틀 후의 날이었다. 회의에서 김일성은 「급변하는 군사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몇 가지 과업」이라는 연설을 통해 무엇보다도 서울지구방어력량을 증강할 것을 지시하고, 최고사령부 총참모부의 강화, 철도의 군사화, 남반부 인민유격투쟁과 당단체들의 사업

81) 북한의 미군 인천상륙작전의 사전인지와 그에 대한 준비와 대비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줄고, 「한국전쟁: 전세의 역전과 북한의 대응(1)」,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략연구」제4권2호(통권10호, 1997), pp. 206-256를 참조.

82) 「김일성전집」12권(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p. 248-257

83) 줄고, 「한국전쟁: 전세의 역전과 북한의 대응(1)」, pp. 221-223.

### III. 중국군 참전과 북한·중국·소련관계 ; 「동아시아공산주의 3각동맹」의 협력과 긴장

#### 1. 미군·국군의 북진과 북한의 대응; 절멸의 위기와 소련·중국에의 구원요청

미군과 국군의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뒤이은 서울탈환으로 북한은 그동안의 성과를 일거에 상실하였다. 전세는 갑자기 역전되어 오직 공격일변도로 밀어부치던 북한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다. 모든 전쟁은 승리가 예견되는 순간으로 다가갔다가 역전되면 될수록 역전의 충격은 크기 마련이다. 승리가 목전에 임박했던만큼 패배의 크기도 더 크다. 기실 북한은 인천상륙작전을 사전에 이미 거의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에 대해 가능한 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우세한 전력을 바탕으로 밀어부치는 미군과 국군의 공세 앞에서 역전은 불가피하였다. 전편의 논의에서 매우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듯이 김일성은 적어도 1950년 8월 28일에는 인천지구에 대한 방어에 착수한 바 있었다.<sup>81)</sup>

최근 입수된 자료에 따르면 다음날인 8월 29일에는 곧바로 내무성, 민족보위성 책임간부들, 각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각도 내무부장 협의회가 개최되어 후방을 방어하는 문제가 집중 토의되었다. 이들 주요 간부들을 전부 집합시킨 회의에서 김일성은 직접 「후방을 튼튼히 보위하자」는 연설을 통해 “지금 적들은 대병력을 동원하여 동서해안으로부터의 상륙을 기도하고있다. 현시기 우리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후방을 튼튼히 보위하는 것”이라며 인민군은 물론 내무서원과 자위대원 뿐만 아니라 일반 인민들까지 동원하여 상륙을 저지하라고 지시하였다.<sup>82)</sup> 총력 대응을 지시하고있는 것이다. 이를 볼 때 8월 28일 자신이 직접 내린 반상륙 방어명령<sup>83)</sup>에 이어 즉시로 전(全) 해당간부들을 집합시켜 지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미군의 인천상륙작전 감행 직후인 9월 17일 김일성은 화급하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였다. 인천상륙작전 감행 이틀 후의 날이었다. 회의에서 김일성은 「급변하는 군사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몇 가지 과업」이라는 연설을 통해 무엇보다도 서울지구방어력량을 증강할 것을 지시하고, 최고사령부 총참모부의 강화, 철도의 군사화, 남반부 인민유격투쟁과 당단체들의 사업

81) 북한의 미군 인천상륙작전의 사전인지와 그에 대한 준비와 대비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줄고, 「한국전쟁: 전세의 역전과 북한의 대응(1)」,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략연구」제4권2호(통권10호, 1997), pp. 206-256를 참조.

82) 「김일성전집」12권(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p. 248-257

83) 줄고, 「한국전쟁: 전세의 역전과 북한의 대응(1)」, pp. 221-223.

강화, 당내규율의 강화, 그리고 인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노력 등을 지시하였다. 특별히 서울지구방어를 위해서는 낙동강 계선에 진출한 부대들을 빨리 서울지구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시급하게 예비부대를 창설하라고 지시하면서 남반부 해방지역에서 9개사단, 북반부에서 6개사단을 조직하라고 지시하였다.<sup>84)</sup>

서울을 넘겨주는 것이 분명해지고 국련군이 38선을 넘기 직전 시점인 9월 27일 김일성은 도당위원장회의에서 「일시적인 전략적 후퇴와 당조직의 임무」라는 제목하에 중요한 담화를 발표하였다.<sup>85)</sup> 파상적인 공세에 직면하여 부득이하게 후퇴를 명령하고있는 것이다.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당한 뒤 10여일의 시간이 지난 뒤의 시점으로서 여러 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는 더 이상은 지탱할 힘이 없을 시점이었다. 담화에서 김일성은 “우리당의 전략적 방침은 적들의 침공속도를 최대한으로 지연시키면서 시간을 쟁취하여 인민군 주력부대들을 구출하고 새로운 후비부대들을 편성하여 강력한 반격집단을 형성하며 계획적인 후퇴를 조직하는 것”이라고 호소하였다. 김일성은 적의 후방에서 전투를 전개하고 동시에 적부대를 대포위망 안에 가두라고 지시하였다.

그는 특히 동부전선에서 철퇴하는 2군단이 황해도, 강원도일대의 넓은 지역을 장악하고 유격전을 전개하여 적의 배후를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북한군은 괴멸로 인하여 전신연락이 끊어져 최고사령부에서 직접 대대장급 군관을 동부전선에 파견, 이 명령을 전달하지않으면 안되었다. 연설에서 김일성은 곧 있을 소련과 중국에 대한 비밀 구원요청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징조로 보아 후퇴 기간은 그리 길 것 같지 않다”고 어떤 암시를 담은 언명을 하였다.(강조는 인용자) 강조표시는 소련과 중국의 지원에 대한 확신의 발로였지만 소련과 중국의 지원결정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불가능할 수도 있었던 실현이었음을 고려할 때 그의 확신은 실제보다 너무 앞서간 확신이었다.

이 연설에 앞서 9월 9일 공화국창립 2주년을 맞아서 한 김일성의 연설은 오직 자신감에 넘치는 내용으로만 가득차 있었다. 9월 9일은 인천상륙작전이 있기 직전의 시점으로서 낙동강 연선을 전선으로 한 부산방어선만을 남기고는 모든 지역이 북한군의 점령하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연설에서 김일성은 조국 전지역의 95%와 총인구의 97%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하에 통일되었다고 자랑하였다. 인민위원회 선거와 토지개혁, 인민들의 의용군 참가에 대해서도 그는 최대한의 표현으로 목전의 임박한 승리를 자축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승리는 정당한 투쟁에 쫓겨난 조선인민의 것”이라고 자신있게 결론지었다.<sup>86)</sup>

사실 인천상륙작전 직전 한반도의 남단까지 도달하였을 때 북한정부와 군, 지지자들이 가졌던 승리감은 엄청났었다. 목전의 임박한 승리를 앞두고 그들은 그

84) 「김일성전집」 12권, pp. 308-313

85) 「김일성전집」 12권, pp. 322-331.

86)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2주년에 제하여 진술한 방송연설」 (1950년 9월 11일), 「김일성전집」 3권 (1953), pp. 74-103

흥분을 조금도 감추지 않았다. 그들의 심사(心思)를 가감없이 나타내는 시가 발굴되어 중심 부분을 소개한다. 박헌영, 이승업과 함께 북한에서 비제의 간첩으로 몰려 처형당한 유명한 입화는 다음과같이 승전을 노래하고있다.

앞으로 앞으로  
락동강을 건너 왜관을 지나  
나아가자 동무들아 다만 앞으로  
앞에는 대구 그다음엔 부산  
또 그 다음엔 원썩들이 쳐박힐  
현해탄의 물결 높고 험한 바다  
....  
전우들아! 전진이다 진격이다<sup>87)</sup>

조선의용군 출신으로서, 45년 8.15 해방과 함께 선전대로 중국으로부터 조국으로 돌아왔던 김사량의 「총군기」는 더욱 격정적이다.

전호 속에서는 노래소리가 들린다. 싸움에서 승리를 축하하며 승리속에 싸움을 재촉하는 8.15!

우리들은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영광스러운 오늘의 조국과 이날의 승리를 가져다 주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최고사령관이신 내각 수상 김일성 장군님의 건강을 위하여 전사들과 같이 축배를 든다.(1950.8.15)

<<아! 동무들 바다가 보인다!!>>  
<<남해바다다!>>

....  
그렇다. 바로 저 바다가 남해바다이다. 진해만은 발 아래 굽어보이고 바산은 불과 지척 간이다..... 서해바다줄기를 스쳐 수천리길을 <<바산으로, 진해로, 부산으로!>> 어떻게 웨치며 이 남해 한끝 서북산에까지 시체를 넘어 걸음걸음 피에 젖으며 달려온 우리 용사들!!

....  
아! 울려라 우리들의 군단포!  
노래하라 지스트리! 막심!

87) 입화, 「뺨으면 아직도 뜨거운 모래밭 건너」, 「독점 발굴; 「너 어느 곳에 있느냐」 - 북한에서 비제간첩으로 몰린 입화의 마지막 시집」, 「한길문학」, 1992년 여름호 (통권13호), pp.186-187

땅크들이여! 윈쭈들의 가슴을 타라!  
 모터찌클들이여 구름처럼 달리라!  
 동무들 돌격앞으로!  
 우리들은 고기비늘 같은 만신의 상처를 더듬으며 거인과도 같이  
 산악에서 내려가리라!  
 올림프스산을 내려가는 제우스처럼 만천하에 빛을 뿌리며 거동  
 하리라!  
 오각별 삼색기 펄럭이며 위대한 령수 노래부르며 바다를 향하여  
 전진하리라!  
 바다가 보인다. 거제도가 보인다.  
 바로 여기가 남해바다이다.(1950.9.17)<sup>88)</sup>

그러나 잠시 후 이들의 흥분은 절망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되었다. 김사량의 9월 17일 <<종군기>>는 사태가 이미 역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나온 흥분의 발로였다.

약 3개월전 전국적 혁명의 달성을 위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전쟁을 개시하였던 북한의 리더십은 1950년 가을 이제 역으로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 1945년 이래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이 구축하여온 체제의 종언을 의미했다. 그것은 또한 1920년대 이래 약 30년간 계속돼온 한국공산주의 운동의 완전한 종말을 의미했다. 역전으로 인한 절망적 순간에 직면하여 김일성과 박헌영이 취한, 취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가장 중요한 조치는 역시 1950년 봄 전쟁을 결정할 때 최종적 순간에는 스탈린과 모택동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듯이, 스탈린과 모택동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남한군과 미군의 38선 북진이 임박한 9월 30일(9월 29일자) 둘 공동의 명의로 스탈린에게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내 화급히 구원을 요청하였다. 흥미 있는 편지의 전문을 인용해본다.<sup>89)</sup>

88) 김사량, 「락동강반의 전호 속에서」, 「바다가 보인다 - 마산 진중에서」, 김재남 편, 「김사량작품집 - 종군기」(살림터, 1992), pp. 48, 68-70

89) 「한국전쟁관련 러시아외교문서」(대한민국 외무부, 1994년 7월 20일). 면수없음. 이 편지는 "Letter to Stalin from Kim Il-sung and Pak Hon-yong, 29 Sep. 1950", *The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JAEAR)*, Vol.2, No.4(Winter, 1993), pp. 452-454;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CWIHP) Bulletin, Issues 6-7: The Cold War in Asia* (Winter, 1995/1996), pp. 111-112; 「6·25内幕: 모스크바 새 證言-「서울신문」 발굴 蘇문서속 秘史(11)」, 「서울신문」, 1995년 6월 8일에도 각각 실려있으나 모두 번역문이어서, 몇몇 어색한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고자 위의 문서에서 인용하였다.

존경하는 이 브 스탈린 동지께

조선해방의 은인이시며 전세계 근로인민의 수령이신 당신께서는 자기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우리 조선인민을 항상 고무 격려하여주시며 우리의게 배려를 베풀어주시며 각방면으로 원조를 주시는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을 대표하여 우리는 충심으로부터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미국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해방전쟁의 금일정황에 대하여 당신에게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침략군이 인천에 상륙하기 전에는 우리의 형편이 좋지않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적들은 패전에 패전을 거듭하여 남조선의 최남부의 협소한 지역에 몰리어드러가게되어 최후 결전에서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많았고 미군의 위신은 여지없이 추락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미국군은 자기의 위신을 만회하며 조선을 자기의 군사기지화하려는 본래 목적을 기어히 달성하기 위한 대책으로 태평양 방면의 미국 육해공군의 거의 전부를 동원하여 9월 16일(원문그대로.9월 15일의 오류)에 대병력을 인천에 상륙시켜 서울시에 침입하여 시가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황은 참으로 엄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민군 부대들은 상륙침입한 미국군 진공에 대하여 용감히 싸우고있습니다.

그러나 전선에는 참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적들은 약 천대의 각종 항공기를 매일 주야를 구분하지 않고 출동하여 전선과 후방할 것없이 마음대로 공격을 부절히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편으로 부터는 대항할 항공기가 없는 조건하에서 적들은 참으로 공군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고있는 것입니다. 각전선에서는 백여대 편성의 항공부대의 임호하에서 적의 기계화부대들은 활동하며 또한 특이 우리부대들을 저공비행으로서 다수 살상합니다. 후방에서 적의 항공기들은 교통 운수 통신 기관들과 기타 시설들을 마음대로 파괴하며 적군들의 기동력이 최대한도로 발휘되는 반면에 우리 인민군 부대들의 기동력은 약화 마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전선에서 우리가 체험한 바 입니다.

적들은 우리 군부대들의 교통 운수 연락망을 차단한 후 진격하여 인천방면으로서 상륙한 부대들과 남부전선에서 진공하던 부대들이 연결함으로서 서울을 점령할 수 있.....(판독불능)..... 부대들은 북반부로부터 차단되고 남부전선에 있는 부대들도 여러 토막으로 차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군부대들은 무기 탄약과 식량등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몇 개 부대들은 상호 분산되어있으며 그 중 일부는 적의게 포위되어있는 형편에 처하여 있습니다. 서울시가 완전 점령된다



면 적은 38도선을 넘어 북조선을 침공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금일과 같은 불리한 조건을 계속해야가지고 있게 되면 적의 침입은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운수 공급문제를 해결하고 기동력을 보장하려면 무엇보다도 이에 해당하는 공군력을 가져야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준비된 비행사들이 없습니다.

친애하는 이요시프 비싸리요노비치 시여!

우리는 여하한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조선을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와 군사기지로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독립·민주와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않고 싸울 것을 우리는 굳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전력을 다하여 새 사단들을 많이 조성 훈련하며 남반부에 있는 십여만의 인민군부대들을 작전상 유리한 ....(판독불능).....하여서까지 장기전을 계속할 모든 대책들을 강구 실시합니다.

그러나 적들이 금일 우리가 처하고있는 엄중하고 위급한 형편을 이용하여 우리의게 시간여유를 주지않고 계속 진공하여 38도 이북을 침공하게 되는 때에는 우리 자체의 힘으로서는 이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의 특별한 원조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적군이 38도선 이북을 침공할 때에는 소련 군대의 직접적 출동이 절대로 필요하게 됩니다. 만일 그것이 여하한 이유로써 불가능하게 될 때에는 우리의 투쟁을 원조하기 위하여 중국과 기타 민주주의국가들의 국제의용군을 조직하여 출동하도록 원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의견을 당신에게 감히 제의하오니 이에 대한 당신의 지시가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일성 박헌영

이 편지에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점을 인지할 수 있다. 먼저 국군과 미군이 38선을 넘기도 전에 김일성과 박헌영이 스탈린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북한의 리더십은 그들의 북진을 각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38선을 넘어 북진할 때에 원조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만약에 그들이, 38선을 넘지않을 경우 원조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편지는, 소련의 직접적인 무력원조를 요청하고있음은 물론 중국의 참전조차 스탈린에게 어떻게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스탈린의 결정에 거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국련군이 38선을 넘을 경우 북한으로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도래한 것이

었다.

10월 1일 남한군은 38선을 넘어 맹렬한 기세로 돌진하였다. 맥아더(Douglas MacArthur)는 미국의 고전적인 전쟁정책을 따라 패자의 조건부 퇴로를 보장해주지 않는 무조건 항복(unconditional surrender)을 권고하였다. 맥아더의 항복요구 성명을 보자.<sup>90)</sup>

북한군 총사령관에게

그대의 군대와 잠재적 전투능력이 불원간 전면적으로 패배되고 완전히 파괴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유엔의 결의가 최소한의 인명 손실과 재산파괴를 요구하고 있음으로 본관은 유엔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그대와 그대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가 한국의 어느 지점에서든지 본관이 지시할 군사적 감독하에 무장을 버리고 적대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또한 그대의 지배하에 있는 유엔군 포로 전부 및 비전투원 억류자를 즉시 석방하여 보호와 가료와 급양을 가해서 본관이 지시하는 곳으로 즉시 수송할 것을 요구한다...본관은 그대가 이 기회를 타서 장래의 불필요한 유혈과 재산파괴를 방지할 결심을 조속히 행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맥아더의 무조건 항복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의 반응은 없었다. 결국 맥아더의 성명은, 체제포기를 요구함으로써 북진을 위한 정당화의 수순으로서의 무조건 항복 요구였던 것이다. 김일성의 반응이 없자 예의 북진이 감행되었다. 미군마저 월경을 결정하자 북한리더십에게 전쟁은 이제 자신들의 체제의 멸망으로 치달는 국면이 된 것이었다. 북한지도부는, 전쟁결정이 통일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패망의 선택이 될지도 모를 결정을 한 셈이었다.

소련과 중국 역시 갑작스레 전개되는 전혀 다른 전국(戰局) 앞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9월 30일 슈티코프는 모스크바에 대사관 인원의 철수를 요청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미군기의 공습으로 북조선내 거의 모든 공장이 파괴되었음. 이런 상황하에서 업무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소련 군사고문단과 대사관 직원 거의 전부를 본국 귀환토록 허락해주시기 바람.” 그러나 모스크바의 그로미코는 “평양에 불안감을 배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수는 불가하다”고 답했다.<sup>91)</sup> 이때까지만 해도 모스크바의 방침은 아직 북한포기는 아니었던 것이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스탈린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한편 모택동에게도 화급한

90) 맥아더는 10월 1일 동경에서 방송을 통하여 김일성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였다. 『韓國戰亂一年誌』, p. C120-121; “The Commander in Chief, Far East(MacArthur)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FRUS*, 1950 Vol. VII, pp. 796-797.

91) 『6·25内幕: 모스크바 새 證言』 『서울신문』 발굴 蘇문서속 秘史(11), 『서울신문』, 1995년 6월 8일.

구원을 요청하였다. 10월 1일 김일성과 박헌영은 들의 이름으로 된 모택동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친서를 보냈다.<sup>92)</sup> 동 전문은 그날로 모택동에게 전달되었다. 같은 날 심야에 김일성은 평양에서 대사 예지량(倪志亮)과 정부참사 무관인 시성문(柴成文)을 만나 중국의 군대 파견을 부탁했다. 그러면서 김일성은 맥아더의 항복요구를 “우리는 원래 그런 습관없다”면서 거절할 뜻을 분명히 했다.<sup>93)</sup> 미군의 북진을 맞아 중국군을 참전시키기 위해 김일성과 박헌영이 모두 나선 평양의 총력적 노력이었다. 당시 김일성과 박헌영이 모택동에게 보낸 전문의 내용을 원문 그대로 살펴보자.<sup>94)</sup>

#### 존경하는 모택동 동지!

자기의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싸우고있는 우리 조선 인민에게 당신께서는 배려를 베푸러 주시어서 각 방면으로 원조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을 대표하여 우리는 충심으로부터의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해방전쟁의 금일 전황(전황-원문그대로)에 대하여 간단히 당신에게 말씀을 들이려 합니다.

미국침략군이 인천에 상륙하기 전에는 우리의 형편이 좋지않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적들은 패전에 패전을 거듭하여 남조선의 최남부 협소한 지역에 몰리어드러가게 되어 최후 결전에서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많아였고 미국의 군사적 위신은 여지없이 추락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미국은 자기의 위신을 만회하여 조선을 자기의 식민지와 군사기지로 만드려든 본래의 목적을 기여히 달성하기 위한 대책으로 태평양방면의 미국의 육해공군의 거이(거의) 전부를 동원하여 9월 16일 마침내 대병력을 인천에 상륙상긴 후 서울시를 점령하였습니다.

92) 洪學智, 「抗美援朝戰爭回憶」(北京: 解放軍文藝出版社, 1990), 홍인표 역, 「중국이 본 한국전쟁」(고려원, 1992), p. 28; 張希 「彭德懷受命率師 抗美援朝的前前後後」, 「中共黨史資料」 31號(1989년 10월), p. 123. 홍학지에 따르면 박헌영은 친서를 들고 직접 북경으로 와서 모택동과 주은래를 만나 중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다른 자료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93) 柴成文·趙勇田, 「板門店談判」(北京: 解放軍出版社, 1989), p. 80.

94) 이 희귀한 전문(電文)의 내용은 필자가 아는 한 최초 葉雨蒙의 「黑雪; 出兵朝鮮記實」(1989), pp. 48-50에 공개되었다. 이 책의 국역은 1991년 출판되었는 바 [국역, 안몽필 옮김, 「검은 눈」(행림출판, 1991), pp. 69-71.] 거기에도 역시 전문(全文)이 실려있다. 葉雨蒙 저서의 신판인 「出兵朝鮮-抗美援朝歷史記實」(北京: 北京十月文藝出版社, 1990), pp. 39-40 [국역, 김택 옮김, 「아, 압록강(1); 흑설」(여명출판사, 1996), pp. 59-60.]에도 역시 이 전문의 내용이 그대로 실려있다.

필자는 최근 중국 단둥의 항미원조전쟁기념박물관에 보관되어있는 이 편지의 원문(위의 본문인용내용)을 입수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물론 내용은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공개된 문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상세한 표현은 크게 다른 부분이 적지않다. 원문을 입수하여 제공해준 이종석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전황은 참으로 엄중합니다. 우리 인민군은 상륙침입한 미군진격을 대항하여 용감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선에는 우리에게 참으로 불리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적은 약 천대의 각종 항공기로 매일 주야를 구분하지 않고 전선과 후방 할 것 없이 마음대로 폭격을 부절히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편으로부터는 그를 대항할 항공기가 없는 조건하에서 적들은 참으로 공군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각 전선에서는 백여대 편성의 항공부대의 엄호하에서 적의 기계화부대들이 활동하며 또한 특히 우리 부대들을 저공비행으로 다수 살상합니다. 후방에서 적의 항공기들은 교통, 운수, 통신기관들과 기타시설들을 마음대로 파괴하여 적들의 기동력이 최대한도로 발휘되는 반면에 우리 인민군 부대들의 기동력은 약화바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전선에서 우리가 체험한 바입니다. 적들은 우리 군부대들의 교통, 운수, 연락망을 차단하고 진격을 계속하여 인천방면으로 상륙한 부대들과 남부전선에서 진격하던 부대들이 연결됨으로 서울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 남반부에 있는 우리 인민군 부대들은 북반부로부터 차단되고 남반부전선에 있는 부대들도 여러 토막으로 차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군부대들은 무기와 탄약 등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 개 부대들은 서로 분산되어있으며 그중 일부는 적에게 포위되어있는 형편에 처하여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완전히 점령된다면 적은 38도선을 넘어 북조선을 침공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급일과갓튼 불리한 조건을 계속해야가지고 있게되면 적의 침입은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운수, 공급문제를 해결하고 기동력을 보장하자면 무엇보다도 해당한 항공력을 가져야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임이 준비된 비행사들이 없습니다.

친애하는 모동지시여,

우리는 여하한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조선을 비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와 군사기지로 내줄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독립, 민주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서는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않고 싸울 것을 우리는 굳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력을 다하여 새 사단들을 많이 조직훈련하여 남반부에 있는 십여만의 인민군 부대들을 작전상 유리한 일정한 지역에루 수습집결하며 또한 전인민을 총무장하여서까지 장기전을 계속할 모든 대책들을 강구실시합니다.

그러나 적들이 급일 우리가 처하여있는 엄중하고 위급한 형편을 리용하여 우리에게 시간여유를 주지않고 계속 진공하여 38도선을 침공하게 되는 때에는 우리의 자체의 힘으로써는 이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

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의 특별한 원조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적군이 38도선 이북을 침공하게 될 때에는 약속한 바와같이 중국인민군의 직접 출동이 절대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의견을 당신에게 제이(제외)하게 되노니 이에 대한 당신의 회답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일성 박헌영

1950년 10월 1일 평양시

그동안 공개된 편지들과 달리 원문을 통해 볼 때 이 편지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약속한 바와같이”라는 부분이다. 이 표현은 모택동과 김일성·박헌영 사이에 이미 미군과 국군이 38선 이북으로 진격하면 중국군이 참전한다는 데 대한 사전 약속이 되어있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내용이다. 이는 아마도 1950년 5월 13일-16일 사이의 김일성·박헌영의 북경방문시의 토의 내용을 말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당시에 모택동은 미군이 참전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만일 미군이 참전한다면 중국은 병력을 파견하여 북한을 돕겠다.”고 말한 바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소련은 미국측과 38선 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기 때문에 전투행위에 참가하기가 불편하지만 중국은 그러한 의무가 없으므로 북한을 도와 줄 수가 있다”고 까지 첩언하였다.<sup>95)</sup> 그러나 전쟁 시작 이전의 모택동의 이 언설이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격려성 발언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참전을 약속한 발언이었는지는 추론하기 어렵다. 필자가 이해하기에 진실은 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김일성과 박헌영은 후자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또는 중국과 북한 사이에 미군의 참전에 따른 또다른 비밀약속을 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나 아직 그러한 약속에 대한 자료나 문건은 확인할 수 없다.

스탈린과 모택동에게의 구원요청이야말로 전세 역전 직후의 김일성과 박헌영의 가장 화급한 사안이 아닐 수 없었다. 10월 9일에도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어 지원을 요청하였다. 편지에서 김일성은 미국침략자들은 전조선 을 장악하여 그것을 장차의 극동지역에서의 자신들의 군사전략기지로 전환시키기 이전에는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급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요청의 내용은, 투쟁이 장기화할 것이라면서 1) 소련에 유학중인 북한 학생 중 200-300명을 비행사로 양성할 것과, 2) 재소 한인교포들로서 전차병 1000명, 비행사 2000명, 통신병 500명, 기술장교 500명을 양성할 것에 대한 허락이었다.<sup>96)</sup> 북한리더십의 이러한 급박한 요구에 대한 스탈린과 모택동의 반응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95) 「한국전쟁관련 러시아외교문서」, pp.10-11;출처,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1권 (나남출판,1996), pp.158-160.

96) "Letter to Stalin from Kim Il-sung and Pak Hon-yong, 29 Sep.1950", JAEAR, Vol.2, No.4(Winter,1993), pp. 456-457.

## 2. 절멸의 위기와 북한리더십 내부갈등의 격화

또 하나 흥미있고도 중요한 점은 위기가 도래하자 리더십 내에 갈등과 분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었다. 먼저 국군이 38선을 넘어 평양을 향해 빠른 속도로 진격해오고있을 때인 50년 10월 8일 김일성과 박헌영은 김일성의 지하 집무실에서 격렬하게 다투었다.<sup>97)</sup> 김일성은 미군의 폭격 때문에 당시에 위장망으로 가린 채 모래주머니로 방탄벽을 쌓은 모란봉 밑의 지하실 집무실에서 집무를 보고 있었다. 이 날은 바로 미군의 38선 진주가 결정된 바로 다음 날로서 김일성과 박헌영은 중국대사 예지량과 시성문이 중국어 참전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리는 모택동의 전문을 전달하려고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 다투고 있었던 것이다. 예지량과 시성문은 이 때 중국이 참전을 결정했음을 알리는 김일성에게 보내는 모택동의 전문<sup>98)</sup>을 갖고 왔던 것이다.

이해하기 어렵게도 외국대사가 왔음에도 중단치 않을만큼 멸망의 화급한 위기에서 둘은 다투고 있었던 것이다. 논쟁점은 산으로 올라가 유격전을 하느냐 마느냐는 문제였다. 김일성은 이를 주장하였고 박헌영은 반대하였다. 박헌영이 나가자 김일성은 “박헌영이 산에 올라가 유격전을 할 결심이 도무지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나 박헌영이 어떤 다른 대안을 제시하였는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마도 그는, 미군에 맞서기에는 유격전으로는 택도 없으니 국제적인 지원의 달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주장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흐루시초프의 회고록에 따르면 김일성이 게릴라 투쟁을 하려 결심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는 슈티코프에게 “산으로 들어가 일본이 조선을 점령했을 때 그들에게 대항하여 수행했던 게릴라전과 같은 방식의 전투를 다시 펴나가겠다”고 했다.<sup>99)</sup>

김일성과 박헌영의 갈등은 다른 전쟁에서도 전세가 역전되면 전쟁을 시작한 쪽에서 대응을 놓고 자주 나타나는 내부 갈등현상의 하나였으나, 그들 둘의 갈등은 1인자와 2인자가 격렬하게 다투고있다는 점에서 매우 보기 드문 일이었다. 그러한 갈등은 하급 수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곤 한다. 서울시 인민위원회 군사동원부 간부로 전세 역전 후 길고긴 북행길에 올랐던 김정기(金定基)에 따르면, 38선을 넘기도 전에 일부 기관과 부대는 내부에서 자충지란이 일어나 남한지역의 산악으로 이동하여 게릴라투쟁을 하거나 은신해있다가 인민군의 제차 남진을 기다리느냐, 아니면 월북하여 북한군과 정부를 따라가느냐는 문제로 논란을 벌이기도 하였다.<sup>100)</sup> 다음 절에서 살펴볼 스탈린과 모택동의 견해차와 미묘한 갈등, 그리고 김일성과 박헌영의 갈등 및 이들 하층에서의 내분과 갈등을 보면 위기시의 인

97) 柴成文·趙勇田, 「板門店談判」, p. 84; 柴成文면담, 1994년 11월 8일. (통역 段超)

98) 「關於 派遣志願軍 入朝作戰問題給 金日成的 電報」(1950년 10월 8일), 「建國以來 毛澤東文稿」, p.545

99) N. Khrushchev, *Khrushchev Remembers - The Glasnost Tapes* (1990), p. 147

100) 김정기, 「필파」(대영사, 1967), pp.58-59.

간 행태는 어떤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즉 상층과 하층의 동일한 주제를 놓고 벌이는 갈등은 국가의 존망과 인간의 생존의 문제가, 그리고 그에 대해 느끼는 위기의식과 대처방법의 선택지가 크게 다르지 않게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일성과 박헌영 자신에 따르면 역전을 당한 직후 북한군 내에서는 국군과 미군이 북진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장교들도 있었다.<sup>101)</sup> 즉 흥미있게도 이들의 북진 여부를 놓고 군대 내에서도 견해가 엇갈렸던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대비책도 역시 갈라져 논쟁을 벌였을 것이다. 경각을 다루는 시각에 그들은 견해가 갈려있던 것이었다. 사실은 김일성과 박헌영이 스탈린에게 보낸 앞의 지원요청 서신도, 면밀하게 검토해보면 그러한 내용이 숨어있었다. “적들이 금일 우리가 처하고있는 엄중하고 위급한 형편을 이용하여 우리의게 시간여유를 주지않고 계속 진공하여 38도 이북을 침공하게 되는 때에는 우리 자체의 힘으로서는 이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의 특별한 원조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적군이 38도선 이북을 침공할 때에는 소련 군대의 직접적 출동이 절대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분석하면 “무조건적으로 지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38선 이북으로 적들이 넘어올 때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이러한 조건은 당시의 전황으로 비추어 패배에 직면한 리더십으로서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부 지원요청이었다. 9월 29일이면 이 시점은 이미 남한군은 모든 북진준비를 끝내놓은 상태였으며, 또 사실 일부는 38선을 월경하기까지 했었던 시점이었고, 미군 역시 북진을 사실상 결정한 이후의 시점이었다. 그렇다면 김일성과 박헌영은 이 시점까지도 미군과 국군이 38선을 월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3개월 전 자신들은 비현실적인 열정으로 밀어부쳐 전쟁을 시작했으면서도, 상대방은 경계선에서 벗어나주기를 바라는 의도는 지극히 낭만적인 판단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었다.

10월의 싸움 한 달 후에도 들은 다시 싸웠다. 이 때는 훨씬 더 격렬했다. 전북한 외무성부상이었던 박길룡에 따르면 50년 11월 7일 10월혁명 기념일에 북한지도부가 피신하여있던 만포진의 소련대사관에서 연회가 있었다.<sup>102)</sup> 당시에 북한의 정부와 군, 주요 기관은 전부 한만국경 부근, 또는 아예 만주로 피신해있었

101) NA, RG242, SA.2012 Item 6/18,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0070호」(1950년 10월 14일). 절대비밀. 뒤에서 상세히 살펴볼 이 희귀한 명령은 김국현에 의해 학계에 소개되었다. Kim Kook-Hun,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Its Rise and Fall, 1945-1950", Ph.D. Thesis, King's College, the University of London, Aug. 1989, p. 179

102) 북한의 공식기록에는 11월 6일 저녁 고산중학교(당시의 고산인민학교) 강당에서 「사회주의 10월혁명 33돐 기념보고회」가 열렸다고 되어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혁명사적지]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81), pp. 43-44] 날짜(11월 6일과 7일)와 장소(고산중학교와 소련대사관), 명칭(보고회와 연회)이 서로 다르나 필자는 이 두 집회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 10월 혁명기념일 집회는 주요 간부들이 전부 모이는 집회였는데 박길룡은 이 때 김책과 함께 그의 차를 타고갔다. 이 때 김일성은 술이 들어가자 박헌영에게 ‘여보, 박헌영이. 당신이 말한 그 빨치산이 다 어디에 갔는가? 백성들이 다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어디로 갔는가?’ 하고 힐난하며 ‘당신이 스탈린한테 어떻게 보고했는가? 우리가 넘어가면 막 일어난다고 당신 그런 얘기 왜 했는가?’ 하고 책임을 추궁하였다.

그러자 박헌영이 불쑥하여 ‘아니, 김일성동지, 어찌해서 낙동강으로 군대를 다 보냈는가? 서울이나 후방에 병력을 하나도 못 두었는가? 후방은 어떻게 하고 군대를 내보냈는가? 그러니까 후퇴할 때 다 독안에 든 쥐가 되지 않았는가?’ 하고 반문하면서 ‘그러니 다 내 책임은 아니다’ 하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은 더욱 심하게 면박을 주었다. ‘야,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무슨 말인가? 만약에 전쟁이 잘못되면 나 뿐 아니라 너도 책임이 있다. 너 무슨 정세판단을 그렇게 했는가? 난 남조선 정세는 모른다. 남로당이 거기있고 거기에서 공작하고 보내는 것에 대해 어찌서 보고를 그렇게 했는가?’ 그러면서 김일성은 대리석으로 된 잉크병을 벽에 던져 병을 박살냈다. 박길룡은 둘의 관계는 ‘이 때 이미 영 틀어졌다’고 진술한다.<sup>103)</sup>(증언 원문그대로)

남한의 정세에 대한 인식과 전쟁과정 중의 대처라는 두 가지 핵심적 문제를 둘러싼 이들의 다툼에 대한 박길룡의 증언은 앞의 시성문의 회고와 증언에 비추어 사실로 보인다. 이 둘은 벌써부터 실패의 책임을 날카롭게 의식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훗날 김일성은 이 문제를 두고 박헌영을 정면으로 공격하였다. 전쟁직후의 그의 다음 진술은 이 문제에 대한 그의 뼈저린 한을 읽게 한다.

우리는 남반부 인민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미국놈과 리승만을 반대하여 일어난다면 미국놈들이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물러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차 반공격시(한국전쟁을 말함- 인용자주) 박헌영은 우리를 속였습니다. 박헌영은 남조선에 20만 당원이 지하에 있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남조선에 당원이 20만은 고사하고 1,000명만이라도 있어서 부산쥬에서 파업을 하였더라면 미국놈이 발을 붙이지 못하였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놈이 상륙하고 진공할 때 전체 남반부 인민이 미국놈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더라면 정세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만일 그때에 남반부의 군중적 기초가 튼튼하고 혁명세력이 강하였더라면 미국놈은 우리에게 달려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sup>104)</sup>

103) 「KBS 다큐멘터리 김일성참모들이 밝힌 6.25비사」 1992년 6월 23일. 박길룡은 소련한인으로 45년에 소련 25군 정치장교로서 입북하여 북한의 주동독대사, 주체코대사를 지내고 외무성 부상에까지 올랐다가 59년의 대숙청 때에 소련으로 망명하였다.

104) 「인민군대의 간부화와 군중 병종의 발전전망에 대하여 - 조선인민군 군정간부회의에서 한 연설」(1954년 12월 23일), 「김일성저작집」9권, pp. 182-183.



김일성은 아예 박헌영이 속여서 전쟁을 실패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이었다. 50년대의 그의 한은 60년대에도 풀리지 않아 박헌영에게 또 한번의 저주를 퍼부었다.

남반부 혁명은 역시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없이 안됩니다. 우리는 제1차 남진 때에 이것을 절실히 체험하였습니다.

미국놈의 고용간첩인 박헌영은 남조선에 당원이 20만명이나 되고 서울에만도 6만명이나 있다고 떠벌었는데 사실은 그놈이 미국놈과 함께 남조선에서 우리당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낙동강 계선까지 나갔으나 남조선에서는 폭동하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 부산까지는 지척인데 만일 부산에서 노동자들이 몇 천명 일어나서 시위만 하였더라도 문제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남반부 인민들이 좀 들고 일어났더라면 우리는 반드시 부산까지 다 해방하였을 것이고 미국놈들은 상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sup>105)</sup>

그러나 정작 남조선 인민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견결히 지지하고, 공화국과 자신에게 굳게 충성을 다 바치고 있다고 항상 강조한 것은 김일성 자신이었다.

위의 다툼에서 박헌영과 김일성의 다음 진술, 즉 ‘다 내 책임은 아니다’와 ‘나 뿐 아니라 너도 책임이 있다. 너 무슨 정세판단을 그렇게 했는가?’라는 말은 특히 중요하다. 이 두 진술은 하나의 내용을 다르게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하나의 문장으로 합쳐질 수 있는 말이다. 즉 이 말을 합치면, 둘의 합의과정에서 김일성이 결정을 주도하였고 박헌영에 대해 남한에 대한 정세를 문의하였으며 박헌영은 그에 대해 긍정/좋다는 사인을 적극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된다. 달리 말하여 김일성이 전쟁의 의사를 갖고 박헌영에게 남한정세를 물었을 때 최소한 김일성이 예상했던 것 이상 낙관적으로 대답했음을 보여주는 문구이다. ‘나 뿐 아니라 너도 책임이 있다’는 말은 한국어에서 자기가 좀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자신이 주도하였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진술이다.

남들의 눈에 보인 이러한 갈등은 보이지 않은 갈등의 극히 일부일 것이다. 추론컨대 김일성과 박헌영이 거의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었다는 점은 전세가 역전되면서부터 이미 북한내부에서는 둘 만이 아니라 지도부 전체 수준에서 서서히 역전에 대한 대응방법, 전쟁실패의 책임을 놓고 격심한 내용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특히 전쟁실패로 인한 권력투쟁의 양상으로 비화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니러니칼하게도 권력의 배분상 이 갈등 시점의 박헌영은 표면적으로는 김일성의 지위 바로 밑에까

105) 「우리 인민군대는 로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계급적 정치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한다」(1963년 2월 8일), 「김일성저작집」17권, p. 130.

지 상승해있었다. 즉 위기를 맞아 권력의 최대 연합-최근 배분(最近配分)을 이루고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때 당 부위원장, 내각 부수상 겸 외무상에다가 군내에서 최고사령관 다음의 인민군 총정치국장까지 맡았다. 인민군내의 당사업을 총책임지는 자리에까지 그를 임명하여 박헌영의 지위를 상승시키고 있음은 김일성이 그에게 상당한 권력을 이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연구는 박헌영이 군사지도자의 지위를 갖고있지 않았던 것으로 단정한다. 그러나 인민군 내부의 비밀 명령서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sup>106)</sup>

뒤에서 보듯이 1950년 10월 김일성과 박헌영은 인민군이 패주하면서 대부분의 부대에서 나타난 자리멀쩡과 명령 거부, 군관들의 도피와 투항, 장병들의 잠적 및 장교에 대한 공공연한 반란, 반당 반공산주의적 행태에 매우 놀랐다. 이 시기 김일성의 명령들은 좋게 말하여 추상(秋霜)같았고 나쁘게 말하여 이성을 잃은 광적인 명령이었다. 결국 김일성과 박헌영은 인민군내의 당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절감하였고 인민군내의 당-정치-사상사업을 총책임지는 총정치국을 창설하였다. 그리고 인민군 총정치국장 자리는 다른 누가 아닌 박헌영이 맡았다. 곧바로 최고사령관 김일성과 총정치국장 박헌영의 공동명령이 내려갔다.<sup>107)</sup> 10월 15일에는 박헌영이 단독으로 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이제 북한은 당-정-의회 뿐만 아니라 군대까지도 김일성과 박헌영이 분점하여 지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시점에 박헌영은 또한 당시의 최대의 현안이었던 중국군 참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군의 참전교섭을 담당했다. 북한은 중국이 참전을 결정한 직후인 10월 8일 내무상 박일우를 심양으로 보내서 참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의 참전이 늦어져 더욱 수세에 몰려 화급을 다투게 되자 박헌영은 김일성과 심하게 다툰 뒤인 10월 15일 김일성의 지시로 직접 중국 심양으로 건너가서 팽덕회와 만나, 적군이 이미 평양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 중국이 곧 출병해달라는 김일성의 요구, 팽덕회동지와 빠른 시일 내에 회담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sup>108)</sup> 물론 이때는 이미 중국이 최종적으로 참전을 결정한 뒤였지만, 당시 북한으로서는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였다. 그것을 박헌영이 맡고 나서 양자가 역할을 분담하고있는 것이었다.

106) NA, RG242, SA2012 Item 6/18,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0070호」(1950년 10월 14일). 절대비밀.

107) NA, RG 242, SA 2012 Item 6/18.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절대비밀. 제 0070호. 1950년 10월 14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박헌영. 이 비밀명령을 통해 볼때 10월 14일에 총정치국장 박헌영이라는 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의 공식 설명대로 10월 21일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을 총정치국으로 개편하는 결정을 하기에 앞서 이미 총정치국이 실제로는 먼저 창설되어 활동하고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니면 박헌영의 직위만 먼저 부여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공식설명은 「김일성저작집」6권, pp. 145-152; 「위대한 수령김일성동지의 전기」2권, p. 286을 참조하라.

108) 張希 「彭德懷受命率師 抗美援朝的前前後後」, 「中共黨史資料」 31號, pp. 152-153.

심각한 위기의 순간에 격렬히 다투면서도 동시에 최고의 임무와 직위를 양분하는 이 어울배반적인 현상은 언뜻 이해되지 않는 한 세트의 기묘한 조합이다. 즉 10월부터 11월 내내 들은 걸으로는 권력과 역할의 근접분점을, 내막적으로는 격렬한 대립과 갈등관계에 놓여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는 나중에 오게되는 박헌영 처형의 중대 분수령이었던 것이고 그 단초는 전쟁의 실패가 예견되는 데서부터 주어졌던 것이다. 10월 8일과 11월 7일의 격렬한 논쟁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시점이 북한 권력재편의 한 정점기였음을 보게된다. 이후 2년간의 몰락기를 거쳐 박헌영은 간첩으로 조작되어 최고의 공산주의자에서 일순간 최대의 반혁명분자라는 비판과 함께 처형되었다.

여기에 김일성과 박헌영이라는 두 공산지도자의 관계의 비밀이 숨어있었다. 둘의 관계는 1950년 10월-11월의 절정기의 관계를 모르면 풀리지 않는다. 한국공산주의운동 사상 가장 커다란 사건의 하나였던 박헌영처단과 남로계열의 몰락의 문제도 전쟁의 초기 과정의 둘의 관계를 모르고는 풀리지 않는다. 즉 위기(목표)의 정도와 필요(역할)의 정도는 일치하였다는 점이다. 위기가 크면 필요성도 크고 목표가 클수록 역할도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위기의 정점을 지나자 힘의 추이가 기울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기울어버리자 한 쪽은 최초의 결정에서의 나머지 반의 역할에 부수되는 책임까지 전부 지게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흥미있게도 상당부분이 사실에 배치되는 조작의 의심을 받고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공식 재판기록에 따르면이라도 박헌영 처형 이유의 3대 범죄의 하나였던 '공화국 정권전복음모행위'에 해당하는 부분 중 전쟁 기간 동안의 범죄 사항에는, 가장 큰 역할을 하였을 이 시기의 활동이나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다. 가능한 한 박헌영의 모든 범죄를 발굴하여 나열하였을 텐데도 다만 전쟁 초기 시기 동안 남한에서의 범죄행위와 1951년 4월 이후의 전복음모만이 나와 있다.<sup>109)</sup> 말을 바꾸면 적어도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기였던 이 때는 김일성이, 비록 그와의 다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헌영의 범죄를 구성할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음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그것은 그만큼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박헌영의 역할이 컸었다는 점, 서로 합심하여 총력 대응을 하고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 3. 38선 북진과 「동아시아공산주의 3각동맹」의 대응(1); 중국의 참전과정

1950년 10월 하순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한국전쟁의 전세는 극적으로 다시

109)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미제국주의 고용간첩 박헌영, 리승엽 도당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권 전복 음모와 간첩사건 공판문헌」(평양: 국립출판사, 1956), pp. 39-52

심각한 위기의 순간에 격렬히 다투면서도 동시에 최고의 임무와 직위를 양분하는 이 어울배반적인 현상은 언뜻 이해되지 않는 한 세트의 기묘한 조합이다. 즉 10월부터 11월 내내 들은 걸으로는 권력과 역할의 근접분점을, 내막적으로는 격렬한 대립과 갈등관계에 놓여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는 나중에 오게되는 박헌영 처형의 중대 분수령이었던 것이고 그 단초는 전쟁의 실패가 예견되는 데서부터 주어졌던 것이다. 10월 8일과 11월 7일의 격렬한 논쟁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시점이 북한 권력재편의 한 정점기였음을 보게된다. 이후 2년간의 몰락기를 거쳐 박헌영은 간첩으로 조작되어 최고의 공산주의자에서 일순간 최대의 반혁명분자라는 비판과 함께 처형되었다.

여기에 김일성과 박헌영이라는 두 공산지도자의 관계의 비밀이 숨어있었다. 둘의 관계는 1950년 10월-11월의 절정기의 관계를 모르면 풀리지 않는다. 한국공산주의운동 사상 가장 커다란 사건의 하나였던 박헌영처단과 남로계열의 몰락의 문제도 전쟁의 초기 과정의 둘의 관계를 모르고는 풀리지 않는다. 즉 위기(목표)의 정도와 필요(역할)의 정도는 일치하였다는 점이다. 위기가 크면 필요성도 크고 목표가 클수록 역할도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위기의 정점을 지나자 힘의 추이가 기울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기울어버리자 한 쪽은 최초의 결정에서의 나머지 반의 역할에 부수되는 책임까지 전부 지게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흥미있게도 상당부분이 사실에 배치되는 조작의 의심을 받고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공식 재판기록에 따르더라도 박헌영 처형 이유의 3대 범죄의 하나였던 '공화국 정권전복음모행위'에 해당하는 부분 중 전쟁 기간 동안의 범죄 사항에는, 가장 큰 역할을 하였을 이 시기의 활동이나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다. 가능한 한 박헌영의 모든 범죄를 발굴하여 나열하였을 텐데도 다만 전쟁 초기 시기 동안 남한에서의 범죄행위와 1951년 4월 이후의 전복음모만이 나와 있다.<sup>109)</sup> 말을 바꾸면 적어도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기였던 이 때는 김일성이, 비록 그와의 다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헌영의 범죄를 구성할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음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그것은 그만큼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박헌영의 역할이 컸었다는 점, 서로 합심하여 총력 대응을 하고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 3. 38선 북진과 「동아시아공산주의 3각동맹」의 대응(1); 중국의 참전과정

1950년 10월 하순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한국전쟁의 전세는 극적으로 다시

109)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미제국주의 고용간첩 박헌영, 리승엽 도당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권 전복 음모와 간첩사건 공판문헌」(평양: 국립출판사, 1956), pp. 39-52

한번 역전되었다. 이제 우리는 중국군이 개입하게 되는 배경과 과정, 요인을 규명하려 한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여 중국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하게 되는 배경과 요인은 역사적으로는 일제하부터의 많은 조선인들의 중국으로의 이주와 항일공동투쟁, 그리고 중국내전과정에서의 북한지도부와 조선인들의 도움이라는 요인이, 전쟁 발발과정에서의 요인으로는 결정과정에서의 중국과 모택동의 개입 및 정신적 군사적 후원이, 직접적으로는 중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위협과 동북지방공격위협이, 그리고 스탈린의 강한 종용과 독촉이 주요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 10월의 중국군의 참전은 중국공산당과 모택동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의도에 의한 결정의 산물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스탈린을 의식한 고도로 전략적인 사고와 치밀한 계산, 불꽃튀는 밀고당김의 산물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최근에 러시아가 선별하여 공개한 소련자료들에는 모택동이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되어 있다. 물론 중국의 정통적 견해들 역시 침략과 국가안보위협에 직면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 모택동과 당지도부가 영명한 정책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전을 결정했다는 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견해는 그동안의 오랜 통설이자 세계 학계의 정설이다시피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사태의 전신을 말하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소련-러시아의 전자의 기도는 이 결정에서의 모택동과 중국의 책임을 키우기 위한 의도의 산물로서, 그러는 동안 자신들의 책임은 면제되기 때문이다. 후자는 중국 정부와 국민 자신들이 존경해마지않는 위대한 모택동과 당중앙의 현명함을 칭송하기 위한 뜻에서이다. 둘은 비록 서로 반대의 뜻에서이지만 모두 모택동과 중국의 자발적 적극성을 강조하는 데서는 동일하다. 이는 역사해석에서 종종 나타나는 자기분열증(schizophrenia)의 전형적인 사례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의 참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한편의 거대한 드라마였다. 중국은 만약에 남한군만이 38선을 넘어 진격하였다면 참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물론 중국정부는 전쟁의 초기부터 참전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온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곧바로 최종 순간까지 중국의 참전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이었다고 해석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1950년 7월 2일 주은래는 주중 소련대사 로신(N.V.Roshchin)을 불러 “만약 미군이 38선을 넘을 경우 중국인민해방군이 조선군인으로 변장해 의용군으로 전쟁에 참전할 것.” “이를 위해 중국지도부는 이미 목단지역에 3개군, 총 12만 병력을 집결시켰다.”며 소련공군이 이 병력을 위해 공중호위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sup>110)</sup> 7월 2일에 벌써 이 정도의 병력을 배치하고 그러한 의사를 문의했다면 그것은 상당히 빠른 시점의 준비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모택동을 비롯한 중국지도부의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표현한다.

모택동의 전문에 대해 7월 5일 스탈린은 “적군이 38도선을 넘을 경우 의용군으로 북조선에 투입시키기 위해 9개 중국군 사단을 중조 국경에 즉각 집결시킨

110) 「6·25 내막: 모스크바 새 증언」 『서울신문』 발간 蘇文書속 秘史(13), 『서울신문』, 1995년 6월 14일.

것은 올바른 판단”이라며 이 병력들에 공중지원을 제공키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신을 보냈다.<sup>111)</sup> 7월 13일 스탈린은 로신을 통해 모택동과 주은래에게 다시 전문을 보내 9개 중국군 사단을 배치하였는지 문의하고는 “배치키로 했다면 우리는 제트 전투기 1개사단, 124대를 보낼 준비가 돼있다”고 약속하였다. 그는 2-3개월 간의 소련조종사에 의한 중국조종사 훈련, 훈련 후의 장비 완전이양까지 언급하였다. 전쟁 초기부터 소련과 중국은 미군과 남한군의 북진과 이에대한 대비를 구상하고의견을 교환하고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로도 모택동은 미군의 상륙작전에 대한 세심한 대비에 대해 누차 강조하고있었다.<sup>112)</sup> 모택동과 스탈린은 7월 초에 이미 미군의 38선 월경이 있을 경우 ‘참전-공군지원’에 합의하고있었던 것이다.

10월 1일 남한군이 38선을 돌파하고 맥아더가 북한에게 무조건항복을 촉구하는 최후 통첩을 보낸 직후 10월 2일 주은래는 주중 인도대사 파니카(Sadar K.M.Panikar)를 외교부로 소환하였다. 그리고는 그는 남한군의 진격은 “하찮은 것”으로 무시해버리면서도 만일 미군부대가 북한영토를 침범한다면 중국은 전쟁에 개입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sup>113)</sup> 미군과 남한군을 분명하게 구별하고있었던 것이다. 이 때는 김일성과 박헌영의 친서가 모택동에게 도착하여 화급한 지원을 요청한 시점이였다.

김일성과 박헌영의 구원요청 친서를 받은 모택동과 중국공산당 중앙은 10월 2일 참전결정을 내렸고, 이를 스탈린에게도 알렸다. 참전결정 쪽으로 몰아간 주도자는 모택동이였다. 10월 1일 김일성과 박헌영의 친서가 도착한 직후 모택동은 당일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의 내용과 주북중국대사관의 보고, 북한의 전쟁형세 등을 논의하였다. 회의는 심각하여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다음 날 10월 2일 오후 3시에 모택동, 주덕(朱德), 유소기(劉少奇), 주은래(周恩來), 고강, 및 총참모장 섭영진(聶榮臻) 등은 다시 회의를 속개하였다. 회의에서 모택동은 “조선의 형세가 이토록 엄중한 때에 이제 출병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출병시각과 누구를 주장으로 삼을 것인가가 문제”라고 말했다. 모택동의 최초 구상은 속유(粟裕)를 총사령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는 병중이어서 불가능했다. 다음으로 생각한 것은 임표(林彪)였으나 그는 칭병을 하여 거절하는데 더하여 미군과의 전쟁을 각오해야하는 출병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였다. 결국 회의는 팽덕회를 총사령으로 결정하면서 출병의 시각을 10월 15일로 결정했다.<sup>114)</sup> 회의에 직접 참여하였던 섭영진이 표현하듯 임표의 칭병과 참전거절,

111) *CWIHP Bulletin, Issues 6-7: The Cold War in Asia* (Winter, 1995/1996), pp. 112-113.

112) 「6·25 내막; 모스크바 새 증언-「서울신문」발굴 蘇文書속 秘史(13)(14)」, 「서울신문」, 1995년 6월 14일, 16일; *CWIHP Bulletin, (Winter 1995/1996); The Cold War In Asia*, pp. 42-46

113) Panikar, *In Two Chinas*, p. 110. Allen S. Whiting, *China Crosses the Yalu*, p. 108에서 재인용.

114) 張希 「彭德懷受命率師 抗美援朝的前前後後」, pp. 124-127.

파병반대, 즉 모택동의 의사거부는 항상 공동결정과 공동투쟁을 전봉으로 삼아왔던 중국공산당의 전통에 비추어 이상한 것이었다.<sup>115)</sup> 그러나 참전치 않으려는 임표의 의사는 완강한 것이었다.

중국내 자료에 따르면 모택동은 10월 2일 중국 공산당의 결정의 내용을 스탈린에게 전문으로 보냈다. “우리는 지원군 명의로 일부 군대를 조선영토에 파견하여 미국과 그 친구인 이승만군대와 싸워 조선동지를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전조선이 미국인에게 점령되어 조선혁명력량이 근본적인 실패를 맛보게 된다면 미국침략자는 장차 더욱 창궐해져 전동방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sup>116)</sup> 그러면서 모택동은 조선영토내에서 미군과 기타 침략군을 섬멸하고 몰아내도록 준비해야하는 문제를 해결해야하고, 중국군대가 조선영토내에서 미군과 싸우고 있는 이상 미국과 중국이 전쟁상태에 들어간다는 선전포고를 준비해야한다고 언급하였다. 각오가 매우 결연함을 읽을 수 있게 한다. 이 두 과제 중 모택동은 우선적인 것은 전자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10월 15일에 남만주에 배치한 12개 사(師)를 출동시켜 북조선의 적당한 지구에 위치시켜 38선 이북의 적과 전투할 계획임을 밝혔다.

10월 4일 개최된 정치국회의에서는 참석자들 대부분이 참전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중국의 곤란한 상황을 들어 출병문제를 신중히 다루어야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택동은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참전반대자들에 대해 “당신들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타국이 위기에 처해있는데 우리가 지켜보고만 있다면 이유야 어찌되었건 우리 마음은 변치않을 것”이라며 그의 마음이 이미 참전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내비쳤다.<sup>117)</sup> 그날 회의에는 지원군 사령관으로 결정된 팽덕회가 서안으로부터 황급히 돌아와 참석하고 있었다. 모택동은 당시 서안에 머물고 있던 팽덕회를 불러올리느라 결정과 동시에 서안으로 비행기를 급파하였던 것이다. 회의 참석 후 팽덕회는 끝없이 떠오르는 생각들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특히 그는 모택동의 위의 말이 자꾸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sup>118)</sup>

10월 4일 모택동은 팽덕회에게 “일단 패전이라도하는 날에는 가까스로 세운 나라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모택동은 역사와 인민앞에 책임을 면치못하게 될 것이다. .... 하지만 싸움은 반드시 해야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김일성이 위급하게 되었는데도 우리가 내버려 둔다면 후에 우리가 위급할 때도 스탈린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모두가 이런다면 사회주의진영이라는 것은 한낱 빈 껍데기일 뿐아니냐고 반문하였다. 그러면서 모택동은 스탈린이 중국공산당

115) Nie Rongzhen, *Inside the Red Star-The Memoirs of Marshal Nie Rongzhen* (Beijing: New World Press, 1988), p. 636

116) 「關於決定派軍隊入朝作戰給斯大林的電報」(1950년 10월 2일), 「建國以來 毛澤東文稿」, pp.539-541

117) 張希 「彭德懷受命率師 抗美援朝的前前後後」, p. 132.

118) Peng Dehuai, *Memoirs of a Chinese Marshal - The Autobiographical Notes of Peng Dehuai* (Beijing: Foreign Languages Press, 1984), pp. 473-474

을 진정한 맑스주의자로 보기보다는 토지개혁이나 주장하는 농민운동가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스탈린의 오해에 대한 반발심의 표현이었다. 모택동에 따르면 스탈린은 공군부대 파견을 승낙했다면서 우리는 지원군임을 내세워 참전하려한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그래야만 미국이 중국에게 공개적으로 선전포고할 수 있는 구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sup>119)</sup>

전날의 회의에서 거센 반대가 있었음에도 10월 5일 팽덕회는 모택동에게 우리에게 술한 곤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은 “거듭 생각한 끝에 모주석께서 내리신 조선을 지원하는 영명한 출병 결단을 옹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적이 조선반도 전체를 점령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에 막대한 위협이 된다”며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다. 모택동은 팽덕회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할 표하여 자신과 분석이 똑같다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속개된 중앙정치국회의에서도 전날과 같은 두 가지 견해의 논란은 계속되었다.<sup>120)</sup> 회의에서 팽덕회는 “출병하여 조선을 돕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패할 경우 기껏해야 해방전쟁의 승리를 몇 년 늦춘 셈만 치면 된다”고 역설하였다. 팽덕회에 이어 모택동은 자신에 찬 어조로 “이제 우리에게 단 한 가지 길 밖에 없다. 적이 평양을 공격 점령하기 전 어떠한 풍파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얼마나 큰 곤란이 있더라도 반드시 조선으로 즉각 출병하여야만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회의가 끝난 후 모택동은 팽덕회에게 열흘의 시간을 주겠다고 최초 입경 예정 시간은 10월 15일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소련공군 지원문제는 주은래가 즉시 모스크바에 가서 스탈린동지와 협상하여 조속히 해결하라고 지시하였다.<sup>121)</sup>

한편 김일성과 박헌영의 전문을 받은 스탈린은 1950년 10월 1일 로신을 통해 모택동과 주은래에게 전문을 보내 참전을 강력하게 종용하였다. 그는 자신이 모스크바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휴가 중인 관계로 조선에서의 사태에 대해 계속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다음과같이 요청하였다. 미국과 전쟁을 수행하도록 동의해놓고는 그 국가가 일방적으로 물리고 있는데도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스탈린의 태도였다; “만약 이 시점에 중국동지들이 북조선에 대한 지원확대를 고려 중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최소한 5-6개 사단을 38도선으로 이동시켜 중국군의 엄호하에 북조선군 병력이 38도선 이북으로 빠지도록 도와주기 바람. 중국군은 물론 중국사령관이 지휘하되 의용군으로 위장하기 바람.”<sup>122)</sup> 그러면서 스탈린은 이 사실을 조선동지들에게는 알리지 않겠다고 첨언하였다. 흥미있는 것은 중국군 참전을 강권하다 시피하면서, 의용군으로 위장하라고 은폐전술까지 충고하고있는 점

119) 葉雨蒙, 「아, 압록강」 1권, pp.61-64.

120) 당시 회의에서의 찬성파와 반대파의 상세한 구성, 주장내용에 대해서는 朱建榮, 「毛澤東의 朝鮮戰爭」(岩波書店, 1991), p. 202를 참조.

121) 張希 「彭德懷受命率師 抗美援朝的 前前後後」, pp. 133-136.

122) 「한국전쟁관련 러시아외교문서」, p.55; 「6·25내막; 모스크바 새 증언-「서울신문」 발굴 소문서속 비사(15)」 「서울신문」, 1995년 6월 21일; *CWIHP Bulletin, (Winter 1995/1996); The Cold War In Asia*, p. 114



이다.

그러나 스탈린의 이 전문에 대해 모택동은 수용불가 입장을 통보하였다. 10월 3일 로신 대사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에 포함된 10월 2일의 모택동의 서신에 그의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들 지도자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전문을 주고 받고있는 것일까? 10월 1일의 전문을 접수했다면서 모택동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처음에 우리는 적이 38도선을 넘어 북으로 진격하는 즉시 수개의 용군 사단을 북조선에 투입할 계획이있음. 그러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런 경우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생각함. 첫째 수개 사단으로는 한국문제를 풀 수 없음.(우리 병력의 장비는 매우 취약해 미군과 싸워 승리할 수 있을 지 의문임.) 둘째 미국과 중국간 공개 충돌이 야기될 것임. 그러면 소련 역시 전쟁에 개입하게 돼 문제가 매우 커짐. 중국공산당의 많은 동지가 매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물론 우리가 병력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북조선동지들로서는 심각한 일임. 하지만 우리가 수개 사단을 보내고서도 적에게 쫓기고 그뿐아니라 미중간 공개 충돌까지 야기한다면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계획 전체가 무산되는 것임. 조선 국민 다수가 불행을 겪게됨. 따라서 지금은 병력 파견보다 전력을 키우며 보다 적합한 시기를 기다리는 편이 더 좋음. 조선으로서는 일단 패배를 하고있으니 전술을 바꾸어 개릴라전을 펴는 게 바람직함. 우리는 현재 당중앙위 전체 회의를 소집 중임. 파병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음. 동지께서 원한다면 주은래와 임표를 비행기편으로 동지의 휴양지로 보내 이 문제를 협의토록 하겠음.<sup>123)</sup>

123) 「한국전쟁관련 러시아외교문서」, p.55; 「6·25내막;모스크바 새 증언」 「서울신문」 발간 소문서속 비사(15) 「서울신문」, 1995년 6월 21일. *CWHP Bulletin*, (Winter 1995/1996); *The Cold War In Asia*, pp.114-116. 중국자료인 앞의 전문(「建國以來毛澤東文稿」)과 소련자료인 이 전문은 내용으로보아 서로 분명히 다른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같은 문제에 대해 같은 날짜에 적극적 참전의사와 불참의사표시라는 정반대의 견해를 담고있어 좀더 정밀한 검토를 요한다. 중국과 소련 자료에서 필자는 아직 상대방 소련과 중국 자료의 내용과 같은 전문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둘 중의 하나는 사실이 아니거나, 아니면 두 개의 전문이 동시에 만들어져 하나만 보내졌을지도 모른다. 또 문건의 발표 여부에 관계없이 스탈린에게 보내진 문서가 러시아에서 공개된 후자였다는 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모택동의 진의에 관계없이 스탈린에게 실제로 전달된 모택동의 의사는 불참의사였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후자가 1950년 6월의 전쟁개시결정 당시와 동일한 실제의 모택동의 의사였으며, 그것이 스탈린과의 밀고당김에서 특정의 이익을 관찰시키기 위한 전략에도 들어맞는 것이었다고 본다. 따라서 1950년 6월과 10월 동일하게 전쟁개시결정과 참전 결정 당시 모택동의 의사는 모두 '내키지 않는 적극적 동의'(reluctant dragon)였다고 할 수 있다. (출처,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권, pp. 215-256, 제5장, 「모택동; 내키지 않는 적극적 동의」)

모택동은 참전을 반대함은 물론 북한으로 하여금 게릴라전을 권고하고있기 까지하다. 로신은 모택동의 답신내용이 중국 지도부가 초기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북진을 결행하고 중국군의 참전이 어려워지자 10월 5일 슈티코프는 상황이 긴박하니 대사관 직원 및 그 가족, 군사고문단 등 소련에서 파견된 인원을 모두 본국으로 철수시키자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그로미코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승인을 받아 소련전문가들의 철수문제를 조선정부와 상의하고싶다는 슈티코프의 제안을 승인하였다. 다음날 국방장관 바실레프스키(A.Vasilevsky)와 그로미코가 스탈린에게 보내는 전문에 첨부된 슈티코프에게 보내는 전문의 내용은 훨씬 더 구체적이었다. ;“1)소련대표부 파견 인원과 전문가 및 그들의 가족을 철수시키는 결정은 이미 지시한 대로임. 2) 북한에 있는 재소한인들의 가족을 철수시키는 문제는 상황에 따라 대사가 결정할 것. 3) 공군사령부 소속 모든 인원들과 소련군사고문단 가족들은 조선영토에서 반드시 철수시킬 것 4) 필요한 경우 재소한인을 포함한 모든 소련 시민들은 소련과 중국영토로 철수시킨다는 대사의 제안에 동의함.”<sup>124)</sup> 매우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철수지시임을 알수 있다. 소련은 이제 완전히 철수를 각오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10월 7일 국제연합에서 국련군의 38선월경을 허용하는 결의안이 총회에서 통과되었고<sup>125)</sup> 월경을 미리 준비하고있던 미국은 곧바로 미군의 38선돌파 명령을 내렸다. 미군 제1기병사단이 38선을 돌파하였으며 다른 미군부대들도 뒤를 따랐다. 미군의 북진이 결정되자 중국의 대응은 급변하였다. 10월 8일 모택동은 중국인민혁명군 군사위원회 주석의 명의로 팽덕회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및 정치위원으로 공식 임명하며 “조선인민과 협동으로 침략자와 싸워 영광된 승리를 쟁취하라”고 명령하였다. 또한 그는 중국인민지원군은 동북행정구를 총후방기지로 삼고 모든 후방공작 병참사무와 조선동지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동북군구 사령관 겸 정치위원 고강(高崗)이 지휘하라고 명령하였다. 모택동은 “중국인민지원군이 조선영토에 진입하면 반드시 조선인민, 조선인민군, 조선민주정부, 조선로동당, 기타 민주당과 및 조선인민의 영수 김일성 동지에 대해 우애와 존중을 표시하고 군사기술과 정치기술을 엄격히 준수하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않았다.<sup>126)</sup>

---

어쨌든 이 상반되는 내용은 당시의 중국과 소련, 그리고 오늘의 중국과 러시아의 이 전쟁 및 중국의 참전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반영하고있는지도 모른다. 이 하나의 사례만 보더라도 양국은 아직도 한국전쟁의 진실의 전모를 밝혀줄 수 있는 자료를 전부 공개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10월 2일의 전문에 대한 최근의 검토로는 김영호, 「한국전쟁과 빼기전략이론의 비판적 고찰」, 한국국제정치학회 1998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발표논문(1998년 5월 30일), p. 11을 참조.

124) *CWHP Bulletin, (Winter 1995/1996): The Cold War In Asia*, p. 117; 『6·25内幕; 모스크바 새 證言』 『서울신문』 발굴 蘇문서속 秘史(11), 『서울신문』, 1995년 6월 8일.

125) *Year Book of the UN, 1950*,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51), pp. 263-265

모택동은 지원군의 파견을 핵심으로하는 이 명령의 내용을 10월 8일 그 날로 김일성에게 전달, 북전의 정세에 근거하여 우리는 지원군을 조선영토에 파견하여 침략자에 반대하는 당신들을 돕기로 결정했다면서 “땡덕회와 고강이 금일 북경에서 심양으로 가니 박일우를 심양으로 파견하여 두 동지와 만나 중국인민지원군의 조선영토내의 전투에 관련된 문제를 상의토록 해달라”고 주문하였다.<sup>127)</sup> 같은 날 곧바로 대사 예지량과 시성문은 이 전문을 김일성에게 전달하였다.<sup>128)</sup> 땡덕회에게의 명령과 김일성에게의 전달을 동시에 집행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날로 모택동은 주은래를 소련으로보내 스탈린을 만나 중국군 참전에 따른 공군 지원 및 무기 장비구입문제를 협상하도록 조치했다.<sup>129)</sup> 삼면(三面) 동시 대응이었다.

김일성은 10월 8일 저녁 곧바로 박일우를 심양으로 파견하여 이들을 만나 참전에 따른 여러 문제와 구체적 절차를 상의토록 하였다.<sup>130)</sup> 하루를 다투는 긴박함이 느껴진다. 박일우는 중국인민지원군이 빨리 출동했으면 좋겠다는 김일성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그리고는 그는 그날 밤으로 바로 신의주로 돌아갔다. 다음날인 10월 9일 땡덕회는 군단장급 이상의 간부들을 모아놓고 심양에서 회의를 열었다. 땡덕회에 따르더라도 원래는 입포가 부대를 이끌고 참전하기로 되어있었는데 몸이 아프다고 하는 바람에 자신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었다.<sup>131)</sup> 회의에서 땡덕회는 입조 후 일단 근거지를 확보해서 상대를 섬멸시키는 기지로 삼자며, 조선의 지형상 과거 국내전쟁에서 사용했던 기동전으로는 안되니 기동전과 진지전을 적절하게 섞어서 전투에 임하자고 지시하였다.<sup>132)</sup>

반면에 스탈린은 이 시점에 상반되는 내용의 전문을 김일성에게 보내고 있었다. 그는 모택동의 참전거절로 인해 10월 8일 김일성에게 지원에 대한 해답은 없이 다음과같은 전문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내용을 볼 때 모택동에게도 재차 강력한 파병요청 서신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답신이 늦어진 것은 이 문제를 놓고 중국동지들과의 협의가 계속되었기 때문임. 10월 1일 본인은 모택동에게 최소한 5-6개 사단을 즉시 조선에 파병하라고 요청했음. 모택동은 소련을 전쟁에 끌어들이지 않고싶다며 이 부탁을 거절했음. .... (어에) 본인은 다음 편지를 그에게 보내 응답하였음. ....중략.....

126) 「關於組成中國人民志願軍的命令」(1950년 10월 8일), 「建國以來 毛澤東文稿」, pp.543-544

127) 「關於 派遣志願軍 入朝作戰問題給 金日成的 電報」(1950년 10월 8일), 「建國以來 毛澤東文稿」, p.545.

128) 柴成文·趙勇田, 「板門店談判」, p. 84

129) 張希 「彭德懷受命率師 抗美援朝的前前後後」, p. 142

130) 葉雨蒙, 「아 압록강」1권, p.91; 洪學智, 「중국이 본 한국전쟁」, p.36. 일부 자료에는 당시에 박일우가 심양에 상주하였다고 나와 있기도 하나 중국군 참전 이전부터 그곳에 상주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131) 홍학지, 「중국이 본 한국전쟁」, p. 32.

132) 홍학지, 「중국이 본 한국전쟁」, p.37

1) 조선사태에서 볼 수 있듯 미국은 현재 대규모 전쟁을 치를 준비가 안 돼 있음. 2) 일본은 아직 군사적 잠재력의 복구가 안돼 미국에 군사원조를 할 여력이 없음. 3)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소련의 지원을 받는 중국에게 양보할 수 밖에 없으며, 조선문제의 그러한 해결 조건에 동의할 것이고 따라서 적들이 조선을 자신들의 (침략)기지로 삼을 가능성도 주지않을 것임. 4) 같은 이유로 미국은 대만을 포기해야될 뿐만 아니라 일본 반동들과의 단독평화 구상을 버려야할 것임. 덧붙여 일본군국주의를 부활시켜 일본을 극동에서의 자신들의 (침략)기지로 전환시키려는 계획 역시 포기해야함.”

스탈린은 그러면서 아예 다음과 같이 지시하다시피하였다.

“중국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정책으로는 이같은 양보를 다 얻어낼 수 없음. 심각한 투쟁과 자신들의 힘을 강렬하게 과시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미국은 비록 대규모 전쟁을 수행할 준비가 안돼있다고 하나 자신들의 체면유지를 위해서 전쟁에 임할 지모름. 물론 이를 두려워 할 필요는 없음. 중국은 소련과 상호원조조약으로 연결돼있고 미·영보다 우리가 더 강함. 만약에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수년 뒤가 아니라 지금 하는게 유리함. 몇 년 뒤에는 일본의 군국주의가 재건돼 미국의 동맹 역할을 할 것임.

이 편지에 대한 답신에서 모택동은 10월 7일 나의 편지에 나타난 근본 입장에 대한 동의를 표한 뒤 조선에 9개의 사단을 보내겠다고 하였음. 그러나 지금 당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있다가 보내겠다는 것이었음. 그는 또한 나에게 자신이 파견할 대표단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였음. 물론 나는 그의 대표단을 받아들여 그들과 조선에 대한 상세한 군사지원계획을 토의한다는 점에 동의하였음.”<sup>133)</sup> 그러면서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조국의 존토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점령자들에 맞서 강력히 투쟁해야한다고 격려하여주었다. 소련군사고문단들에게는 철수를 지시하고, 김일성에게는 강력히 맞서 싸우라고 지시하는 것이 스탈린이었다.

10월 9일에는 맥아더는 김일성에게 “북한정부의 이름으로 그대로부터 즉시 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본관은 유엔의 명령을 실시함에 필요한 군사행동을 곧 개시할 것”라고 더욱 위협적으로 경고하였다.<sup>134)</sup> 10월 10일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133) 『6·25내막; 모스크바 새 증언-『서울신문』발굴 소문서속 비사(15)』 『서울신문』, 1995년 6월 21일.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Winter 1995/1996): *The Cold War In Asia*, pp. 116-117. 편지 말미에서 스탈린은 슈타코프에게 극도의 보안상 이 편지를 김일성에게 당신이 직접 읽어주지, 넘겨주지는 말라고 지시하였다.

134) 『한국전란1년지』, p. C122; *FRUS, 1950, Vol. VII, : Korea*, pp. 913-914.

성명을 통하여 국련의 북진허용 결의안을 미국이 조종하는 국련에서 국련의 이름을 도용(盜用)하여 미국이 조선침략전쟁을 확대하는 불법적 결의라고 비난하며 미국의 조선침략전쟁은 그 시초부터 중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었다고 공격하였다. 전쟁확대의 모든 책임은 미국이 져야할 것이라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sup>135)</sup>

마침내 참전이 임박한 10월 11일 팽덕회가 조중 국경도시인 안동에 왔고 다음 날(12일)에는 북한의 내무상 박일우가 팽덕회를 만나 참전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다시 안동으로 왔다. 팽덕회와의 면담에서 박일우는 조선전황을 설명한 뒤, 현재 5만여 병력은 38선 이북으로 철수하였으며 나머지는 남조선에 머물러있다고 전하였다. 그는 설명을 마친 뒤 김일성과 조선로동당을 대표해 보다 빨리 출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sup>136)</sup> 팽덕회와 예하 지휘관들은 입조 직후의 병력배치를 상의하면서 임박한 참전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바로 그날(10월 12일) 저녁 8시 경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전문이 북경으로부터 팽덕회와 고강을 비롯한 참전 지휘부에 날아들었다.“1) 10월 9일 명령은 잠시 집행하지 말 것. 13병단 각부대는 현 위치에서 훈련을 계속하되 출동은 하지 말 것. 2) 고강 동지와 팽덕회 동지는 내일이나 모레 안으로 북경에 와서 나와 면담할 것을 바람.”<sup>137)</sup>

중국측 자료에 따르면 모택동의 급변은 스탈린 때문이었다. 서로 정반대의 설명을 하고있는 것이다. 홍학지에 의하면 스탈린은 소련군을 출동시켜 조선을 지원함으로써 미군과 맞붙는다면 전쟁이 세계로 번져 제3차세계대전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세계의 역학구조를 파괴할지 모른다고 생각했고 때문에 대신 중국이 출병하기를 바랐다.<sup>138)</sup> 그후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쳐 중국이 출병하는 대신 소련측은 공군전투기들을 보내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참전을 결정했고, 10월 2일 이를 스탈린에게 전보로 알렸던 것이다. 그러나 모택동 역시 직접 참전을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최대한 스탈린을 이용하려하였던 것은 사실이었다. 참전을 하겠다고 하였다가 취소하려한 위의 10월 2일의 전문[소련자료]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모택동은 10월 8일 중국인민지원군을 구성하고 팽덕회에게 총사령관을 맡기는 등 최종적 준비를 하고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10월 10일 갑자기 모스크바의 주은래로부터 소련의 공군전투기 출동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니 잠시 출병을 늦추어달라는 통고를 해오면서 사태는 급변하였다.“스탈린의 답변은 현재 소련 공군은 출동준비가 완비되지 못한

135) 「外交部 發言人 關於 聯合國大會 非法通過 八國提案事的 聲明」(一九五零年十月十日), 中國人民抗美援朝總會 宣傳部 編, 「偉大的 抗美援朝運動」, (北京: 人民出版社, 1954), pp. 28-29.

136) 홍학지, 「중국이 본 한국전쟁」, p.40.

137) 「關於十三兵團在原地訓練給彭德懷等的 電報」(1950년 10월 12일), 「建國以來 毛澤東文稿」, p.552 ; 洪學智, 「중국이 본 한국전쟁」, p.41; 葉雨蒙, 「아, 압록강」1권, p.107.

138) 홍학지, 「중국이 본 한국전쟁」, p. 42

상태이므로 잠정적이거나 중국군의 작전을 지원할 방도가 없다고 함. 중앙은 출병 문제를 제고하기 바람.”<sup>139)</sup> 그날 사실 팡덕회는, 월경(越境) 참전은 기정 사실화한 채 모택동의 지시인 10월 15일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김일성과 직접 만나 해결할 구체적인 문제가 많아 내일 입조하여 김일성이 머무르고 있는 덕천으로 가겠다”는 긴급 보고전문을 모택동에게 보낸 상태였다.<sup>140)</sup>

홍학지가 전하는 팡덕회의 전언에 따르면 스탈린이 전환한 진정한 이유는, 공군출병의 준비부족이 아니라 중국이 이 전쟁에서 과연 미군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출병을 늦추게 한 이유였다는 것이다. 즉 스탈린은 만일 소련이 전투기를 지원해 중국군을 옹호했다가 중국군이 패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말려들어 미국과 전면전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심지어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던 것이다. 실제로 소련공군의 참전은, 중국군이 참전한 10월 19일보다도 10일 이상이나 늦은 11월 1일부터였고, 미군과 전투에 돌입한 것은 11월 8일부터였다.<sup>141)</sup> 공군의 특성상, 그리고 스탈린이 즉각적인 참전을 결심하였다면 오랜 준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은 참전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 사이 동안에도 스탈린은 계속 망설였던 것이다.

스탈린의 급변에 모택동과 중공 중앙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여 일단 앞서처럼 10월 12일 병력출병을 중지시킨 채 주은래와 스탈린의 회담결과를 기다렸다.<sup>142)</sup> 그리고는 팡덕회와 고강을 북경으로 불러들였던 것이다. 중국자료에 따르면 주은래는 스탈린을 만나 생각을 바꾸도록 설득했으나 실패했다. 아직 다른 자료를 통해 교차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국기록에 나와있는 대화내용을 보자.<sup>143)</sup>

“우리 소련공군은 출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르면 국경이 애매해집니다. 자칫 우리와 미국간에 충돌사태가 빚어지면 크게 번질 것이 뻔합니다.”(스탈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소련 조종사들이 중국지원군의 복장을 하고 참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공권의 문제나 소미간의 직접적인 군사충돌도 피할 수 있을 겁니다.”(임표)

139) 葉雨蒙, 「아 압록강」 1권, p.118; 張希 「彭德懷受命率師 抗美援朝的 前前後後」, p. 147

140) 張希 「彭德懷受命率師 抗美援朝的 前前後後」, pp. 146-147.

141) Jon Halliday, “Secret war of the top guns” *The Observer* 5 July 1992, pp. 53.: “Air Operations in Korea: The Soviet Side of the Story”, in William J. Williams ed., *A Revolutionary War: Korea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Postwar World* (Chicago: Imprint Publications, 1993), pp. 149-170

142) 洪學智, 「중국이 본 한국전쟁」, p.44.; 葉雨蒙, 「아 압록강」, p.119. 홍학지와 엽우몽은 이 때에 주은래가 모스크바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장희는 10월 8일로 기록하고 있다.

143) 葉雨蒙, 「아, 압록강」 1권, pp.128-129.

“하지만 조종사가 포로로 잡힐 경우 그의 몸에 걸쳐진 중국 인민지원군 복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이번 모스크바 방문은 한국전 참전 유보를 통보하기 위해서 입니까?”(스탈린)

“그렇습니다. 스탈린동지, 소련공군의 측면지원이 없다면 우리는 출병을 보류할 수 밖에 없습니다.”(주은래)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 사실을 김일성에게 통보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울러 동북지구 통화에 망명정부를 세우라고 권할 수도 있겠지요.”(스탈린)

“김일성이 빨치산을 거느리고 산으로 숨어들어 유격전을 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북조선은 산이 높고 수림이 울창한데다 중국의 동북지구를 등에 업고 있어서 유격전을 펼치기에는 안성맞춤이지요. 아무튼 혁명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스탈린 동지”(임표)

한 기록에 따르면 스탈린과 주은래의 회담은 10월 9일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계속되었다.<sup>144)</sup> 홍학지는 이 부분을 “스탈린은 공군지원 약속이라는 당초의 약속에 대해 확답을 얹고 얼버무렸다. 모택동은 이 소식을 듣고는 더 이상 소련공군의 지원을 기대하지 않은채 참전의 결단을 내렸다”고 기록하고있다.<sup>145)</sup> 급박하게 전개되는 상황에 비추어 모택동으로서는 소련의 지원을 기다리며 마냥 비룰 수 만은 없었다. 10월 13일 오후 중공 중앙은 긴급 정치국 회의를 열어 최후의 대논쟁을 벌였다. 결론은 소련공군의 지원이 없더라도 즉각 지원군을 출동시켜야한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섭영진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모택동은 “피를 말리는 심사숙고 끝에” 결단을 내렸다.<sup>146)</sup>

바침내 모택동은 그날 10월 13일 스탈린을 방문중인 주은래에게 긴급 전문을 보내 참전결단 사실을 알렸다.“1) 정치국 동지와 상의한 결과 아군이 조선에 출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모두 생각했다. 처음에 괴뢰군을 집중 타도해야한다. 왜냐하면 아군이 괴뢰군에 대항하는 것이 성공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원산 평양 선 이북의 산악지대에 근거지를 구축해야한다. 2) 우리가 상술한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면 중국 조선 동방과 세계에 대해 모두 매우 유리하다. 그러나 우리가 출병하지 않고 적이 압록강까지 밀려오도록 내버려 두면 국내 국제 반동의 기세가 증가되어 각방면에서 모두 불리해질 것이다. 무엇보다 동북쪽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전체 동북 변방군을 흡수하게 될 것이며 남만주의 전력은 그들에 의해 통제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마땅히 참전해야하며, 반드시 참전해야한다. 참전의 이익은 크며 참전하지 않는 손해는 더욱 크다.”<sup>147)</sup>

144)張希「彭德懷受命率師 抗美援朝的 前前後後」, pp. 147-148.

145)홍학지,「중국이 본 한국전쟁」, p.44

146)張希「彭德懷受命率師 抗美援朝的 前前後後」, p. 150.

결국 모택동을 비롯한 중국지도부는 고뇌어린 변민 끝에 국가 안보에 대한 고려와, 스탈린의 끈질긴 권고를 받아들여 참전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거기에는 북한에 대한 배려 역시 없지않았다. 비록 마지막 순간에 스탈린이 공군지원을 주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택동은 참전을 종용하는 그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참전을 하더라도 공군의 지원이 약속된 대로 이행되면서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터이지만, 그것이 비록 불가능하더라도, 참전 자체를 거부하는 쪽보다는 참전을 결행하는 쪽으로의 승부수를 던졌던 것이다.

주은래는 모택동의 전문을 받고는 재차 스탈린을 만나 이 사실을 통보했다.<sup>148)</sup> 동시에 10월 13일 북경의 로신으로부터도 모스크바로 급박한 전문이 날아 들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가 조선문제를 재검토, 중국군의 불충분한 장비에도 불구하고 조선동지들에게 군사지원을 확대키로 결정했다고 모택동이 본대사에게 말했다. 모택동은 말하기를 ‘우리의 지도적 동지들은 만약 미군이 중국국경까지 진출할 경우 조선은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지대가 될 뿐아니라 동북아시아는 계속 심각한 위협하에 놓이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음. 이전에 망설인 것은 국제정세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안 섰고 또한 소련으로부터 공군지원여부에 대한 의문 때문이었다고 함. 모택동은 이런 의문들이 풀렸기 때문에 병력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1차로 9개사단을 보내고 아울러 2차파병을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했음. 모택동은 자기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중 지원이라고 했음.”<sup>149)</sup> 신생 중국의 한국전 참전 및 미군과 한판 승부를 위한 세기적 결단은 이제 마지막 고비를 넘고있었던 것이다.

10월 12일 김일성에게 전문을 보내 모택동이 파병을 거부했음을 알리며 북한영토에서의 철수를 지시했던 스탈린은 13일 곧바로 다시 전문을 보내 중국지도부의 참전 결정사실을 통보하고 ‘철수보류’를 지시하였다. 중국이 참전을 머뭇거리자 10월 12일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전문을 보내 중국과 소련으로의 완전 철수를 지시하였었다. “저항을 계속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함. 중국 동지들은 군사개입을 거부하고있음. 이런 상황에서 귀하는 중국·소련으로 완전 철수를 준비해야 함. 모든 병력과 군사장비를 모두 가지고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와 관련한 활동계획을 상세히 보고할 것. 향후 적과 맞서 싸우기 위한 역량을 유지시켜야 함.”

슈티코프는 이 전문을 김일성과 박헌영에게 즉각 전달하였다. 다음날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에 따르면 김일성과 박헌영은 불만은 많지만 수용

147) 「關於我軍應當入朝參戰給周恩來的電報」(1950년 10월 13일), 「建國以來 毛澤東文稿」, p.556.

148) 洪學智, 「중국이 본 한국전쟁」, p.45; 葉雨蒙, 「아, 압록강」 1권, pp.137-138.

149) 6/25내막; 모스크바 새 증언 「서울신문」 발굴 소문서속 비사(15) 「서울신문」, 1995년 6월 21일; CWIHP Bulletin, (Winter 1995/1996); The Cold War In Asia, pp. 118-119. 모스크바에서 이 전문을 수령한 시간은 현지시간으로는 14일 01시 38분이었다.



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들로서는 부득이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10월 13일 김일성과 박헌영을 만났음. 김일성과 박헌영은 이 전문내용을 듣고 의외라는 반응이었음. 그러나 김일성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절정이기는 하지만 스탈린 동지가 그런 충고를 한다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답했음. 김일성은 스탈린의 충고를 다시 한 번 읽어달라고 요청한 뒤 박헌영에게 이를 받아 적도록 지시했음. 김일성은 이와 관련한 준비작업에 필요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음.<sup>150)</sup> 김일성은 완전 철수를 각오하고 준비에 착수하려하였던 것이다. 북전에 대한 대처방법을 둘러싼 10월 8일의 김일성과 박헌영의 심각한 갈등이 닷새만에 스탈린의 전문지시로 간단하게 해결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음날 전혀 다른 전문이 다시 도착하였다.; “본인은 방금 모택동으로부터 중국공산당 중앙위가 상황을 재검토하여 중국군의 불충분한 무장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선동지들에게 군사지원을하기로 결정했다는 전문을 받았음. 나는 이 문제와 관련한 모택동 동지로부터의 상세한 보고를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어제 귀하께 보낸 전문에서 지시한 북조선으로부터의 철수와 병력의 북쪽으로의 후퇴는 잠정적으로 이행을 보류함.” 그리고는 10월 14일에 김일성에게 다시 전문을 보내 스탈린은 중국군 참전에 관한 최종 결정이 이루어졌다면서, 중국동지들을 만나 중국군 참전에 관한 구체적 문제들을 해결하라며 중국군에 필요한 무기는 소련으로부터 제공될 것임을 알렸다.<sup>151)</sup>

10월 14일 팽토회는 중국인민지원군 사단급 이상 간부 동원대회에서의 강연을 통해 “지금 조선의 전세는 아주 심각하다. 우리는 형제당인 조선로동당과 인민이 침략당하고 있으며 또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하나에 대해 중앙부처에서 거듭된 토론과 고려를 해서 ‘그냥 뇌둘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렸다. 중앙 부처의 이 결정은 매우 타당하고도 정확하다.”며 “우리는 공산당원이며 국제주의자다. 이번 조선에 파병하여 조선인민과 형제당을 돕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결론지었다.<sup>152)</sup> 결국 전략과 전술, 지략과 음모, 밀고당김과 치고빠짐, 분할통치와 직접 상대가 복잡하게 교차하면서 일키고설키어 반복되던 참전을 둘러싼 클라이막스는 이렇게 끝났던 것이다. 그것은 사실 전혀 다른 새 국면으로의 진입을 의미했다.

그러나 참전이 임박한 이 최종 순간까지도 팽토회는 아직 참전과 불참의 논의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음을 솔직히 토로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당내에서 아직도 많은 시각차가 있으며 동지 여러분들은 모두 당원이기 때문에 만일 다른 의견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토론해주시기 바란다. 지금은 두 가지 의견이 있다. 하나는 파병불가, 또는 잠시 동안 파병을 앓는다는 주장이다. 그 이유는

150) 「6·25 내막: 모스크바 새 증언」 「서울신문」 발굴 蘇文書속 秘史(12), 「서울신문」, 1995년 6월 10일.

151) *CWIHP Bulletin, (Winter 1995/1996): The Cold War In Asia*, p. 119.

152) 「在中國人民志願軍節以上 幹部動員大會上的講話」, 彭德懷傳記編寫組, 「彭德懷軍事文選」,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88), pp. 320-327.

1) 우리의 전쟁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못했으며 2) 우리의 토지개혁정책이 아직 완수되지 못했고 3)국내에 있는 토비(土匪,국민당 공비)와 첩자들을 아직 철저히 소탕하지 못했으며 4) 군대 방비와 훈련이 아직 충분치 못하며 5) 일부 군대와 국민에게 염전(厭戰)정서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직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잠시 동안 군대를 파견하지 말자는 주장이다. 또다른 주장은 파병해서 적극적으로 조선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준비만이 충분치 못할 뿐만 아니라 적의 준비도 충분치 못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미제의 준비는 더욱 부족하다는 것이다.”<sup>153)</sup>

실제로 참전을 둘러싼 토론의 과정에 참여하였던 주경문(周鯨文)에 따르면 참전성명 이후에도 중국은 격한 논쟁에 빠져들었다. 그에 따르면 “북경정부는 조선전쟁을 좌시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한 다음에 북경의 고급 간부는 나까지 포함하여 참전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수일 동안 열렬한 토론을 하였다.”<sup>154)</sup> 격렬한 논쟁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찬성자의 이유는 그것은 반침략전쟁이며 조선과 중국은 운명치한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반대자의 이유는 혁명정권이 수립된지 아직도 일천한즉슨 국내건설에 몰두해야만 될 것이고 또 적은 강대한 미국이니만치 대외전쟁은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쟁이 있었다는 사실은 모택동을 비롯한 최고지도부가 사전에 이에 대한 정해진 입장을 명확히 갖고있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즉 참전 결정은 미리 결정된 방침은 아니었던 것으로서 사태의 추이에 따라 대응방식을 결정한 것이었다. 그들은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주경문의 표현에 따르면 모택동은 이 참전에 대해 “3일 낮밤에 걸쳐 방안을 오락가락하면서 사색했다.”<sup>155)</sup> 이는 그가 얼마나 고민을 거듭하였는가를 보여준다.

#### 4. 38선 북진과 「동아시아공산주의 3각동맹」의 대응(2); 중국의 참전분석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에 따를 때 김일성과 박헌영의 구원요청에 대해 스탈린과 모택동이 보인 반응은 하나가 아니었고 또 일관되지도 않았다. 먼저 스탈린의 반응 중에는 북한포기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포함되어있었다. 자신이 동의하고 지원하여 전쟁을 개시한 그들을 망하게 내버려두려는 의도였다. 최초에는 스탈린

153)「在中國人民志願軍師以上 幹部動員大會上的 講話」, pp. 320-327.

154)Chow Ching-wen(周鯨文), *Ten Years of Storm-The True Story of the Communist Regime in China*, 김준엽역, 「공산정권하의 중국」(서울:문명사, 1985), p. 157.

155) Chow Ching-wen, 「공산정권하의 중국」, p. 158. 葉雨蒙 역시 같은 표현을 쓰고있는 것이 흥미롭다. 「아, 압록강」1권, p. 131

1) 우리의 전쟁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못했으며 2) 우리의 토지개혁정책이 아직 완수되지 못했고 3)국내에 있는 토비(土匪,국민당 공비)와 첩자들을 아직 철저히 소탕하지 못했으며 4) 군대 방비와 훈련이 아직 충분치 못하며 5) 일부 군대와 국민에게 염전(厭戰)정서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직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잠시 동안 군대를 파견하지 말자는 주장이다. 또다른 주장은 파병해서 적극적으로 조선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준비만이 충분치 못할 뿐만 아니라 적의 준비도 충분치 못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미제의 준비는 더욱 부족하다는 것이다.”<sup>153)</sup>

실제로 참전을 둘러싼 토론의 과정에 참여하였던 주경문(周鯨文)에 따르면 참전성명 이후에도 중국은 격한 논쟁에 빠져들었다. 그에 따르면 “북경정부는 조선전쟁을 좌시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한 다음에 북경의 고급 간부는 나까지 포함하여 참전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수일 동안 열렬한 토론을 하였다.”<sup>154)</sup> 격렬한 논쟁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찬성자의 이유는 그것은 반침략전쟁이며 조선과 중국은 운명치한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반대자의 이유는 혁명정권이 수립된지 아직도 일천한즉슨 국내건설에 몰두해야만 될 것이고 또 적은 강대한 미국이니만치 대외전쟁은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쟁이 있었다는 사실은 모택동을 비롯한 최고지도부가 사전에 이에 대한 정해진 입장을 명확히 갖고있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즉 참전 결정은 미리 결정된 방침은 아니었던 것으로서 사태의 추이에 따라 대응방식을 결정한 것이었다. 그들은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주경문의 표현에 따르면 모택동은 이 참전에 대해 “3일 낮밤에 걸쳐 방안을 오락가락하면서 사색했다.”<sup>155)</sup> 이는 그가 얼마나 고민을 거듭하였는가를 보여준다.

#### 4. 38선 북진과 「동아시아공산주의 3각동맹」의 대응(2); 중국의 참전분석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에 따를 때 김일성과 박헌영의 구원요청에 대해 스탈린과 모택동이 보인 반응은 하나가 아니었고 또 일관되지도 않았다. 먼저 스탈린의 반응 중에는 북한포기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포함되어있었다. 자신이 동의하고 지원하여 전쟁을 개시한 그들을 망하게 내버려두려는 의도였다. 최초에는 스탈린

153)「在中國人民志願軍師以上 幹部動員大會上的 講話」, pp. 320-327.

154)Chow Ching-wen(周鯨文), *Ten Years of Storm-The True Story of the Communist Regime in China*, 김준엽역, 「공산정권하의 중국」(서울: 문명사, 1985), p. 157.

155) Chow Ching-wen, 「공산정권하의 중국」, p. 158. 葉雨蒙 역시 같은 표현을 쓰고있는 것이 흥미롭다. 「아, 압록강」1권, p. 131

역시 북한을 지원하는 방향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은 빠지고 중국의 직접 참전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불 다 고너를 보여주었으나 특히 모택동은 큰 변만을 하였다. 스탈린은 다른 나라 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깊은 변변없이 처리하는 유형이었다.

호루시초프에 따르면 폐배의 위기에 직면한 김일성과 박헌영의 요구를 받고 새로운 지원을 하여야 되지 않느냐는 건의에 대해 스탈린은 “김일성이 폐배한다고 해도 우리 군대를 참전시키자는 않을 것이요. (망하더라도) 내버려 두시오. 이제 미국이 북동에서 우리의 이웃이 되게 합시다”<sup>156)</sup>(괄호는 추가)고 말하였다. 북한을 버림으로써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 그것이 스탈린의 이 시점의 목적이었다. 여기에는 1950년 봄 전쟁을 동의할 때의 주저와는 다른 단호함이 서려 있다. 즉 전쟁을 허가하였으면서도 김일성과 북한을 버림으로써 미국에게 자신들을 끝까지 개입하지 않았음을 인지시키려 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다른 몇몇 증인 역시 호루시초프의 진술이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진의(陳毅)에 따르면 비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조선에서의 정세가 위급해지자 스탈린은 “김일성동지는 장래 중국 국경내에 망명정부를 수립할 것”이라고 중국측에 통보해왔다.<sup>157)</sup> 모택동과 주은래의 통역원으로 평생 종사해온 사첵(師哲) 역시 최근에 스탈린이 1950년 가을 북한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주은래가 모택동의 화답한 지시로 임포를 대동하고 스탈린을 만나러 갔을 때 스탈린은 그 자리에서 “북한동지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없다면 그들은 일주일 밖에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쓸데없는 희생을 할 필요가 있는가? 망장 그들을 후퇴시켜 중국 동북지역으로 철수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첵에 따르면 스탈린은 이어 노약자와 부상자들을 소련이 받아들이겠다면서 “내 생각으로는 시간을 끌지 말고 김일성에게 아같은 내용을 통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sup>158)</sup> 사첵의 이 증언은 앞의 주은래와의 대화를 말할 것이다. 그는 북한을 이미 버릴 구상을 굳혔을 뿐만 아니라 사후처리방침까지 준비하고있었던 것이다.

호루시초프(Nikita Khrushchev), 陳毅, 師哲의 동일한 증언,<sup>159)</sup> 그리고 스탈린과 주은래의 대담기록, 최근 공개된 일련의 소련 전문 및 중국자료 등 관련 핵심자료에 따르면 스탈린은 모택동의 최종 결정이 아니었으면 결국은 북한을 버렸을 것이 분명했다. 낱짜벌로 되어있는 소련의 최근 전문들은 이러한 스탈린의 태도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에게 김일성과 박헌영의 지원요청을 직접 들이준 위문 조급도 없었던 것이다. 물론 스탈린의 후퇴지시는 모택동의 참전결정

156) Nikita Khrushchev, *Khrushchev Remembers - The Glasnost Tapes*(1990), p. 147.

157) 姚旭, 「抗美援朝的 英明決策」, 이흥영 역,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지원한 현명한 정책」, 『중소연구』 8권 4호, 1984년 겨울, p. 227.

158) 「모스크바-연합통신」, 金興植 특파원 전송문, 1994년 7월 5일.

159) 師哲의 최근 증언은 가장 상세하다. 師哲, 『在歷史巨人身邊-師哲回憶錄』(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5, 修訂本), pp. 495-499.

으로 취소되었지만, 1950년 봄의 전쟁개시 결정에서도 끝까지 뒤로 빠졌듯 긴박한 결단과 긴장된 교섭의 산물이었던 1950년 10월의 중국군 참전시에도 스탈린은 어떻게 해서든 중국을 참전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 직접 참전하여 북한을 구해줄 의사는 없었다. 모택동은 비록 최초에는 주저하고 망설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참전을 하고자 했으나 스탈린은 미국과의 대결을 꺼려 끝까지 주저하였다. 그는 공군지원을 약속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기도하였다. 그는 모택동이 최종적인 참전결정을 내리고 나서야 중국에 대한 공군지원을 동의하게 되었다.<sup>160)</sup>

스탈린은 미군이 한만국경으로 진주하고있던 시점에서까지도 중국의 참전이 아니면 북한을 버리면서까지도 직접 참전하는 길은 결코 택하지 않을 만큼 미국과의 정면 대결은 극력 회피했던 것이다. 주경문은 간단하게 말해 “최후는 역시 모스크바의 결정을 실행하기로 했다”고 기록하고있다.<sup>161)</sup> 그에게는 모택동의 결정이 스탈린의 결정을 따른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훗날 미국의 주요 지도자로는 최초로 중국을 방문한 키신저(Henry A. Kissinger) 역시 중국이 “한국에서 우리와 맞서 소련의 부담을 떠맡았다”고 말한 바 있다.<sup>162)</sup> 그의 눈에는 중국의 참전이 소련을 대신한 것으로 비추어졌던 것이다. 이 점에서 스탈린의 대외정책과 혁명노선에대한 질라스의 지적은 정곡을 찌르고있다.

모스크바는 중국혁명, 스페인혁명, 그리고 유고슬라비아의 혁명이 있어서조차 여러가지 방법으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지지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스탈린은 일반적으로 혁명을 반대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것은 그러나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그는 혁명이 소련의 이익을 넘어서는 정도에 맞추어 단지 조건부로서만 반대하였다. (즉 소련의 반대는 조건부이며 소련의 이익에 해가될 때만 반대하였다.-역주) 그는 본능적으로 모스크바 이외의 곳에 혁명의 중심부가 만들어지는 것을 세계공산주의에대한 그의 최고지도성(supremacy)을 위협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것이, 그가 왜 혁명들을 단지 그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지점까지만 지원하였는가 하는 이유였고, 혁명들이 그의

160) 스탈린-모택동의 관계를 포함하여 중국군참전에 대한 최근 연구로는 Hao Yufan and Zhai Zhihai,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History Revisited" *China Quarterly* 121, Mar, 1990, pp. 94-115; 葉雨蒙, 김택 역, 「아, 압록강」1-3권(여명출판사, 1996); Chen Jian, "The Sino-Soviet Alliance and China's Entry into the Korean War"(1992). The Woodrow Wilson Center,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rking Paper No.1.; 朱建榮, 「毛澤東の朝鮮戰爭」(岩波書店, 1991); Shu Guang Zhang, *Mao's Military Romanticism: China and the Korean War, 1950-1953*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5)을 참조하라. 그리고 朴斗福, 「中共參加韓戰原因之研究」(臺北:黎明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中華民國64年), pp. 99-169도 매우 일찍이 이 주제에 대해 전작한 연구다.

161) Chow Ching-wen, 「공산정권하의 중국」, p. 158.

162) Henry A. Kissinger, *White House Year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9), p. 744

손아귀를 벗어날 때는 그는 언제나 혁명들을 곤경속에 버려둘 준비가 되어있었다. 나는 오늘날에 있어서 조차 이점에 대한 소련정부의 정책에는 근본적 변동은 없다고 주장한다.<sup>163)</sup>

스탈린은 50년 봄의 한국전쟁 결정시에도 역시 이미 먼저동의를 해놓고도 뒤로 빠져 김일성에게 모택동과의 협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한 사람이었다.<sup>164)</sup> 10월 중국군의 참전에 대한 결정방식도 한국전쟁의 개시에 대한 결정방식 그대로의 반복이었던 것이다. 사실상 전쟁을 하게끔, 또 참전하게끔 최고 결정권을 보유, 행사하여 사태를 그곳으로 몰고가고 있으면서도 결국 마지막에는, 최종 순간의 국면에서는 항상 책임을 회피하려 빠지고 남에게 떠넘기는 방식이었다. 그는 오직 미국과의 관계만이 주관심사였다. 그것이 스탈린이 선호한 정책결정 방식이었다.

1950년 가을 이후 소련공군은 한국전쟁에 상당한 병력과 전투기를 투입하였으나 그것 역시 완전한 비밀 속에서 이루어졌다.<sup>165)</sup> 이러한 사실은 물론 1980년대 후반까지 베일에 가리워져 있었으며,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에 이르러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1989년 소련의 「적성」(赤星)지는 도쿠차예프 공군중령의 기고 「한국전에 이런 일이-이젠 이야기 할 때다」를 실어 소련공군이 만주에 기지를 두고 발진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하였음을 처음으로 보도하였다.<sup>166)</sup> 이 기고는 에브게니 G.페넬야예프, 그리고리 로보프, 세르게이 M. 크라마렌코 등 참전 공군 조종사들의 증언에 기초한 것이었다.

한국전쟁에 소련 공군지휘관들로 참전했던 예비역 대장 로보프(Georgi Lobov)와 예비역 대령 플로트니코프(Georgi Plotnikov)의 증언을 기초로한 할러데이(Jon Halliday)의 연구<sup>167)</sup>에 따르면, 항공기는 중국공군기의 색칠을 하였으며 조종사는 중국군 복장을 하였고 중국어를 쓰도록 교육받았다. 로보프는 당시 참전한 소련 공군의 주요 지휘관이었다. 로보프에 따르면 스탈린은 소련공군을 참전시키면서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소련 공군기들을 소련 영토 밖에서 출격시켰다. 소련 공군은 압록강변의 단동에 기지를 두고 있었지만 중국의 지휘를 받지 않았으며 소련의 직접 지시를 받았다.

소련 공군들은 모든 서류를 반납하고 신분증도 없애버렸다. 카키 제킷·오넨

163)Milovan Djilas, *Conversations with Stalin*, p. 132

164)한국전쟁의 결정을 둘러싼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박헌영의 정책 및 입장, 결정과정에 대해서는 줄저,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1권 2장-7장을 참조.

165)이하의 내용은 줄저,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1권, pp.206-213.

166) 이 기고문은 「동아일보」 1989년 7월 11일, 12일자에 실려있다.

167)Jon Halliday, "Secret war of the top guns" *The Observer* 5 July 1992, pp. 53.: "Air Operations in Korea: The Soviet Side of the Story", in William J. Williams ed., *A Revolutionary War: Korea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Postwar World* (Chicago; Imprint Publications, 1993), pp. 149-170

지색 구두 등 중국군 복장으로 갈아입었다. 상의에는 단지 스탈린과 모택동의 열굴이 새겨진 배지만 달았다. 은폐를 위해서는 어떤 조종사도 체포되거나 신분이 드러나서는 안된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전술했듯 로보프에 따르면, 소련 공군은 11월 1일부터 북한상공에 모습을 드러내었고 11월 8일에는 미군전투기와 전투에 돌입하였다. 중국 지상군의 참전 시점을 고려하면, 그리고 양자 사이에 소련 공군의 참전의 참전을 둘러싼 치열한 밀고당김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 참전은 결코 빠른 것이 아니었다. 할러데이에 따르면 소련군은 한국전쟁에 모두 7만 명이 참전하였다.

참전 조종사로서 한 소부대의 지휘관이었던 스몰체코프(Alexander Pablovich Smolchekov)는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필자와 직접 면담하였는데 그는 소련공군의 참전문제에 대해 친절하고도 구체적으로 증언해주었다. 그의 증언은 이들의 증언과 같다.

소련은 공군을 참전시키면서도 비행기에 소련 마크를 달지 못하게 하였다. 최초로 부대가 이동했을 때 나를 비롯한 조종사들은 아무도 한국전쟁에 참여하는 줄 몰랐다.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주로 이동하였다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이다. 전투 중에도 관계탑과 교신할 때 한국어나 중국어를 사용하여야 했으며 군복도 소련 군복을 입지 못하게 했다. 러시아어의 사용은 금지되었다. 때문에 우리는 탑승시 한국어로 번역된 구령 쪽지를 가지고 타야했다. 그것을 보고 한국어로 교신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조종사들이 익힌 한국어 실력은 아주 초보적인 것에 불과해서 급박하게 전투가 수행될 때에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우리는 결국 곧바로 러시아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sup>168)</sup>

로보프 밑에서 지휘관을 역임한 조종사 드미트리 파블로비치 오시긴 역시 같은 증언을 남기고있다. 그는 한국전쟁에서의 혁혁한 무공으로 인민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우리는 증공군 帽子和 증공군 군복을 입고 활동했다. 또한 비행 중일 때에는 소련어를 못쓰게 했다. 반드시 한국어로만 교신도록 지침을 받고 있었다. 각 비행기에는 한국어 사전이 비치되기도 하였다. 참전의 공훈으로 훈장을 받았지만 훈장 수여식에는 군복을 입고갈 수도 없었다. 민간인 복장으로 훈장을 받았고, 왜 그러한 훈장을 수여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설명되지도 않았다. 지금도 내 인민영웅 훈장증에는 어디서 무슨 활동을 했으며 그러한 활동이 소련인민들에게 어떠한 점에

168) 한국전참전 소련공군조종사 스몰체코프(Alexander Pablovich Smolchekov) 면담. 1992년 6월 23일, 경기도 광릉. (통역 한 맑스)

서 위대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므로 인민영웅칭호를 수여한다는 설명이 빠져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왜 그래야만 했는 지 지금까지도 알 수 없지만 한국전쟁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겐 비밀스런 전쟁으로 남아있다.<sup>169)</sup>

필자가 이 증언들을 상세하게 인용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소련의 직접적인 개입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았다는 점, 다른 하나는 그러한 대규모의 참전에도 불구하고, 즉 스탈린이 대규모의 공군을 참전시키면서도 얼마나 집요하게 개입사실을 숨기려고 노력하였는가 하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일찌기 서방으로 탈출했던 전북한주재 폴란드 대사관 무관 모나트(Pawel Monar)의 오래된 증언은 최근의 신뢰할만한 증언들과 너무도 같다.<sup>170)</sup> 그의 증언은, 냉전이 절정에 있을 때의 증언이자 그가 탈주자란 이유로 거의 무시돼왔었다.

(목텐에서 압록강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의 한 사건은 내게 소련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전쟁(한국전쟁-인용자주)에 깊이 개입하고있었는지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나와 함께 기차를 타고갈 사람들 중에는 떠날 시간이 다되어 기차에 탄 200여명이 포함되어있었는데, 그들은 중국 의용군의 녹색 여름군복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중국인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소련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한국(원문그대로,북한-인용자주)에 다수 진주하고있는 소련군사교문관들도 아니었다. 그들은 전투요원들로서 -- 방공포병, 전투공병, 그리고 조종사들 --- 전투를 위해 한국으로 가고있는 중이었다. 조종사들이 한국에 투입되었을 때 미군 조종사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목텐에서 명령을 내려 조종사들의 군복을 위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인들은 전쟁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았다. 기차안에서 그들이 좋아한 농담 중의 하나는 다음과같은 것이었다.

소련인1. 우리는 세계 최고의 조종사들을 갖고 있단말야.

소련인2. 어째서 그렇지?

소련인1. 그들은 손을 안대고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지.

소련인2. 왜 그렇게 하는데?

소련인1. 그들은 손으로는 자신들의 눈을 치켜올려야만하기 때문이지. 그래야만 미국인들은 그들을 북한사람들로 볼 것이 아닌가.

169) 『중앙일보』 1990년 6월 25일.

170) Pawel Monar with John Dille, *Spy in the U.S.* (New York and Evanston: Harper & Row Publishers, n. d. ), pp. 159-160.



스탈린은 이 전쟁에 매우 깊이 개입하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이 전쟁에의 개입사실을 숨기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소련은 스탈린의 사후에 까지도 이를 철저히 은폐하려 하였다. 그들은 스스로의 역사를 부정하기 시작한 80년대 후반 - 90년대 초에 들어와서야 이러한 사실들을 고백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우리는 1950년 6월의 중·소의 결정과 1950년 10월의 중·소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의 의문을 갖고 있었다. 1950년 6월에는 모택동이 소극적이었다가 1950년 10월에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바뀌었는가, 반대로 스탈린은 6월에는 깊숙이 개입하였다가 왜 10월에는 뒤로 물러섰는가라는 물음이 그것이었다. 상호 모순되고 비일관적인듯이 보이는 이러한 선택은 한국전쟁을 둘러싼 비밀 중에서 매우 안 풀리는 문제였다. 그러나 사실 전환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들 둘 중 바뀐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전환은 전쟁의 결정 이전에 일어났던 것이고 일단 전환한 후에는 스탈린과 모택동의 대응에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 번 모두 그 차이는 일관되게 지속되었다.

전환 후에도 스탈린은 여전히 교활했고 이중적이었으나, 일단 전환을 하자 모택동은 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솔직했다. 처음 결정에서의 양자의 태도는 10월의 대응에서도 관철되었다. 6월과 10월에 스탈린과 모택동을 가로지르는 전환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특정체계의 형성의 과정이 형성 후의 성격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듯 결정의 과정은 결정 후의 대응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때때로 그것은 똑같이 반복되기도 한다. 스탈린은 한 마디로 주도면밀했으나 교활하였다. 모택동 역시 심사숙고에 주도면밀했고, 자신이 먼저 대만을 해방시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 그러나 일단 결정이 나자 그는 적극적이었고, 동양식 표현으로 말해 “의리”가 있었다.

스탈린에게 중요한 것은 한국의 통일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였다. 한국에서의 전쟁개시를 허락하면서도 그의 가장 주된 관심은 그것의 성공 여부보다도 미국의 개입여부와 그에 따른 미소의 관계 악화 여부였다. 울람(Adam B.Ulam)이 지적하듯 “두 대륙(유럽과 아시아-인용자주) 모두에서 소련의 전술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미국의 의도와 능력에 대한 평가였다.”<sup>171)</sup> 그리고 스탈린은 질라스가 말했듯 기본적으로 국제연대나 이념보다는 국익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움직이는 인물이었다. 질라스가 인용한, 그리스와 중국을 비교하는 스탈린의 다음 언명은 그의 인식과 정책을 가감없이 파악해해주는 훌륭한 사례가 된다.

그래요, 중국동지들은 성공하였소. 그러나 그리스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곳에는 바로 세계 최강의 국가 미국이 직접 개입하였습니다. 중국은 다른 경우로서 극동의 관계들은 다릅니다. 사실 우리는 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본과의 전쟁이 종식되었을 때, 어

171) Adam B.Ulam, *Expansion and Coexistence: Soviet Foreign Policy, 1917-73*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4, 2nd ed.), p. 514.

떻게 장기적과 잠정타협(modus vivendi)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중국동지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우리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은 돌아가서는 자신들의 방법을 고수했습니다. 그들은 병력을 모았고 (장기적)을 쳤습니다. 그들은 옳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는 다른 경우입니다 -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그리스 봉기를 중지해야 합니다.<sup>172)</sup>

그는 그리스사태에 대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아네요. 그들은 전혀 성공의 전망을 갖고있지 못합니다. 대영제국과 미국- 세계 최강의 국가인 바로 그 미국 - 이 지중해에서 자신들의 커뮤니케이션 라인이 절단되는 것을 허용하리라고 생각합니까? 난 센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군이 없습니다. 그리스에서의 봉기는 가능한 빨리 중지되어야만 합니다.<sup>173)</sup>

그는 중국혁명의 경우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있으면서도 그리스는 전혀 다른 경우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물론 미국이라는 요인 때문이었다. 대륙에서의 중국혁명은 해군과 공군 없이도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만해방문제는 전혀 달랐다. 소련 해군과 공군의 지원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시도조차 어려울 것이 분명했다. 공군과 해군의 지원은 곧 소련의 개입(이 알려지는 것)을 의미했다. 북한은 스탈린이 보기에 아마도 대만보다는 훨씬 쉬웠을 것이다. 즉 1950년 스탈린이 모택동에게는 끝까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김일성에게는 동의를 한 이유는, 둘 다 미국 때문에 위험성이 높았지만, 대만보다는 한국이 성공 가능성이 높았고, 또 무엇보다도 대만공격에는 해군과 공군의 절대적인 필요성 때문에 소련의 명백한 개입을 피할 수 없는 반면 북한에서는 그러한 무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소련의 명백한 개입을 숨기고도 전쟁을 개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sup>174)</sup>

스탈린은 북한의 통일전쟁이 소련과 미국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걱정하였고 반면에 김일성과 박헌영은 조국통일이 주초점이었다. 결국 과도하게 급진적인 전쟁의지를 가진 두 현지 공산지도자(김일성·박헌영)들이 이 침착하고 교활하며 계산적인 세계전략가의 장충을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이다. 한국전쟁을 둘러싼 스탈린-모택동-김일성의 관계를 집중탐구한 한 연구는 "간단하게 말해 김일성은 단지 스탈린의 웅대한 장기게임(grand chess game)에서 하나의 줄

172) Milovan Djilas, *Conversations with Stalin*, p. 182

173) Milovan Djilas, *Conversations with Stalin*, p. 182

174) 靑石, 「金日成沮止了」, 「月刊 明報」1994년 7월호, p. 86.

(卒)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한다.<sup>175)</sup> 이 진술은 오직 스탈린(의 전략)을 중심으로 사태를 해석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스탈린-김일성 관계의 일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 스탈린은 고도의 전략적 숙고 끝에 전쟁을 동의, 지원하고는 배면으로 아주 깊숙이 빠져버렸던 것이다. 따라서 걸만 보았을 때 스탈린은 전혀 보이지 않을 수 밖에 없었다.

1950년 10월의 참전시에도 중국은 스탈린의 공군지원 약속이 취소되자 참전을 심각히 재고하기도 하였다. 이 때 소련에 대한 그들의 불만과 서운함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은 과연 북한과의 강한 역사적 유대로 인해 “참전치 않았으면 역사가들이 그 이유를 설명하기가 곤란했을 정도”<sup>176)</sup>였을까? 역사적 유대만을 보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에 비추어 실제의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 1950년 6월과 마찬가지로 1950년 10월의 결정 역시 중국으로서는 주도적이고 선제적인 참전결정은 아니었다. 이 때도 중국은 자국의 안보위협에 대처하는 측면과 함께 어찌 못지않게 스탈린의 종용에 따라 참전한 측면이 많았다. 미국의 위협, 스탈린의 권고, 북한의 지원호소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국의 참전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하나의 요인도 중국으로 하여금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전케 할 요인은 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구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생존문제였다.

표면적으로는 스탈린은 50년 봄의 전쟁 개시 결정때처럼 이때도 철저하게 뒤로 숨었다. 중국군 참전시에도 스탈린과 모택동의 둘 중 직접적인 참전은 후자가 결정하였으나 내막적으로 더 적극적이었던 것은 전자였다. 이는 마치 최종동은 모택동이 하였으나 실제로 먼저 동의하고 전쟁을 격려한 것은 스탈린이었던 6월의 반복처럼 보인다. 참전 결정 후 모택동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 주었고, 중국은 많은 면에서 전쟁을 주도하였다. 오랫동안 모택동의 경호실장을 하며 직접들은 이은교(李銀橋)에 따르면 자신의 아들 모안영(毛岸英)의 참전을 결정한 것도 모택동이었다. 강청을 비롯한 주변인물들은 안영이 현재 맞고있는 임무도 참전못지 않게 중요하니 보내지 말자고 모택동에게 건의하였다.

그러나 모택동은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안영은 모택동의 아들이다. 그가 죽음이 무서워 가지 않는다면 어느 누군들 가겠는가?”<sup>177)</sup> 모안영은 1922년생으로서 모택동과 양개혜(楊開慧) 사이에 태어난 장남이었다. 그는 참전후 중국인민지원군의 총사령관의 기요비서, 러시아번역, 사령부 작전처참모를 지냈다. 그러

175) Sergei N. Goncharov, John W. Lewis, Xue Litai,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 (Staford University, 1993), p. 142.

176)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I: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Princeton University, 1990), p. 350.

177) 權延赤, 「衛士長談毛澤東」, 이성욱 역, 「인간 모택동」 (서울: 녹두, 1993), pp. 154-155. 또다른 연구 역시 모택동이 자신의 아들을 데려가도록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때 모택동이 내세운 파견 이유는 안영의 러시아어 통역능력, 기밀유지의 필요성, 군사적 단련 등이었다. 張希 「彭德懷受命率師 抗美援朝的前前後後」, pp. 137-138.

나 모안영은 불행하게도 1950년 11월 25일 비군기의 지원군 사령부 폭격으로 사망하고말았다.<sup>178)</sup> 모안영의 사망후 보고를 받은 주은래는 안영의 사망사실을 모택동에게 차마 알리지 못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뒤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모택동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담배 두대를 피우고는 가슴이 터지도록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놈은 모택동의 아들이니까.....” 그러나 모택동은 결코 울지 않았다. 모택동의 지시로 안영의 시체는 중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북한땅에 묻혔다.<sup>179)</sup> 모안영의 참전 사례는 모택동의 의지와 단호한 결의를 읽게 해주는 부분이다.

또한 참전 후 모택동은 팽덕회와의 간밀한 협의를 통해 12월 4일 중국인민지원군과 조선인민군의 연합사령부를 만들었다.<sup>180)</sup> 이로써 모택동은 북경에 앉아 있었으며 직접 모든 주요 작전을 지도할 수 있었다. 조중연합사령부의 창설은 김일성의 비밀방문에 따른 합의의 결과였다. 12월 3일 김일성은 전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극비리에 직접 북경으로 모택동을 방문하였다.<sup>181)</sup> 그는 심양에서 고강의 안내를 받아 북경으로 왔다. 김일성으로서는 모택동과 중국공산당 중앙에게 참전에 따른 사의를 표하기 위해서였다. 김일성과의 대담에서 주은래는 조중 양군의 통일적 지휘체계에 대해 팽덕회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문이 왔었음을 상기시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고강 역시 팽덕회의 의견을 전하며 두 나라의 군대의 작전지휘가 나뉘어진 까닭에 오해가 생기고 심지어 자중지란에 빠지는 폐단까지 있다고 했다. 그는 지원군과 인민군이 맞붙은 사례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사태가 마치 비군과 국군의 초기의 개별적인 군사작전을 보는 것과 같다. 모택동 역시 두 나라 군대를 일괄 지휘 관리하는 통일된 사령부를 사급히 구성해야겠다고 결론지었다. 김일성은 스탈린 동지도 두 나라 군대의 작전지휘권을 통일해야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중국 동지들이 정직(正職)을 맡고 조선동지들은 부직(副職)을 맡는 연합사령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의견은 이미 로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의 의견을 거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거의 일방적으로 중국 주도로 연합사령부가 만들어지고 작전지휘권이 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중연합사령부를 만듦으로써 북한의 전병력까지 모택동과 중국지휘부의 지휘를 받지않을 수 없었다. 인민군에게도 연합사 명의로 명령이 하달되었다. 사령관과 정치위원은 팽덕회가 맡았고 북한은 다만 부사령관[김웅]과 부정치위원[박일우]을 맡았을 뿐이었다. 또 한 명의 부사령관은 중국의 등화가 맡았다. 조중연합

178) 譚錦, 「中國人民志願軍人物史」(北京: 中共黨史出版社, 1992), pp. 66-67.

179) 「인간 모택동」, pp. 155-156.; 洪學智, 「抗美援朝回憶」, pp. 79-80.

180) 「板門店 談判」, p. 116; 「抗美援朝回憶」, pp. 76, 101-102; 「아 압록강」2권, pp. 9-22.

181) 김일성은 1951년 6월 휴전협상의 시작을 전후하여 극비리에 모택동을 다시 한 번 방문하고, 이어서 스탈린도 방문하였다. 「6·25 내막; 모스크바 새 증인-「서울신문」발달 蘇文書속 秘史(19)」, 「서울신문」, 1995년 7월 4일.

사령부를 만들기 위해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하기 이전인 11월 23일 모택동은 전선으로 심양에 있던 고강을 직접 파견하여 협의하도록 하기도하였다. 아마도 현지 전선에서의 실제 군대 작전과 지휘문제에 대한 팽덕회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였을 것이다. 조중연합사의 창설은 대외적으로는 비밀이었다. 따라서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조중연합사령부의 존재사실은 학계나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사실 조중연합사령부의 설치는 비록 극비리에 추진된 비밀작업이었지만 사실상 비밀이 아니었다. 말을 바꾸면 '알려진 비밀'이었던 것이다. 이미 당시부터 북한의 입시수도가 있던 강계지방에는 하급 장교나 공산당 간부들도 알고있을 정도로 퍼져있는 얘기였다.<sup>182)</sup> 그들은 당시에 이 합동기구의 명칭까지도 정확히 알고 있을 정도였다. 한 증언 역시, 부분적인 약간의 사실적 오류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간에 연합사령부가 설치되었었다는 점, 그 북한측 부사령관에 박일우가 임명되었었다는 점을 매우 일찌기 밝혀준 바 있다. 이 증언자에 따르면 연합사령부 설치를 강력히 주장한 것은 모택동이었다.<sup>183)</sup> 1970년대에 출간된 남한의 한 공간사 역시 중국과 북한의 연합사령부 설치를 기록하고있다는 점에 비추어 완전히 비밀에 부쳐졌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sup>184)</sup>

동양식으로 표현해 모택동의 행동은, 비록 내면의 고뇌를 깊이 담고 순간 순간 흔들리기도 하였지만, 의리가 있고 동지애적인 것이었다. 참전을 결정하자 망설일 때와는 다른 단호함이 서려있었고 일단 참전하는 이상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방식, 이것이 중국식 행동양태였던 것이다. 그것이 중조관계의 핵심의 하나였다. 중국은 '주저'와 '단호함'을 반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쟁에서는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어쩌면 이것은 중국의 지도부로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는지도 모르나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전후 조중관계는 긴밀한 역사적 유대를 유지할 수 있었다. 전쟁에 동의해 놓고는 끝까지 자신은 연루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 교활하게 빠지고, 남을 싸우게 만들어놓고는 배후에서 조종하고 계산하는 스탈린식의 방식은 중국에는 맞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까지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각각이 보인 심사와 행태는 사실 1950년 봄 전쟁의 기원과 결정과정에서 나타났던 그것들의 재현이었던 것이다.

중국군의 참전과 함께 진행된 흥미있는 사실 중의 하나는 북한군의 만주로의 후퇴와 주둔, 재정비였다. 북한의 일부 간부들은 아예 가족과함께 국경을 넘어 만주로 피신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북한북부지역에 머무는 동안 가족들은 대부분 만주로 피신시켜 놓고있었다. 허가이의 딸 허가이리라 알렉세이에브나에 따르면 허가이의 가족들은 하얼빈으로 이동하여 생활하였다.<sup>185)</sup> 조선로동당 서

182) 김정기, 「밀파」, pp. 63-64.

183) 박갑동, 「한국전쟁과 김일성」(바람과 물결, 1990), pp. 124-127.

184) 「한국전쟁사」5권(전사편찬위원회, 1972), pp. 34-35. 남한의 대표적인 어 공간사는 10월 14일의 김일성 극비명령의 내용까지도 정확하게 인용하고있어(p. 36) 우리에게 놀라움을 자아내게 한다.

울시당 하급간부로 길고 긴 북행길에 올랐던 김정기는 만포에서 7군단에 편입, 국경을 넘어 만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에 따르면 만주에는 7군단 군관강습소가 있었다. 7군단 군관들은 반석현 화전(樺甸)에 집결하여 군관훈련을 받았다. 화전 시내에는 남한의 서울과 경기도에서 의용군으로 징발된 청년들을 중심으로 편성된 인민군 32사단이 훈련을 받고있었다. 이 사단의 사단장은 허성택(許成澤)이었는데 그는 전전 남한에서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위원장, 남조선로동당 중앙위원을 지낸 박헌영계열의 핵심공산주의자였다.<sup>185)</sup>

김정기에 따르면 당시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만포 건너 만주지방의 통화에 있었다.<sup>187)</sup> 로동당 서울시당은 만주로 이동하였다. 김정기는 군단정치부에서 개인별로 준 파송장(派送狀)을 통화에 도착하여 총정치국에 제출하니 평양에 있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로 가라는 지령이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트럭과 기차로 통화에 도착하였다.<sup>188)</sup> 자신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도 김정기의 증언은 사실일 것이다. 이를 볼 때 김일성을 비롯한 극소수만 고산진-만포에 남고 모두 통화로 월경하였거나, 아니면 아예 김일성까지도 월경하였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김일성의 월경을 증명할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또는 최고사령부 자체는 고산진에 위치하고 총정치국만이 통화로 이동하였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해방일보」기자인 김가인 일행이 길고긴 북행 끝에 압록강이 바다다 보이는 위원에 도착하였을 때 지방 간부들은 이미 만주로 떠난 뒤였다.<sup>189)</sup> 그들도 역시 만포로 이동하여 도강준비를 하였다. 「해방일보」사원들은 7군단에 소속되어 만주로 이동하였다.<sup>190)</sup> 당간부 가족들 역시 만주로 이동하였다. 김가인 일행은 11월 10일 기차를 타고 조국을 떠나 월경, 만포에서 즈안-통화를 거쳐 7군단본부가 있는 반석에서 내렸다. 그러나 김가인에 따르면 당과 정부의 고위 간부들의 가족은 하얼빈, 목단강, 길림으로 더 이동하기 위해 기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소련한인 2세는 하얼빈으로, 당간부와 기관간부 가족들은 목단강과 길림으로 향하였다.<sup>191)</sup> 안전을 위해서였거나 아니면 일반 인민들의 눈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더 멀리 피해있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허가이의 딸이 하얼빈으로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아 김가인의 증언은 정확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당시 해방촌에는 7군단 예하 75사단이 주둔하였다. 나중에 75사단은 명성(明城)으로 이동하였다. 일행은 반석의 군단 본부로부터 40리나 떨어

185) 「주간조선」, 1328호(1994년 11월 10일), p. 26

186) 김남식, 「남로당 연구」(돌베개, 1984), pp. 541-542.

187) 김정기, 「밀파」, pp. 65, 79-80.

188) 김정기, 「밀파」, pp. 79-80.

189) 김가인, 「敗走五千里」(태양문화사, 1952), pp. 81-83.

190) 김가인, 「敗走五千里」, p. 95.

191) 김가인, 「敗走五千里」, pp. 96-100.

진 해방촌으로 가라는 냉대를 받았다.<sup>192)</sup> 김가인은 북한이 “마비된 신경과 군사와 모든 행정을 포화가 미치지 않는 동북에서 악랄하게 정비하고있었다.”고 표현한다. 그에 따르면 김일성은 고산진에 위치하였고, 최용진은 동북에 위치하였다. 말단 공산주의자인 김가인, 김정기 등의 증언을 보면 고위간부들의 행정과 위치, 조직도 당시에 대부분 알려졌었음을 의미한다. 그녀에 따르면 6군단은 황인(黃仁)에, 8군단은 연길(延吉)에, 2군단과 강건군관학교는 통화에 위치하였다.<sup>193)</sup> 또한 통화에는 최고사령부 총정치국이 주둔하였다.<sup>194)</sup> 김정기의 증언과 동일하다.

만주에서의 이동 도중에는 김가인 일행은 기차안에서 소련고문관을 만났다. 그들은 심양(봉천)에서 통화에 있는 최고사령부로 이동하는 중이었다.<sup>195)</sup> 김가인은 이를 두고 한국의 동란은 완전히 소련이 조종하고있으며 작전상의 모든 지시도 이들이 내리고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증언한다. 그는 중국군을 보았을 때보다 더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 이미 알려졌듯 당시에 소련군사고문관들은 실제로 북한군 각급 편제에 배치되어 전쟁을 지휘하고있었다. 통화의 총정치국에 도착했을 때의 인상을 김가인은 이렇게 기록한다. “총정치국은 통화역에서 십리나 되는 곳에 자리잡고 있었다. 벽돌로 된 3층건물은 오늘날 한국동란을 조종하는 붉은 음모의 총본산이었고 크레믈린의 극동 별궁같은 곳이었다. 김일성어도 여기와 긴밀한 연락하에 갖은 최악의 역사를 빚어내고 있으며 이곳과 그가 있는 고산진과는 빈번한 연락이 취해지고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sup>196)</sup>

한편 미군의 당시 정보에 따르면 만주 주둔 북한인민군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10월초에 전13사단장 최용진의 지휘하에 편성된 18, 19, 36사단으로 이루어진 6군단은 11월초에 만주의 관전(寬甸)으로 이동, 재편되었다.<sup>197)</sup> 전 3사단장 이영호 지휘하에 편성된 7군단은 만주에서 편성 및 징집, 훈련을 계속하다가 51년 1월에 신의주로 입한하였다.<sup>198)</sup> 13사단은 만주의 길림성으로 후퇴하여 부대를 재편성한 후 51년 3월 중순 돌아왔다.<sup>199)</sup> 이는 이 부대 소속원이었던 김진계의 증언과 동일하다. 김진계에 따르면 자신이 속해있던 13사단은 후퇴하여 11월 4일 만포진에서 통화로 이동하였다. 6일에는 통화에서 길림으로 사단 전체가 기차를 타고 다시 이동하였다.<sup>200)</sup> 7군단 소속의 37사단은 만주 길림에서 훈련 및 재편, 51년 1월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sup>201)</sup> 한편 45사단은 만주로 이동, 8군단 소속으로 재정비한

192) 김가인, 『敗走五千里』, p. 103.

193) 김가인, 『敗走五千里』, p. 108.

194) 김가인, 『敗走五千里』, p. 115.

195) 김가인, 『敗走五千里』, p. 122.

196) 김가인, 『敗走五千里』, p. 123.

197) HNK, p. 49

198) HNK, p. 50

199) HNK, pp. 72-73

200) 김진계·김응교, 『조국』(상)(현장문학사, 1990), pp. 136-146.

201) HNK, p. 76

뒤 51년 1월말 재진입하였고, 46사단 역시 만주 연길로 이동하였다가 51년에 재진입하였다. 105탱크사단 역시 일부는 만주로 이동하였다.<sup>202)</sup> 그렇다면 북한지역내에서 작전 가능한 인민군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최근 공개된 소련문서에 따른 당시 북한인민군의 배치상황을 살펴보자.<sup>203)</sup> 11월 11일 현재의 소련군 쿠드리아초프 중장의 보고에 따르면 인민군의 배치상황은 다음과같았다. 먼저 만주지방에는 제6군단(제18, 제68, 제36보병사단), 제7군단(제13, 제32, 제37보병사단), 제8군단(제42, 제45, 제76보병사단)이 이동 주둔하였다. 이들 각 사단의 병력은 1만명 수준이었다. 이를 보면 총 3개군단에 9개사단, 약 9만명의 병력이 만주지방에 주둔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지역에는 제1군단(제8, 제46, 제47보병사단, 제17기계화사단), 제3군단(제1, 제3, 제15보병사단, 제26보병여단, 제105탱크사단, 제10사단, 제6여단), 제5군단(제1, 제12, 제38, 제24보병사단), 그리고 4개의 독립사단(제2, 제4, 제5, 제7 사단)등 총 20여개의 사단이 주둔하고있었다. 김일성의 진술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던 것이다. 그러나 소련자료에는 이 부대들의 자세한 위치는 나타나있지 않다.

북진하는 국군 및 비군의 후방에 잔류하고있던 병력은 제2군단 소속으로서 여기에는 31사단, 27여단, 기타 독립해병여단이 속해있었다. 당시 시점의 총병력 약 25-27만명 중 적어도 1/3 이상이 만주에 주둔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1년 1월 30일 시점에서도 북한의 총 28개 사단중 19개 사단은 전선에, 9개 사단은 만주에 주둔 중이었다.<sup>204)</sup> 이로 인하여 만주는 역사상 세번째로 조중공산주의자들의 공동투쟁의 장소가 된 것이었다. 첫 번째는 일제시대, 두번째는 종전 직후의 국공내전,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을 맞아 세번째의 공동투쟁을 두 아시아국가의 공산주의자들은 전개하고있는 것이었다.<sup>205)</sup>

202) HNK, pp. 77, 79-80.

203) 「6·25 내막; 모스크바 새 증언」 서울신문」발굴 蘇文書속 秘史(12), 「서울신문」, 1995년 6월 10일.

204) 「6·25 내막; 모스크바 새 증언」 서울신문」발굴 蘇文書속 秘史(18), 「서울신문」, 1995년 6월 27일.

205) 이 세 시기 공동투쟁의 상세한 내용과 비교, 역사적 영향, 의미에 대해서는 출처 「한국전쟁, 1950 통일에의 의미」(근간)를 참조.



## VI. 맺음말 - 오늘에의 시사

영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 함께 유엔의 이름하에 한국전에 참전함으로써 미국은 세계의 냉전체제 하에서 서방세계의 결속력을 공산측에 과시할 수가 있었다. 특히 극동에 있어서 미국의 안보이익은 다른 서방국가들과 당시 냉전의 전초기지라 할 수 있었던 한국에서의 공동전략으로 강화될 수가 있었다. 대외적인 명목상으로 영국의 한국전 참전은 유엔의 세계평화 유지를 위한 결의에 대한 충성적인 지원으로 주장이 되었지만, 당시 세계정치의 역학관계로 보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의 대공산전략의 일환이었다 할 수 있다.

참전결정이나 전쟁수행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은 공산세력의 무력사용을 물리쳐야 한다는 공동목표를 공유하고 있었으나, 이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양국은 전략적이고 외교적인 마찰을 경험하였다. 특히 중국의 한국전 참전을 전후하여 영국 등 연합국들은 보다 더 조심스러운 전략수립을 요구하였고, 미국지도자들은 한국에서 강경한 정책을 취하지 말라는 동맹국들의 조심스런 경고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영국 등 전쟁제한론을 주장하는 국가들은 전쟁초기부터 협상에 의한 전쟁의 종결을 원하였다. 특히 그들은 인천상륙작전의 성공 이후 유엔측은 유리한 입장에서 공산측과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적어도 38선에 접근하였을 때 미국은 북한측에 완전 패망을 경고하면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한, 또는 유엔의 감시하의 통일을 제의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하여 공산측이 반대를 한 이후 북한 지역으로 진격을 해야만 했다는 아쉬움을 보였다. 북한이 이를 수용하여 평화통일 의사를 보였을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지만, 미국이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면 유엔군의 북한지역 진격에 대한 명분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었고, 중국도 참전의 구실을 별로 찾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1950년 10월초에 북한군은 거의 완전히 패멸하다시피 하였으므로 유엔군이 확전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서둘러서 북한 지역으로 진격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전쟁이 3년씩이나 장기화되었기 때문에 조기종전을 모색하는 시도를 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논리적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진격을 할 때, 미국정부는 빈번한 중국정부의 경고와 연합국들의 권고를 주의깊게 받아들였어야 했다. 북위 40도선의 잘룩한 부분에 방어선을 구축한 후, 한국군대만 진격을 시켜 압록강에 다다르게 했다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군대의 국경을 향한 진격을 두려워 했던 중국의 위협감을 해소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방어선에서 공격을 멈춘 후 중국군 참전 이전에 협상을 시도하였다면 미국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힘의 우위를 점한 후 협상한다는 정책을 충족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영·미 정상회담부터 양국의 갈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한국 문제는 미국이 중국에게 양보할 의사가 있을 때에만 해결될 수 있다는 끈질긴 애

트리의 경고와 백아더에 대한 불만토로는 미국으로 하여금 영국군의 철수까지 언급하게 하는 심각한 갈등관계를 표출하였다. 비행정부는 힘의 우위를 기초로 한 협상을 원하였고 연약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영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섯차례의 정상회담에서 영국과 미국은 세계 안보체제에 있어서 통일된 전략을 취하여야 된다는 점을 확인한 이외에는 한국에서 양국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었다. 여섯차례의 정상회담은 양국의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하였다.

유럽과 중동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던 영국은 모든 극동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비롯한 미국의 유엔에서의 주도적 역할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표시하였다. 영국인들은 중국에게 적대감을 보이는 것은 중국과 소련의 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모건(Kenneth Morgan)은 “노동당정부는 중국과 소련을 동질로 보고 있는 워싱턴의 냉전적 이념론자들에게 휩쓸려 있다”고 주장했다.<sup>206)</sup>

미국은 “역사가 짧은 국가이기 때문에 행정부는 무모한 도박을 일삼는 경우가 많다”고 51년 1월 5일 베빈이 네루에게 말한 것처럼, 영국지도자들은 미국인들이 “일관된 정책을 취하지 못하는 변덕스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도크릴(M.L. Dockrill)은 영국인들이 보는 미국인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그들은 강대국으로서의 책임에 대하여 생소하였고 강대국으로서의 힘을 무책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또한 참을성이 부족하여 세계를 재앙으로 몰고갈 지도 모를 비합리적이고 드라마틱한 행위로서 교착상태를 벗어나고자 했다.<sup>207)</sup>

반면에 영국인들은 한국전쟁이 서유럽에 대한 공격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위한 소련에 의하여 일으켜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세계전략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영국과 미국은 이해의 대립과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었지만, 이러한 갈등은 전력을 다한 대결로써 풀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은 전반적인 우호관계에 따르는 이득이 양국이 단기적인 목적에 의하여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 각자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강요함에 있어서 확실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비록 그들이 한국과 중국문제에 있어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세계전략에 있어서는 분리될 수가 없었다. 한국과 중국문제에 대하여 의견차이는 있었지만, 기본

206) Kenneth Morgan, *Labour in Power 1945-1951* (Oxford: OUP, 1984), p.432.

207) M.L. Dockrill, “The Foreign Office, Anglo-American relations and the Korean War, 1950년 6월 - 1951년 6월”, *International Affairs*, Vol.62, No. 3, 1986년 여름호, p. 475.

적인 세계전략에 있어서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동맹관계라는데 두 나라는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영국은 서방세계의 한국전예의 개입을 주도하고 있었던 미국의 지배력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영국, 영연방국가, 아니면 서유럽에 공산권의 새로운 공격이 있을 시 미국의 도움이 없이 방어하기는 거의 불가능했던 상황이라 미국에 호의(goodwill)를 보여야 한다는 사실에 거역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또한 세계전략에 있어서 영국은 미국과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확인함으로써, 2차 대전후 새로 편성된 동서냉전 대립의 긴박한 구조 속에서 영국의 위상을 확립할 수가 있었다. 우리는 앞으로 한국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시에 서방진영에서 갈등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한편, 반대로 그러한 갈등관계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모든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는 대비 역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살펴본 중국참전을 둘러싼 내용들은 1950년 가을 북한이 전세역전으로 인해 직면했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소련-중국-북한은 어떠한 대응을 하였고,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쳐 중국군이 참전하였는가 하는 문제들이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새로운 점을 밝히기도 하였고 또 기존의 사실들을 확인하고 정리하기도 하였다. 전세의 역전 직후 북한의 김일성과 박헌영은 스탈린과 모택동에게 거의 모든 것을 매달릴만큼 적극적으로 원조를 요청하였다. 그들은 그들 둘에게 자신들 둘 모두가 서명한 편지를 직접 보내 참전을 호소하였다. 흥미 있는 것은 중국군 참전을 위한 종용의 요청까지도 김일성과 박헌영이 스탈린에게 하고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이미 전쟁의 결정과정에서 그들이 실제의 최고결정권과 지도성(supremacy)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당시의 동아시아공산주의3각동맹 국가들 사이의 위계 및 세계공산주의 진영에서의 스탈린의 위치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스탈린은 자기가 사태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둘을 분리통치하고 분할관리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둘이 독자적으로 교섭하여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려 하지 않았다. 이 점 역시 1950년 6월에 이르기까지의 결정과정의 재현이었다.

전세 역전 후 김일성·박헌영과 스탈린, 모택동 각각이 보인 반응 역시 전쟁을 결정할 때의 과정과 거의 동일했다. 김일성과 박헌영만큼 절박한 사람은 없었다. 전쟁을 시작할 때도 그들은 조급한 통일열정과 무모한 군사적 승리주의를 앞세워 스탈린과 모택동을 어지간히 졸라대며 설득하였었다. 전세가 역전되자 그들에게 황급하게 지원을 요청해놓고는, 일반이 놀랍게도 적들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자신들끼리 다투고 치고 받는 싸움박질을 하고 있었다. 외국의 대사가 찾아와도 중지하지 않고 싸울만큼, 남들이 보건 말건 전세가 역전되자 그들은 이미 패전의 책임을 의식하며 책임전가를 위한 길고 긴 싸움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둘은 외국과의 교섭을 위한 중차대한 임무를 분담하고, 또 군대내의 최고 직위를 양분하며 적에게 맞섰다. 이들의 이 엇갈리는 행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측할 수 있고,

무엇을 가려배울 수 있는 것일까? 아니, 무엇을 위하여 그들은 전쟁을 시작했던 것일까?

스탈린의 행태는 참으로 전율적으로 보인다. 그의 차갑고도 치밀한 대응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에게서 어떤 무서움까지 느끼게 한다. 인간과 국가간 관계에서 신뢰,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스탈린은 직접 참전할 염(念)은 조금도 없었으나 모택동이 참전하여 비국과 싸워준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었다. 자신의 공군지원약속 위반으로 중국이 참전을 주저하자 그는 비련없이 김일성과 북한정부를 버리고자했다. 결정적인 국면에서 그가 취하는 선택과 자세에서 느껴지는 것은, 지나친 현실감과 이기성이 감지되는 '무서우리만치 섬뜩한 냉혹성과 금속성'이었다.<sup>208)</sup>

그의 판단은 예리했고 그는 결정의 거의 전부를, 공허한 국제프롤레타리아주의가 아니라 실제로 잡힐 수 있는 소련의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그런 점에서 그는 공허한 국제프롤레타리아주의자가 아니라 철저한 소련국익우선주의자였다. 그는 또한 보이지 않는 이념을 추구하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확실하게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는 현실주의자였다. 그러나 그는 다른 공산주의자들에게는 항상 국제공산주의연대, 프롤레타리아공산주의자로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었다. 그는 다른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적 노선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려 하지 않았다.

중국군 참전을 둘러싼 그의 비밀전문들은 모택동과 김일성을 분리 조종하고, 그리하여 참전시키려하면서도, 자신의 의사는 철저하게 숨기고있는 놀라운 전략가와 지략가의 면모를 약어하게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정도의 철면피성은 충분히 감내하고 지탱할만한 힘과 권위를 당시 공산진영내에서는 갖고 있었다. 힘과 권위 없이 인간의 철면피성은 결코 만들어지지도 지탱되지도 않는다. 특히 그것은 반복되는 습관속에서 남들의 떠받듬으로 인해 이내 일상화된다. 스탈린은 지난 수십년 동안의 공산진영내의 도전불능의 최고지도성(supremacy)으로 인해 그러한 것쯤은 이미 일상화되어있었던 것이다.

모택동과 중국지도부는 현실과 이상, 국가이익과 사회주의연대라는 깊은 심연(深淵)이 가로인 둘 사이에서 고뇌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현실을 놓고, 그리고 그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을 놓고 그 사이에서 심각하게 망설이고 있었다. 어느 현실이 진정 더 중요시해야할 현실인가가 문제였다. 그는 신생의 조국의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미래의 발전을 위해 또 다른 현실인 스탈린의 요구를 수용하고 미국의 압력에 맞서기 위해 북한을 지원하는 건곤일척의 선택을 강행하였다. 미국에 대한 대응을 보면 스탈린은 내내 소심하고 조심했으나, 그는 두려워했으되 담대했고 승부를 걸었다.

그러나 모택동의 참전 결정은 결국 그가 이상지향적인 현실주의자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의리와 연대, 형제, 인방 등 약간의 낭만주의적 주의주의적

208) 출처,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1권, 4장 참조.

사고도 크게 작용했다. 그 차이가 결국은 스탈린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 문화혁명을 비롯한 그 이후의 그의 국가운영정책에서도 이러한 그의 행태는 지워지지 않았다. 그가 아들까지 참전시켜, 결국은 죽음으로까지 이르고만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로부터 어떤 고래의 동양적 군주나 지도자의 일면을 보는 것도 같다. 그는 참전을 강력히 권유하면서도 공군지원을 못하겠다고 하는 스탈린의 약속위반에 혀를 내들렀을 것이지만, 만상(萬象)에 대한 원려와 피를 말리는 고뇌 끝에 결국 참전의 결단을 내렸다.

1950년 10월의 중국참전에서의 소-중-북한관계를 검토한 결과 우리는 이 결정의 과정이 국제프롤레타리아연대, 사회주의연대, 민족해방의 지원이라는 구호 뒤에 자신들의 국익을 추구하기 위한 불꽃튀는 계산과 갈등이 내재된 게임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질라스(Milovan Djilas)가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과학적, 맑스주의적 등의 용어 속에 (국익을 위해) 스탈린에 대한 극단적인 아첨을 당시의 공산지도자들이 은폐하고 있었던 것처럼”<sup>209)</sup> 국제프롤레타리아연대, 사회주의연대, 민족해방의 지원이라는 구호들은 다만 상투적인 언설들로 치장된, 각자의 국가이익을 위한 은폐와 계산일 뿐이었다. 1950년 한국전쟁시의 스탈린의 대응에서 이 이상의 어떤 공통의 이익이나 제3세계 민중에 대한 지원, 세계평화 등의 기치를 찾으려 노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오래지 않아 이들 셋이 모두 갈라져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였다는 점은 그들이 내세운 보편적 공통적 가치가 얼마나 공허했는가를 반증해주는 증거였다. 격렬했던 중소갈등은 논외로 하더라도 북한 역시 주체노선을 기치로 하여 이들과의 분립을 분명히 했다. 국제프롤레타리아주의나 사회주의연대처럼 “각 민족의 이익을 보다 높은 공통의 목적보다 밑에 두는 한 그것들은 민족주의체제가 아닌 것”<sup>210)</sup>이라는 홉스봄(Eric Hobsbawm)의 지적이 옳은 통찰이듯, 철저히 각자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내세워지는 어떠한 공통의 구호도 진실이 아닐 것일 것이다.

오늘에도 우리의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당시의 문제는 상존한다. 1950년 가을 북진을 결정할 때 미국이 가장 우려한 것은 북한의 후원국가들인 소련과 중국의 대응이었다. 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직접 참전하여 전쟁이 확대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가 가장 큰 우려였던 것이다. 냉전의 해체와 소련의 붕괴로 인해 중요한 한 요소는 사라졌지만, 중국은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오늘에도 이 문제는 일정 정도 적실성이 있다. 북한에서의 급격한 사태 발생시 중국은 과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1950년과 같이 직접 개입하여 사태를 구획하려 시도할 것인가?

중국은 당시 대규모 병력이 직접 참전하였을 뿐만아니라 아예 조중연합사

209) Milovan Djilas, *Conversations with Stalin*, p. 30

210) Eric Hobsbawm,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 172.

령부(湖中聯合司令部)를 설치하여 양국군이 단일한 합동 지휘체계하에 전쟁을 수행하였으며, 휴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이기 때문에 북한의 소멸을 통한 한반도의 휴전체제의 변화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개입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오늘날 중국의 개입 여부 및 그 방식이 한국문제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국전쟁시의 38선 북진의 문제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휴전선 해소의 문제로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오늘의 북한이 휴전선을 철폐하기 위한 선제공격을 개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속에서 급격히 내부적 격동에 빠질 때이다. 그럴 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상정해 볼 수 있는 주요 쟁점은 전쟁시의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에서의 급격한 사태 발생시 우리는 군사적 개입을 하여야 하는가? 아니라면 우리는 북한의 기존 정부와 통일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여야 하는가 아닌가? 즉 북한정부를 인정한 상태에서 통일협상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수와 점령을 시도해야 하는가? 둘째 군사적 개입을 시도할 시 한국군 단독인가, 아니면 미군 또는 국련군과의 합동인가? 셋째 개입 시 중국군은 대응 개입을 할 것인가, 아닌가?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떠한가? 중국군의 개입을 외교적으로 저지하는 것인가, 아니면 개입에도 불구하고 북진점령을 시도해야 하는가?

넷째 중국군의 개입은 새로운 전쟁으로 발전할 것인가 아닌가? 만약에 중국이 1950년처럼 남한군만의 북진은 허용하지만 미군의 북진은 안된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다섯째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미국의 정책이 갈릴 경우 우리는 어떠한 하나의 정책을 밀고나갈 것인가? 미국과 같은 정책을 펴면서 국제적 협조노선을 견지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의사에 관계없이 우리의 의사를 밀어부쳐 조속한 통일을 실현하려 노력할 것인가? 이를테면 특히 미군의 북진반대가 있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끝으로 통일이 되었을 경우 오늘의 북한리더십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모든 하나 하나의 문제가 간단치 않을 뿐만 아니라 사태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사려깊은 대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 한국전쟁과 국제갈등

---

印 刷 : 1998. 9. 22

發 行 : 1998. 9. 24

發 行 處 : 統一部 統一政策室  
政 策 企 劃 課

電 話 : 725-0762

F A X : 739-0624

<http://www.unikorea.go.kr>

---

〈 바 매 품 〉